



2017
호국문예 제17집

현충원에서
뛰 우 는
편 — — 지



조국과 겨레는 나의 사랑 나의 영광
나의 힘 나의 생명
그를 위해 짧은 인생을 바쳐
그와 함께 영원하리라



Letters from The Seoul National Cemetery





2017
호국문예 제17집

현충원에서
뛰 우 는
편 — — 지



국립서울현충원
Seoul National Cemetery



국립서울현충원은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국토를 방위하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마저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들어 계신 민족의 성지이며 겨레의 일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은 국민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며
국가 수호의 결의를 새로이 다짐하는 장소입니다.

발간사

국립서울현충원은 조국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희생하신 독립운동가, 국군장병 그리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친 국가유공자 등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고이 잠들어 계신 민족의 성역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호국 추모공원인 서울현충원은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이 생생하게 깃들어 있는 역사적 현장입니다. 그분들의 숨결을 느끼고 발자취를 더듬어 한편의 아름다운 글과 그림으로 남길 수 있도록 매년 호국문예백일장과 그림그리기 대회를 함께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국의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과 일반인들까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나라사랑의 마음과 호국의 의지를 원고지와 화폭에 정성스럽게 표현하였습니다.

제26회를 맞이한 호국문예백일장에서는 이곳에 계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저마다의 사연과 이야기가 담긴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운 손녀의 이야기, 나라를 위해 청춘을 전쟁에 바치셨다가 절름발이가 되신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그리운 마음의 이야기, 현충원에서 느낀 나라 사랑에 대한 다짐, 나라를 위해 전사하신 분들이 원했던 내일은 우리가 당연하게 살아가는 하루라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다는 어느 초등학생 이야기 등 가슴 따뜻해지는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벌써 12회를 맞은 그림그리기 대회의 수상작들은 얼마 전 충훈당(*현충원의 납골 안장 시설)에서 전시를 하였습니다. 이때 유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방문객들이 어린 학생들이 순수한 동심으로 표현한 형형색색의 현충원 모습에서 감동과 재미를 함께 느끼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감동 어린 글과 그림을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엮어진 이번 문예집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참가자들의 눈에 비친 현충원의 아름다운 모습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이 여러분의 가슴 깊이 호국의 씨앗으로 심어져 힘차게 자라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도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한 우리 대회에 참여하여 특별상을 수여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해주시는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경기도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한국문인협회장, 미술협회장을 비롯한 육·해·공군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국립서울현충원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선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심사를 맡아주고 계시는 한국문인협회와 한국미술협회 관계자들에게도 지면을 빌려 감사를 전하며, 귀중한 작품들이 빛을 볼 수 있게 발간에 도움을 주신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11월

국립서울현충원장 안수현



제1집

「먼 전설이 아니에요」 (1회~4회 수상작 수록)

제1회 호국문예백일장

- 일시 : 1993년 10월 30일(토)
- 인원 : 166명(초등학교 94개교, 중학교 72개교에서 각 1명)
- 시상 : 6명(초등부 3명, 중학부 3명)

제2회 호국문예백일장

- 일시 : 1995년 5월 27일(토)
- 인원 : 176명(초등학교 87개교, 중학교 89개교에서 각 1명)
- 시상 : 1회 대회와 동일

제3회 호국문예백일장

- 일시 : 1996년 4월 27일(토)
- 인원 : 391명(초등학교 98개교, 중학교 99개교에서 각 2명)
- 시상 : 14명(초·중학교별 최우수상 각 1명, 우수상 각 2명, 장려상 각 4명)

제4회 호국문예백일장

- 일시 : 1997년 4월 26일(토)
- 인원 : 382명(초등학교 99개교, 중학교 96개교에서 각 2명)
- 시상 : 3회 대회와 동일

제2집

「그 언덕에 서면」 (5회~8회 수상작 수록)

제5회 호국문예백일장

- 일시 : 1998년 4월 26일(일)
- 인원 : 345명(초등학교 89개교, 중학교 84개교에서 각 1~2명)
- 시상 : 초·중학교별 최우수상(국방부장관상) 각 1명, 우수상(교육감상) 각 2명, 장려상(국립현충원장상) 각 5명

제6회 호국문예백일장

- 일시 : 1999년 4월 24일(토)
- 인원 : 416명(초등학교 110개교, 중학교 104개교에서 각 1~2명)
- 시상 : 초·중학교별 최우수상(국방부장관상) 각 1명, 우수상(교육감상) 각 2명, 장려상(국립현충원장상) 각 6명

제7회 호국문예백일장

- 일시 : 2000년 4월 22일(토)
- 인원 : 477명(초등학교 124개교, 중학교 110개교에서 각 2명)
- 시상 : 초·중학교별 최우수상(국방부장관상) 각 1명, 우수상(교육감상) 각 3명, 장려상(국립현충원장상) 각 8명

제8회 호국문예백일장

- 일시 : 2001년 4월 21일(토)
- 인원 : 477명(초등학교 124개교, 중학교 110개교에서 각 1~2명)
- 시상 : 초·중학교별 최우수상(국방부장관상) 각 1명, 우수상(교육감상) 각 3명, 장려상(국립현충원장상) 각 8명



제3집

「고마운 사람들」 (9회~10회 수상작 수록)

제9회 호국문예백일장

- 일시 : 2002년 4월 20일(토)
- 인원 : 478명(초등학교 158개교, 중학교 90개교)
- 시상 : 21명(최우수상 각 1명, 우수상 각 3명, 장려상 각 6명)

제10회 호국문예백일장

- 일시 : 2003년 4월 19일(토)
- 인원 : 429명(초등학교 123개교, 중학교 81개교)
- 시상 : 25명(최우수상 각 1명, 우수상 각 3명, 장려상 각 8명)

제4집

「가슴 속에 스며드는 빛나는 영혼」 (11회 수록)

제11회 호국문예백일장

- 일시 : 2004년 4월 17일(토)
- 인원 : 152개교 300명(초·중학부)
- 시상 : 20명(국방부장관상 2명, 교육감상 6명, 현충원장상 12명)

제5집

「가슴으로 부르는 연가」 (12회 수상작 수록)

제12회 호국문예백일장

- 일시 : 2005년 4월 16일(토)
- 인원 : 152개교 300명(초·중학부)
- 시상 : 20명(국방부장관상 2명, 교육감상 6명, 현충원장상 12명)

제6집

「나라를 지킨 영웅들」 (13회 수상작 수록)

제13회 호국문예백일장

- 일시 : 2006년 4월 15일(토)
- 인원 : 97개교 182명(초·중학부)
- 시상 : 24명(국방부장관상 2명, 교육감상 6명, 현충원장상 16명)

제7집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들」 (14회 수상작 수록)

제14회 호국문예백일장

- 일시 : 2007년 5월 12일(토) 10:00~16:30
- 인원 : 86개교 188명 * 백일장 고등부 도입
- 시상 : 24명(국방부장관상 2명, 교육감상 6명, 현충원장상 16명)

제8집

「지는 꽃 피는 꽃」 (15회 백일장 및 1회 그림대회 수상작 수록)

제15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1회 그림그리기 대회

- 일시 : 2008년 5월 16일(금)
- 인원 : 393명(백일장 282명, 그림 111명) * 그림그리기 대회 신설
- 시상 : 백일장 18명, 그림 7명

제9집

「현충원의 봄날」 (16회 백일장 및 2회 그림대회 수상작 수록)

제16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2회 그림그리기 대회

- 일시 : 2009년 4월 11일
- 인원 : 2,386명(백일장 616명, 그림 1,770명) * 백일장 일반부 신설
- 시상 : 백일장 24명, 그림 57명

제10집

「내 마음속의 현충원」 (17~18회 백일장 및 3~4회 그림대회 수상작 수록)

제17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3회 그림그리기 대회

- 일시 : 2010년 5월 8일(토)
- 인원 : 2,518명(백일장 1,357명, 그림 1,161명)
- 시상 : 백일장 32명, 그림 76명

제11집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 (19~20회 백일장 및 제5~6회 그림대회 수상작 수록)

제19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5회 그림그리기 대회

- 일시 : 2011년 5월 14일(토)
- 인원 : 2,167명(백일장 1,167명, 그림 1,000명)
- 시상 : 백일장 49명, 그림 51명

제20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6회 그림그리기 대회

- 일시 : 2011년 11월 12일(토)
- 인원 : 800명(백일장 616명, 그림 184명)
- 시상 : 백일장 33명, 그림 25명

제12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21회 백일장 및 제7회 그림대회, 외부백일장 수상작 수록)

제21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7회 그림그리기 대회

- 일시 : 2012년 5월 12일(토)
- 인원 : 2,167명(백일장 1,167명, 그림 1,000명)
- 시상 : 백일장 59명, 그림 79명

제13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22회 백일장 및 제8회 그림대회 수상작 수록)

제22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8회 그림그리기 대회

- 일시 : 2013년 5월 11일(토)
- 인원 : 3,082명(백일장 1,420명, 그림 1,662명)
- 시상 : 백일장 75명, 그림 84명
- * 특별상 신설 (서울특별시인천시교육감, 한국문인협회장, 한국미술협회장, 육해공군참모총장상, 해병대사령관상)

제14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23회 백일장 및 제9회 그림대회 수상작 수록)

제23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9회 그림그리기 대회

- 일시 : 2014년 5월 10일(토)
- 인원 : 2,430명(백일장 1,389명, 그림 1,041명)
- 시상 : 백일장 66명, 그림 65명

제15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24회 백일장 및 제10회 그림대회 수상작 수록)

제24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10회 그림그리기 대회

- 일시 : 2015년 5월 9일(토)
- 인원 : 2,211명(백일장 1,094명, 그림 1,117명)
- 시상 : 백일장 66명, 그림 67명

제16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25회 백일장 및 제11회 그림대회 수상작 수록)

제25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11회 그림그리기 대회

- 일시 : 2016년 5월 7일(토)
- 인원 : 1,843명(백일장 986명, 그림 857명)
- 시상 : 백일장 67명, 그림 74명 * 특별상 (경기도교육감상) 추가

제17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26회 백일장 및 제12회 그림대회 수상작 수록)

제26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12회 그림그리기 대회

- 일시 : 2017년 5월 13일(토)
- 인원 : 2,096명(백일장 957명, 그림 1,139명)
- 시상 : 백일장 71명, 그림 61명



그림그리기 대회

호국문예 제12회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가작

 특별상

해병대사령관상
공군참모총장상
해군참모총장상
육군참모총장상
한국미술협회장상
경기도교육감상
인천광역시교육감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그림그리기 대회 심사평

심사위원 한국미술협회 남기희 심사위원 한국미술협회 김태군
심사위원 한국미술협회 한상운

초등부

“주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수준 높은 화면 구성, 정확한 색 표현력이 돋보였습니다. 그림 대회를 통해 애국을 느끼게 하는 좋은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충원 그림그리기 대회는 현충원에서 개최한 대회여서 그림 대부분이 애국심을 느껴가면서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많은 학생이 참여한 초등부는 다양한 표현과 참신한 발상으로 그림을 마무리한 학생들이 많아 좋았습니다. 그림에서 주제 표현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완성도가 느껴지는 성실성이 돋보였거나, 그림 전체의 느낌이 맑고 밝은 작품들을 우수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수상작 그림들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만큼 작품성이 높은 것들이 많았고, 상위권 그림은 초등학생인데도 주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수준 높은 화면 구성, 정확한 색 표현력이 돋보였습니다. 그림 대회를 통해 애국을 느끼게 하는 좋은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중학부

“전반적으로 작품성이 높은 훌륭한 대회였으며 현충원의 대회는 작품 제작 과정에서 애국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회인 만큼 많은 학생이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중학부 학생 그림은 초등부보다는 앞으로 미술을 전공할 학생들이어서 그런지 상상작의 수준이 더 높았습니다. 중학부는 초등부에 비해 참가 작품 수가 적었고, 종이 크기가 커서인지 미완성된 작품이 다소 있었습니다. 중학부의 경우 앞으로 미술을 전공할 학생들이라고 전제하고서 작품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진지한가, 작품 표현에 있어 자신의 의도와 맞게 잘 했는가, 미술 재료를 얼마나 잘 다루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집중력 있게 완성했는가 등에 많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작품성이 높은 훌륭한 대회였으며 현충원의 대회는 작품 제작 과정에서 애국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회인 만큼 더욱더 유지·발전되고 많은 학생이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현충원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자

최우수상

초등부	호국의 영령들이여 “꽃잠 주무세요”	조이신	서울은천초등학교 2학년
중학부	희생과 희망	이서현	봉원중학교 1학년

우수상

초등부	경찰총흔탑	정연진	서울남정초등학교 5학년
	감사 술방울 촛불 +	유모경	서울영신초등학교 1학년
중학부	순국선열께 받들어 충!	손민희	세화여자중학교 3학년
	언제나 함께	심혜원	전일중학교 1학년

장려상

초등부	당신을 위한 빈 자리	박채연	서울서빙고초등학교 6학년
	나의 사랑 현충원	김유연	서울신상도초등학교 2학년
	우리나라의 자랑	김주안	서울면동초등학교 4학년
	폼처럼 따뜻한 현충원은 언제나 우리 마음 속에	임소울	서울등마초등학교 3학년
	나의 자랑스런 태극기	위지우	군포 광정초등학교 6학년
	힘이 센 국군아저씨	조은채	서울봉천초등학교 1학년
중학부	과거, 현재, 미래가 어우러진 현충원 잔치 한마당!	김서영	서울신길초등학교 6학년
	전우에게 손녀 자랑	금예슬	서문여자중학교 2학년
	영웅들의 잔상	조은우	동덕여자중학교 1학년

가작

초등부	너무 슬퍼마세요, 늘 함께 있어요	김지우	서울신화초등학교 5학년
	영광의 승천	송교원	김포 풍무초등학교 6학년
	현충문을 예쁘게 꾸며주세요	남윤지	서울은천초등학교 2학년
	현충원 풍경	이서주	청주 만수초등학교 3학년
	들어오는 그날까지...	박소망	김포 풍무초등학교 4학년
	나라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정수민	의정부 효자초등학교 4학년
	현충원을 청소하는 친구들	김유정	서울영분초등학교 4학년
	위대한 비행	곽민지	용인 서원초등학교 5학년
	나라를 지키는 멋진 군인들	정소윤	서울송정초등학교 3학년
	나라를 지켜주세요!	정은찬	서울신길초등학교 2학년
	모두 하나되어 감사해요	윤도현	서울공릉초등학교 3학년
	용감한 군인상	김승원	서울신용산초등학교 1학년
	현충원에서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들을 생각하며	박유하	서울신상도초등학교 2학년
	나라사랑 호국사랑	김민준	서울신미림초등학교 2학년
	호국 영웅묘의 할머니의 눈물	김명진	오산원일초등학교 2학년
	통일 풍선을 단 현충문	유지원	고양 정발초등학교 3학년
	국군아저씨 감사합니다, 고이 잠드세요.	한승주	서울신미림초등학교 3학년

초등부	현충원	박윤아	서울은로초등학교 2학년
	현충원에서의 기도	양유현	서울봉천초등학교 1학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한별	남양주 주곡초등학교 1학년
	천사들의 나라 대한민국	김소정	부천 고강초등학교 1학년
중학부	현충원에서의 경례	박수현	상경중학교 2학년
	빛내리 이 나라	정서운	상경중학교 1학년
	나라를 위한 마음	함소연	오류중학교 1학년
	무제	심민서	번동중학교 2학년

☆ 특별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초등부	용의 용맹함으로 지켜내리라	김민정	서울창경초등학교 5학년
	새들의 합창	송민울	서울신미림초등학교 1학년
중학부	그 날(사진작가의 그 날)	김희원	국사봉중학교 1학년

경기도교육감상

초등부	현충원을 사랑하는 마음	윤진서	서울관악초등학교 4학년
	군인아저씨처럼 나라를 지킬게요	송치윤	용인 나곡초등학교 1학년
중학부	지금의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의 사랑입니다	도나운	용인 나곡중학교 1학년

인천광역시교육감상

초등부	현충문	장예지	인천용현남초등학교 1학년
	행복한 묘역	정민석	서울 상명초등학교 2학년

한국미술협회이사장상

초등부	6·25 기억하자	이수아	광명 칠산초등학교 2학년
중학부	그들이 우리가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	윤소은	공릉중학교 1학년

육군참모총장상

초등부	현충원 하늘에 비친 내 마음	김윤아	남양주 진건초등학교 2학년
중학부	나라를 사랑하는 범의 전사들	윤나희	중원중학교 2학년

해군참모총장상

초등부	현충관 앞 풍경	이윤서	서울금양초등학교 2학년
중학부	살아 숨쉬는 영웅들	조수현	세문중학교 3학년

공군참모총장상

초등부	지켜주셔서 행복해요	한주원	서울중평초등학교 3학년
중학부	무명용사를 기억하며	이가은	목운중학교 3학년

해병대사령관상

초등부	6월을 기다리는 유품전시관	김연후	서울서초초등학교 2학년
중학부	현충정	나하운	세화여자중학교 3학년



최우수상

호국의 영령들이여 “꽃잠 주무세요”



초등부
조 이 신



서울은천초등학교 2학년



경찰총훈탑



초등부
정연진



서울남정초등학교 5학년



감사 솔방울 촛불 +



초등부
유 모 경



서울영신초등학교 1학년



당신을 위한 빈 자리



초등부
박채연



서울서빙고초등학교 6학년



장려상

나의 사랑 현충원



초등부
김유연



서울신상도초등학교 2학년



장려상

우리나라의 자랑



초등부
김주안



서울먼동초등학교 4학년



장려상

품처럼 따뜻한 현충원은 언제나 우리 마음 속에



초등부
임소울



서울등마초등학교 3학년



장려상

나의 자랑스런 태극기



초등부
위 지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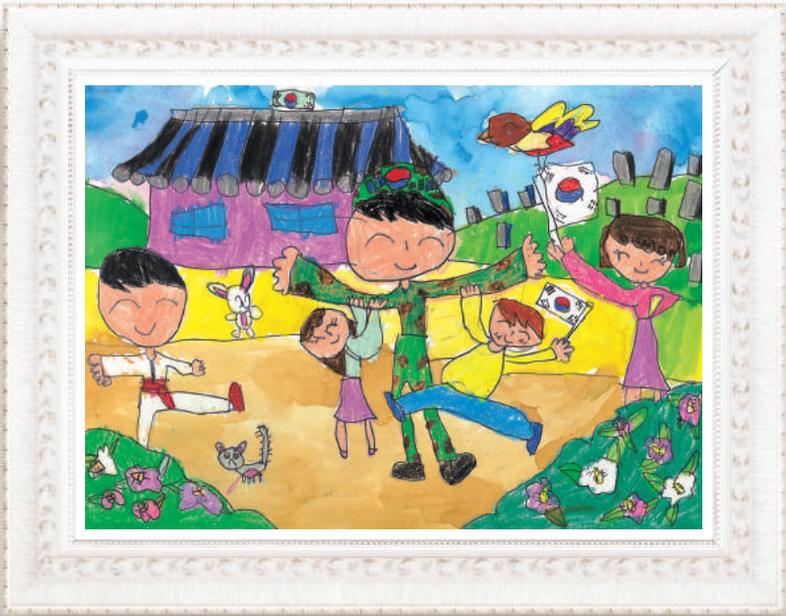


군포 광정초등학교 6학년



장려상

힘이 센 국군아저씨



초등부
조은채



서울봉천초등학교 1학년



장려상

과거, 현재, 미래가 어우러진 현충원 잔치 한마당!



초등부
김서영



서울신길초등학교 6학년



가작

너무 슬퍼마세요, 늘 함께 있어요



초등부
김지우



서울신화초등학교 5학년



가작

영광의 승천



초등부
송 교 원



김포 풍무초등학교 6학년



가작

현충문을 예쁘게 꾸며주어요



초등부
남 윤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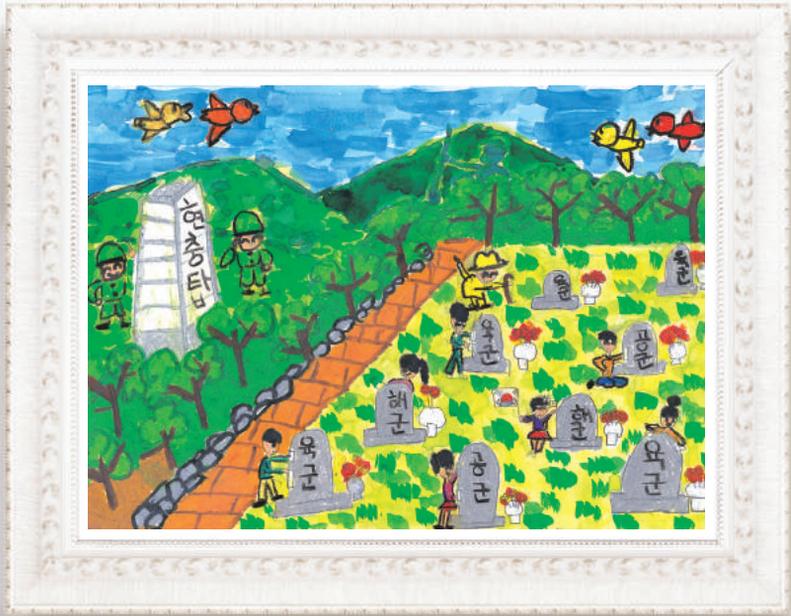


서울은천초등학교 2학년



가작

현충원 풍경



29

초등부
이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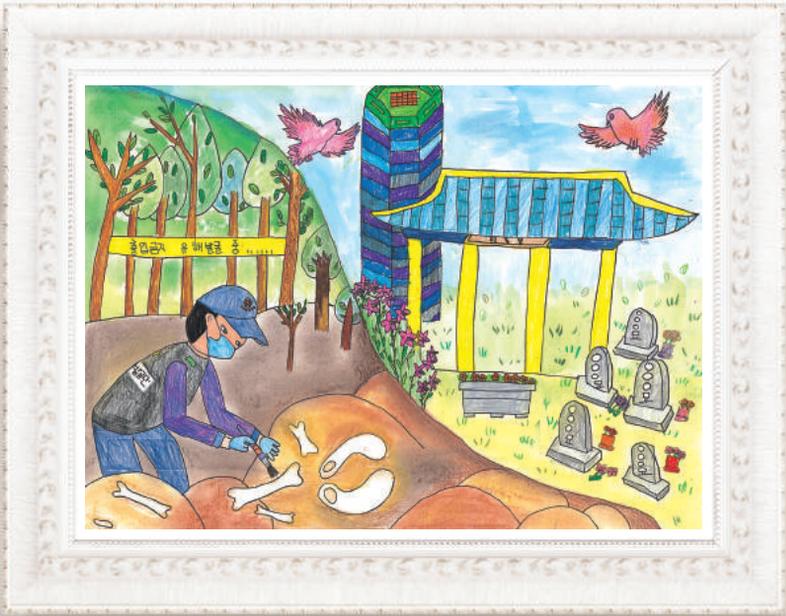


청주 만수초등학교 3학년



가작

돌아오는 그날까지...



30

초등부
박소망



김포 풍무초등학교 4학년



가작

나라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초등부
정수민



의정부 효자초등학교 4학년



가작

현충원을 청소하는 친구들



초등부
김유정



서울영본초등학교 4학년



가작

위대한 비행



초등부
곽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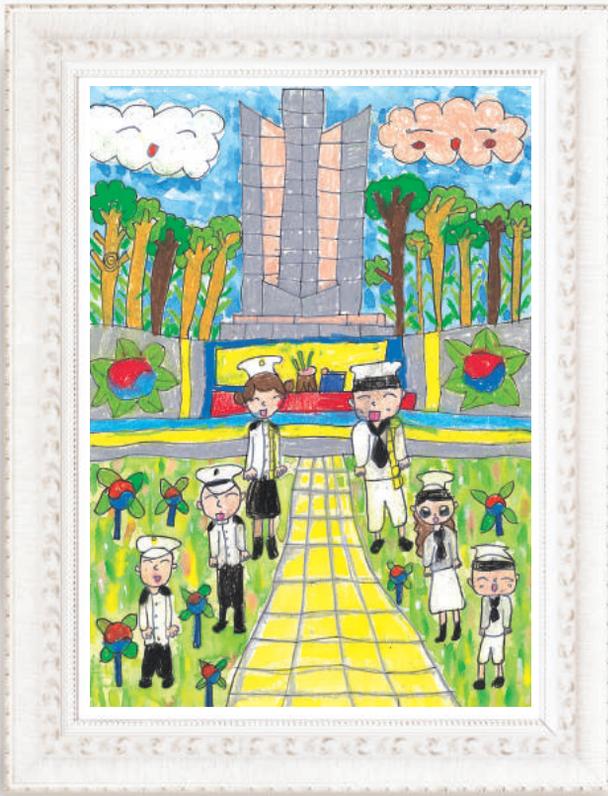


용인 서원초등학교 5학년



가작

나라를 지키는 멋진 군인들



초등부
정소윤



서울송정초등학교 3학년



가작

나라를 지켜주세요!



초등부
정은찬



서울신길초등학교 2학년



가작

모두 하나되어 감사해요



36

초등부
윤도현



서울공릉초등학교 3학년



가작

용감한 군인상



초등부
김 승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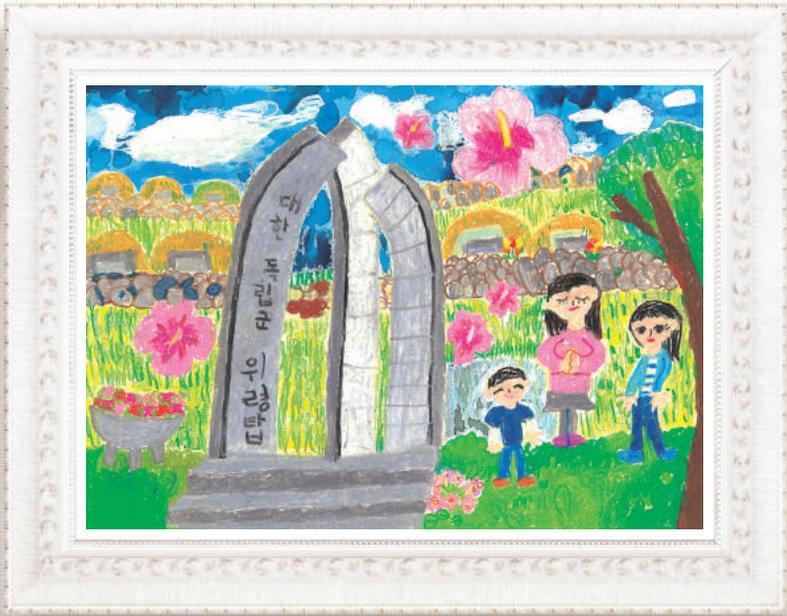


서울신용산초등학교 1학년



가작

현충원에서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들을 생각하며



초등부
박유하



서울신상도초등학교 2학년



가작

나라사랑 호국사랑



초등부
김민준



서울신미림초등학교 2학년



가작

호국 영웅묘의 할머니의 눈물



40

초등부
김 명 진



오산원일초등학교 2학년



가작

통일 풍선을 단 현충문



초등부
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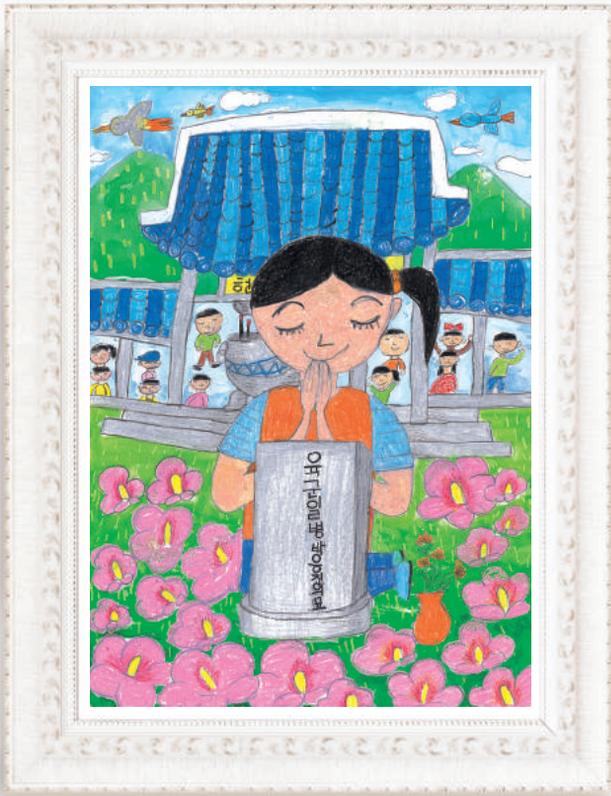


고양 정발초등학교 3학년



가작

국군아저씨 감사합니다, 고이 잠드세요.



초등부
한 승 주



서울신미림초등학교 3학년



가작

현충원



초등부
박윤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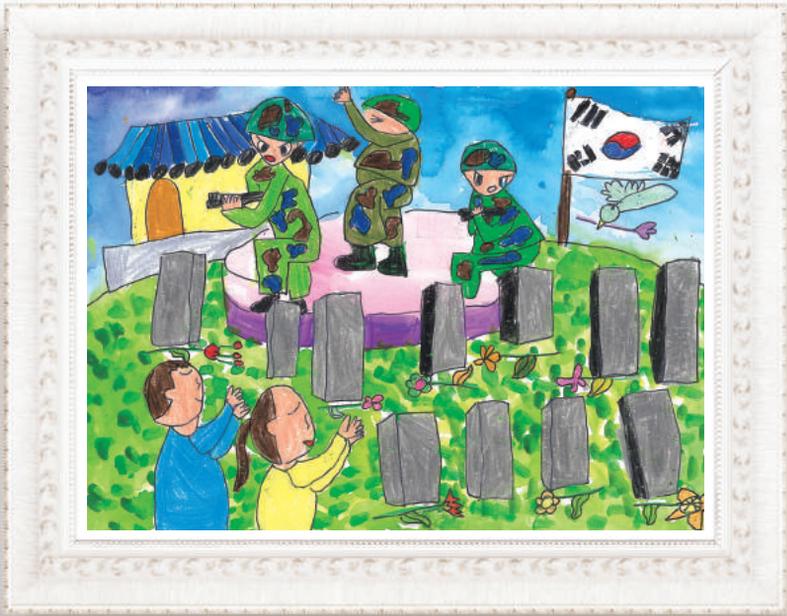


서울은로초등학교 2학년



가작

현충원에서의 기도



초등부
양유현



서울봉천초등학교 1학년



가작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초등부
이 한 별



남양주 주곡초등학교 1학년



가작

천사들의 나라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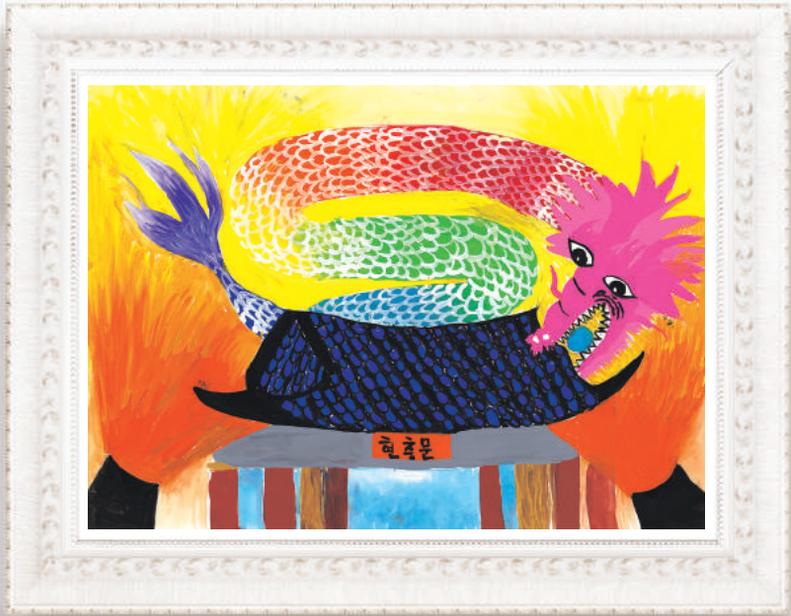
초등부
김소정



부천 고강초등학교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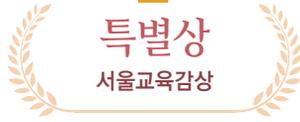
용의 용맹함으로 지켜내리라



초등부
김민정



서울창경초등학교 5학년



특별상
서울교육감상

새들의 합창



초등부
송민울



서울신미림초등학교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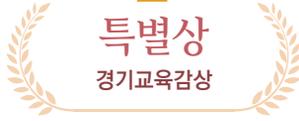
현충원을 사랑하는 마음



초등부
윤진서



서울관악초등학교 4학년



특별상
경기교육감상

군인 아저씨처럼 나라를 지킬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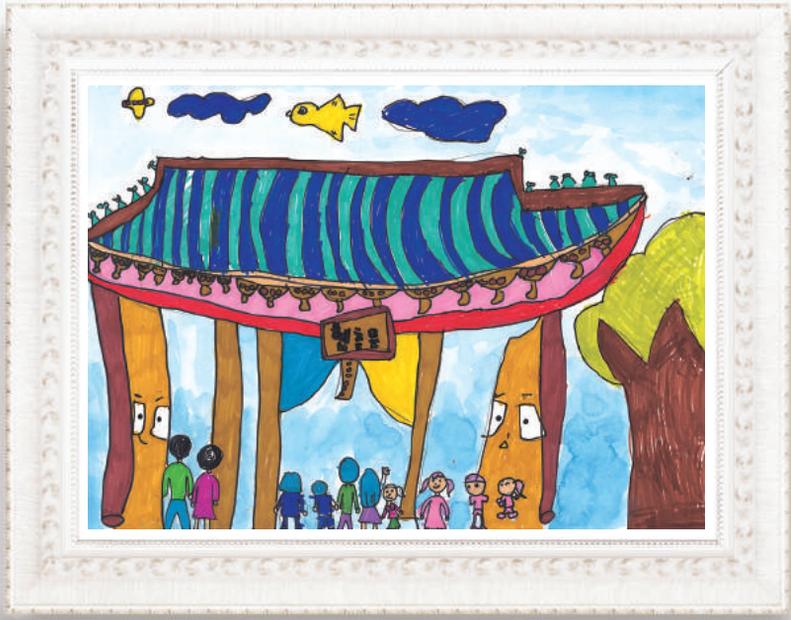
초등부
송치윤



용인 나곡초등학교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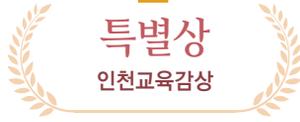
현충문



초등부
장예지



인천용현남초등학교 1학년



특별상
인천교육감상

행복한 모역



초등부
정민석



서울 상명초등학교 2학년



특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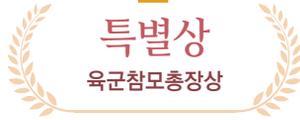
한국미술협회이사장상

6·25 기억하자



초등부
이수아

광명 철산초등학교 2학년



특별상
육군참모총장상

현충원 하늘에 비친 내 마음



초등부
김윤아



남양주 진건초등학교 2학년



현충관 앞 풍경



초등부
이윤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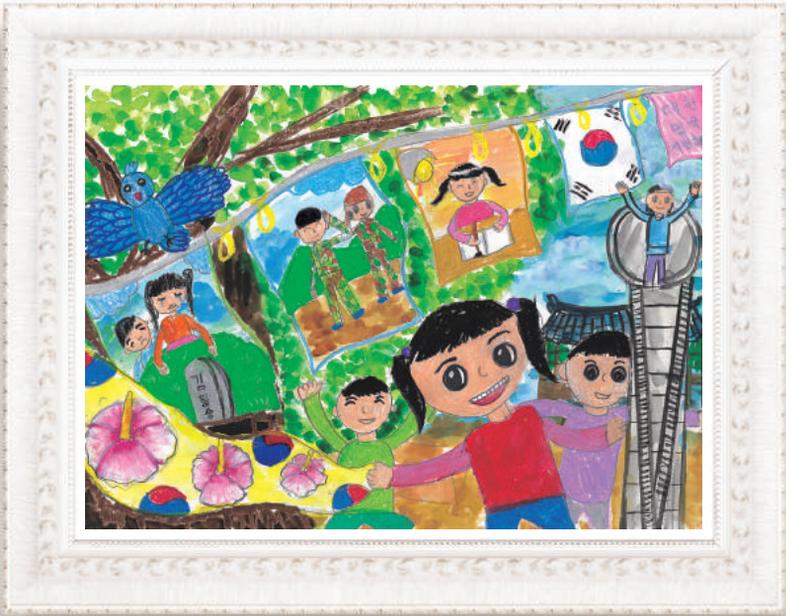


서울금양초등학교 2학년



특별상
공군참모총장상

지켜주셔서 행복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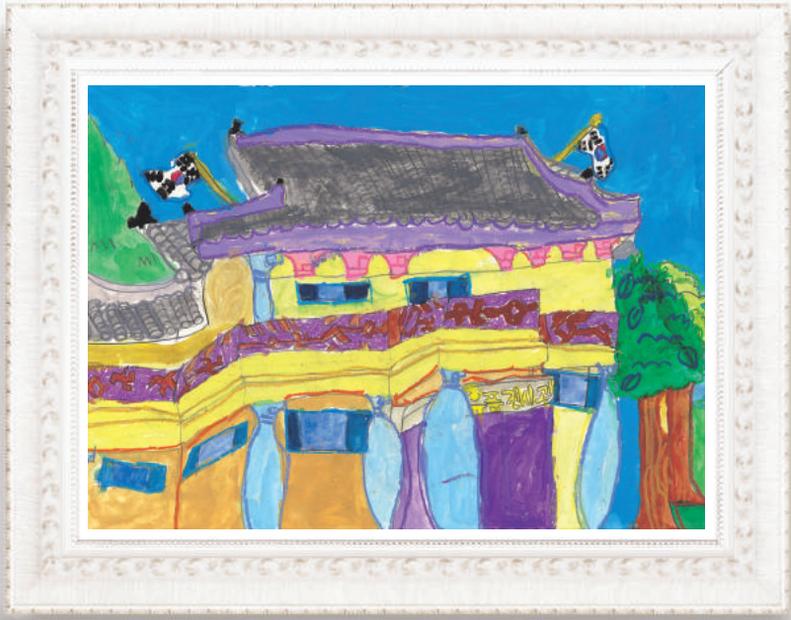
초등부
한 주 원



서울중평초등학교 3학년



6월을 기다리는 유품전시관



초등부
김연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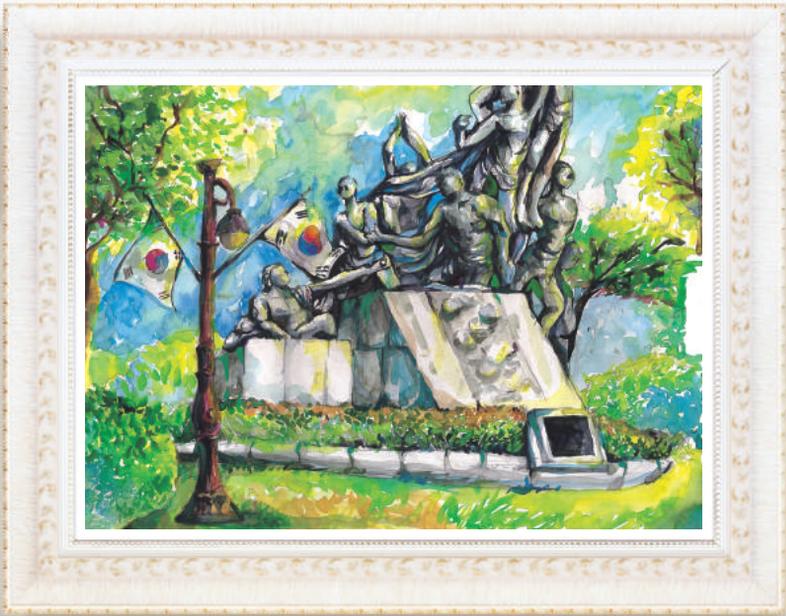


서울서초초등학교 2학년



최우수상

희생과 희망



중학부
이서현



봉원중학교 1학년



순국선열께 받들어 충!



중학부
손민희

세화여자중학교 3학년



언제나 함께



중학부
심혜원



전일중학교 1학년



장려상

전우에게 손녀 사랑



중학부
금 예 슬



서문여자중학교 2학년



장려상

영웅들의 잔상



중학부
조은우



동덕여자중학교 1학년



현충원에서의 경례



중학부
박수현



상경중학교 2학년



가작

빛내리 이 나라



중학부
정서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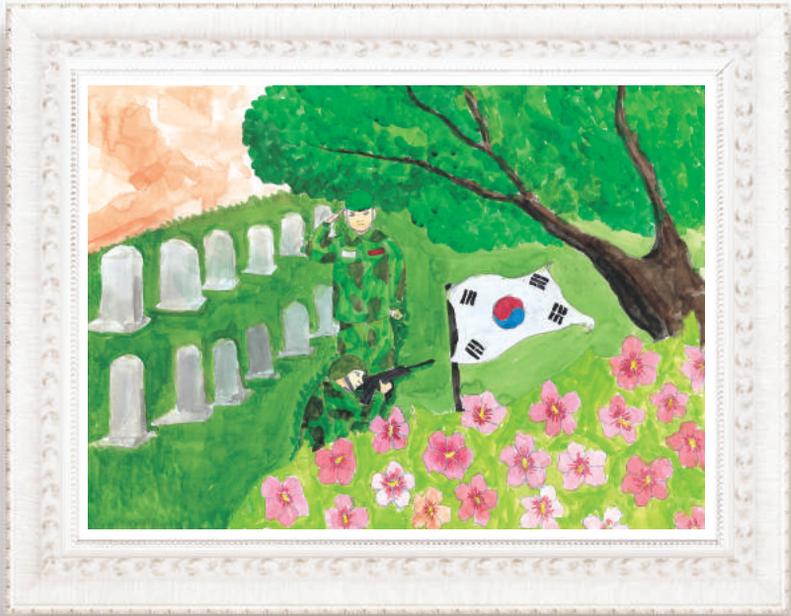


상경중학교 1학년



가작

나라를 위한 마음



중학부
함 소 연



오류중학교 1학년



가작

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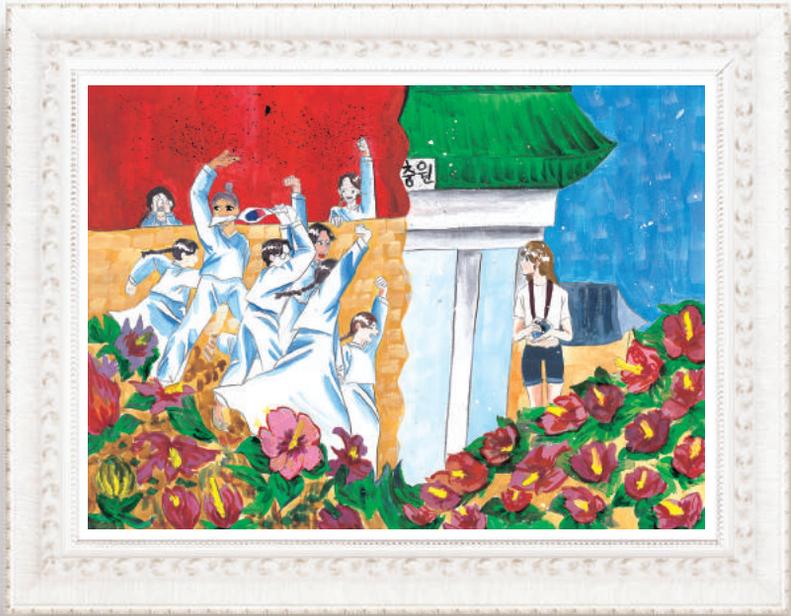
중학부
심민서



번동중학교 2학년



그 날(사진작가의 그 날)



중학부
김희원



국사봉중학교 1학년



지금의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의 사랑입니다



중학부
도나윤



용인 나곡중학교 1학년

☆
특별상
한국미술협회이사장상

그들이 우리가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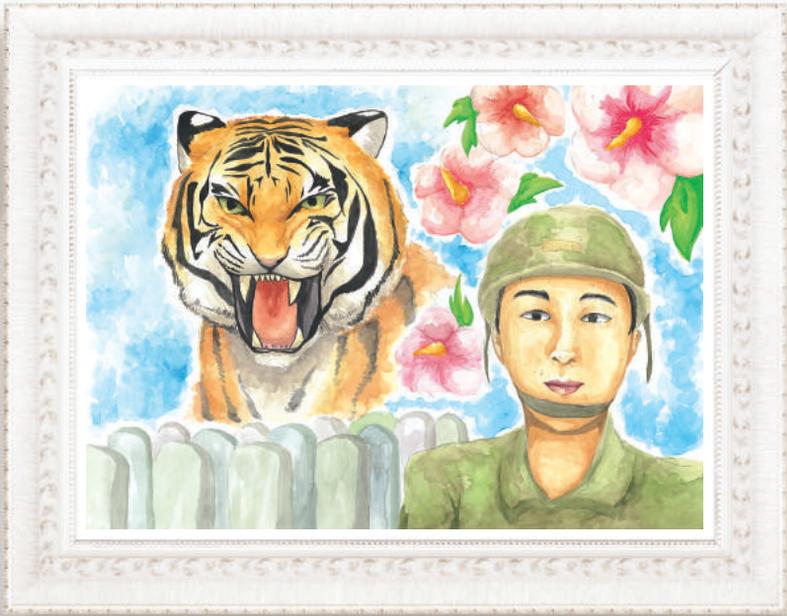
중학부
윤소은



공릉중학교 1학년



나라를 사랑하는 범의 전사들



중학부
윤 나 희



증원중학교 2학년



살아 숨쉬는 영웅들



중학부
조수현



세륜중학교 3학년



특별상
공군참모총장상

무명용사를 기억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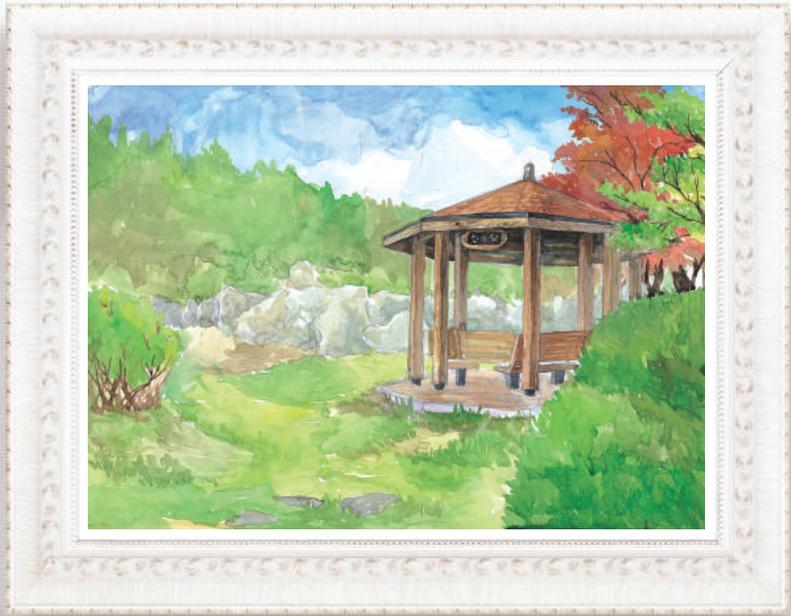
중학부
이가은



목운중학교 3학년



현충정



중학부
나 하윤

세화여자중학교 3학년

호국문예백일장

호국문예 제26회

🏆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 가작

🏆 특별상

인천광역시 교육감상
서울특별시 교육감상

경기도 교육감상

한국미술협회장상

육군참모총장상

해군참모총장상

공군참모총장상

해병대사령관상



호국문예백일장 심사평

심사위원 한국문인협회 이재민 심사위원 한국문인협회 김밝은
심사위원 한국문인협회 김호운 심사위원 한국문인협회 김성달

초등부

“문장을 이끌고 가는 힘과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문장들로 심사위원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최우수상으로 선정한 이재희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완성도 있게 풀어냈습니다. 이태린의 「종이 위 우리나라」, 김예림의 「묻고 싶은 말」, 고다원의 「현충원」, 정하운의 「얼마나 아팠을까」등도 풀어내기 쉽지 않은 소재를 재치 있게 형상화한 점이 좋았습니다.

중학부

“중학부의 경우 운문에서는 개성과 참신성이 돋보이는 작품이 없었다는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이재연의 「현충원에서 느끼는 나라 사랑의 길」은 자신의 체험을 주제에 맞게 잘 표현했습니다. 우수상인 오경주의 「우리 모두 하나 되는 대한민국」과 손민지의 「우리 할아버지」는 현충원에서 느낀 자신의 감정을 조국에로 발전시켜 문장을 전개하는 표현력이 돋보였습니다.

고등부

“전반적으로 국립서울현충원 백일장에 충실한 소재와 주제의 글들이 다수였습니다.”

현충원 방문과 호국 활동에 관한 체험적인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산문은 최우수상과 우수상의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지만, 유품전시관의 묘사가 눈에 보이는 듯 와 닿고, 특히 총알 자국이 남아있는 철모의 묘사가 좋았습니다.

일반부

“‘현충원’이라는 장소가 주는 경건함, 엄숙함 때문인지 참가한 작품 대부분이 주제를 무겁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최우수작으로 선정한 김선희의 「그리운 아버지」는 소재가 독창적이고 신선하였습니다. 우수작으로 선정한 김은미의 「아버지는 절름발이래요!」와 김소연의 「석판에 새겨진 이름」은 자신이 체험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표현하여 감동의 깊이를 더해주었습니다.

현충원 호국문예백일장 수상자

최우수상

초등부	있지 말아야 할 것	이재희	서울용동초등학교 6학년
중학부	현충원에서 느끼는 나라 사랑의 길	이채연	인천계수중학교 3학년
고등부	가로등처럼	함승원	명지고등학교 2학년
일반부	나에게 현충원이란?, '그리운 아버지'	김선희	서울특별시 관악구

우수상

초등부	종이 위 우리나라 작지만 큰 사람들	이태린 조예원	서울가동초등학교 3학년 서울신상도초등학교 4학년
중학부	우리 모두 하나되는 대한민국 우리 할아버지	오경주 소민지	안양 대안여자중학교 1학년 정화여자중학교 2학년
고등부	그날, 그날이 오면 현충원으로의 꿈을 향한 반성	이하영 노진영	고양 지동고등학교 3학년 인천포스코고등학교 3학년
일반부	아버지는 절름발이래요! 석판에 새겨진 이름	김은미 김소연	경기도 고양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려상

초등부	행복과 쓸쓸함의 공존 현충원 할아버지가 지킨 우리나라	장서은 조은솔 이수아	인천용현남초등학교 4학년 남양주 오남초등학교 4학년 광명 칠산초등학교 2학년
중학부	수감번호 371번	최다은	신도중학교 3학년
고등부	현충원 오월의 향기 현충원! 나의 초록 쉼터	원유정 임광숙 이승진	충주여자고등학교 2학년 일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압구정고등학교 2학년
일반부	당신께 보내는 연서(戀書) 근본을 기억하며, 다시 새롭게 아저씨! 또다시 봄이 왔어요 아버지 계신 곳 복들이는 웃는다	윤다혜 허성일 김수진 김현숙 정분임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佳作

초등부	순국선열들을 생각하며 역사 책을 많이 읽을게요 현충원! 나와 나의 나라를 있게 한 곳 호국의 꽃 현충원의 자연과 묘역	손채원 김윤지 이시문 이재민 박소희	고양백석초등학교 6학년 서울방배초등학교 3학년 신광초등학교 4학년 금성초등학교 5학년 서울가동초등학교 3학년
중학부	기리고, 감사하고, 존경하고 호국영령들에 대한 나의 마음	김은오 이채민	서울반포초등학교 6학년 인천계수중학교 1학년
고등부	지금의 나를 있게 해주신 분들께 귀향 강재구 소령처럼 소리없는 눈물 모든 것이 시작이다	임현빈 권예린 김윤주 김도현 윤정연	휘경중학교 2학년 하남 신장고등학교 2학년 영등포여자고등학교 2학년 경문고등학교 3학년 파주 한민고등학교 1학년

일반부	군복은 수의다 이팝나무 나라 지켜줘서 고마워! 나의 반성문 현충원으로 가는 길 나에게 현충원이란? 나는 군인을 사랑한다	서영석 이시현 유선우 김효주 서가정 양태경 이경선	인천광역시 옹진군 광주광역시 북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기도 양평군
-----	--	---	--



특별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초등부	호국영령에 대한 예우 현충원	김세현 고다원	서울영본초등학교 4학년 서울봉천초등학교 3학년
중학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 현충원	송서연	송의여자중학교 3학년

경기도교육감상

초등부	묻고 싶은 말	김예림	김포 걸포초등학교 5학년
중학부	나에게 현충원이란?	김영진	부산 단선중학교 1학년
고등부	아름다운 용기가 잠든 곳, 국립서울현충원	김채연	명덕여자고등학교 1학년

인천광역시교육감상

초등부	대한민국 만세, 어린이 만세!	조지훈	서울대모초등학교 1학년
중학부	현충원의 하늘을 기억한다	김예은	용마중학교 3학년
고등부	현충원에 바치는 밤편지	이지희	선일여자고등학교 3학년

한국문인협회이사장상

초등부	비밀의 낙원	문정원	서울혹석초등학교 2학년
중학부	영원한 호국정신	김서준	원촌중학교 1학년
고등부	부치지 못한 편지	정유나	고양예술고등학교 2학년
일반부	아들	홍성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육군참모총장상

초등부	얼마나 아팠을까	정하윤	서울정릉초등학교 2학년
중학부	현충원을 찾아서	박종혁	송래중학교 2학년
고등부	지워지지 않는 흔적	류주연	고양 저동고등학교 3학년

해군참모총장상

초등부	나에게 현충원이란? 할아버지, 어디 계신가요...	박소연	서울내발산초등학교 6학년
중학부	순국선열에 대한 보답은 국가안보에 대한 투철한 생각을 가지는 것으로 시작된다	서지현	인천 신흥여자중학교 3학년
고등부	영원한 만남	김동현	우신고등학교 3학년

공군참모총장상

초등부	감사한 마음을 담아	김시윤	서울송덕초등학교 4학년
중학부	고목이 남긴 티	김지훈	반포중학교 3학년
고등부	고귀한 순국	양희선	일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해병대사령관상

초등부	나에게 현충원이란	이서은	서울신은초등학교 5학년
중학부	현충원 비석	나형주	서일중학교 1학년
고등부	잊지 않겠습니다	김주은	진명여자고등학교 2학년



최우수상

잊지 말아야 할 것



초등부 | 이재희 서울용동초등학교 6학년

“이 일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나라를 지키는 사명감으로 하는 것 같아.”

학교에서 직업인 인터뷰를 숙제로 내주었을 때 나는 망설임 없이 고모부를 선택했다.

고모부는 비무장지대인 DMZ를 지키는 군인이다. 내 눈에는 고모부가 늙고 멋있는 군인으로 보였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고모부를 선택했다.

나의 꿈은 군인이다. 내가 군인이 되고 싶은 이유는 어릴 적부터 총을 좋아하였고, 작전 전술도 잘 짜고, 군인이라 직업이 멋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대위가 되어 국제평화유지군의 한국군 총사령관이 되고 싶다. 우리 집은 노원이다. 노원에서 육군사관학교는 가깝다. 처음 내가 가족들과 육군사관학교를 갔을 때의 감동은 잊지 못한다. 건물들이 굉장히 웅장하였고, 학생들 모두 늙고 멋있었다. 육사 학생 선생님께서 군인의 종류에 관해 설명해주셨을 때는 처음엔 압호해독병과 군인정보원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뛰어다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육군 대위로 꿈을 바꾸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 개인이 아닌 나라를 위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전쟁기념관에 가본 적이 있는가? 입구에는 한국전쟁 당시에 전사하신 분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때문이다.

현충원에 와 본 적이 있는가? 현충원에 오면 아마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이 묻혀 있어서 놀랄 것이다. 나도 처음에는 현충원에 왔을 때 너무 많은 사람이 묻혀 있어서 놀랐다.

그리고 여기에는 무명용사들도 계신다. 무명용사란 전사를 했는데 이름을 모르는 분이다. 비록 이름을 몰라도 우리는 그분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분도 계신다. 산에 있는 분도 계시고, 바닷속에 계신 분도 있다. 나는 그분들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고, 국립묘지에 묻혔으면 좋겠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았다. 전쟁에 참여한 형제가 군인이 되어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내용이다. 그 영화에서 형은 아픈 동생을 제대시키려고 무공훈장을 타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적과 싸운다. 총알 속을 뚫고 적의 기지에 침투도 하였으며 자진하여 지뢰를 묻기도 하였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지뢰를 묻고, 총알 속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켰고, 끝까지 적과 싸웠다. 나는 그분들의 나라 사랑 정신과 용기가 존경스럽고 감사하였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 중에는 현충원에 계신 분들도 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 이름으로 묻힌 분도 있고, 이름 없이 묻힌 분도 있다.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조국의 산하에 묻힌 분도 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들이 계셨다는 사실이다. 그분들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고, 친구들과 웃으며 즐겁게 놀 수도 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은 그분들이 그토록 원했을 내일이다. 그분들의 내일을 사는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따뜻한 봄날을 느끼는 것처럼 그분들을 잊지 않는 게 우리가 주는 따뜻한 봄날이 아닌가 싶다.





최우수상

현충원에서 느끼는 나라 사랑의 길



중학부 | 이채연 인천계수중학교 3학년

올해 16살인 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은 중3이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나의 하루하루는 즐겁다. 그러나 오늘 현충원에 와서 보니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은 이곳 현충원에 잠들어 계신 분들이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또다시 깨달았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지금의 푸르고 아름다운 우리 영토를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덕분이구나.’하고 말이다. 많은 사람은 자신들이 누리는 것들이 당연한 것인 양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간다. 6·25전쟁이 끝이 나고 휴전이 된 지 어언 64년이 되었다. 그렇다고 북한과 우리나라의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며 대한민국이 세계 여러 나라에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빛의 속도의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열심히 살아오신 덕분도 있지만 그 전에 앞서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 싸우신 수많은 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나는 생각한다. 만약 나라에 큰일이 생긴다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행동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솔직히 나도 나라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 대가가 나의 목숨이라고 한다면 나 또한 과연 행동을 옮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의 선택은 매우 어려운,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오천만 명의 존경과 감사를 받아 마땅한 그 무엇보다도 더 용기 있고 아름다울 수 밖에 없는 선택이었다. 앞으로 많이 남은 자신의 미래를 버리고, 대신 나라에 따스한 햇볕과 밝은 희망을 다시 돌려 놓아주신 수많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분들께 오늘 난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감사함을 표현하려고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수많은 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감사한 마음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선택을 하시면서까지 지켜주신 대한민국, 이제는 제가 미래의 희망이 되

어 지켜내겠습니다. 그 선택이 후회되지 않으시도록 우리 후손들이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나는 다짐했다. 광복절, 제헌절 등 국경일에는 꼭 태극기를 게양하겠노라고 말이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제일 우선적인 첫 번째 의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실천하지 않는 것 중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모두 하루 24시간 중 10분만 투자하려는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두 번째는 우리 말, 우리글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나와 같은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다. 우리 말, 우리글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라 사랑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강하게 하는 일이다. 대한민국 사람에게 있어서 제1순위 언어, 글은 우리 말, 한글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 대한 높은 자랑스러움을 가지도록 노력하기이다. 자신의 나라에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이 높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달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이 낮다. TV 뉴스 속 미국, 중국 등의 강대국들은 정말 힘이 강한데 우리나라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무언가를 했다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약간의 놀라움과 부러움이 섞여 있다. 우리나라가 똑같이 무언가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 사람들의 반응은 차갑다. 우리나라가 그렇지 뭐... 이런 느낌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태도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길러야 한다.

네 번째로는 올바른 투표이다. 나도 5년 뒤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른이 된다.

이번 일로도 느낄 수 있지만 올바른 투표권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길이다. 그렇기에 나의 한 표는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하나의 화살과 같다. 지금의 마음을 21살이 되는 5년 뒤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여 투표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최우수상

가로등처럼



고등부 | 함승원 명지고등학교 2학년



평화롭다. 새소리, 바람 소리, 나뭇잎들이 서로 부대끼는 소리, 여러 형태의 가족들의 수다 소리.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이 현충원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평화로움과 한가로움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희생하신 분들이 안장된 곳이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한가로움은 과거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나는 이래도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계속 안쪽으로 파고들어 왔다.

평소와 달리 주제를 듣고도 어떤 방향으로 글을 전개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아서 개회식 건물 근처에 있던 '유품전시관'이라는 건물을 들어가 보았다. 전시관의 입구에 들어가자 복원해놓은 과거의 피 묻은 태극기가 보였다. 전시된 물품 대부분이 태극기라고 해도 될 정도로 태극기가 많이 보였다. 한 독립투사가 전투를 나갈 때면 항상 지니고 다녔다는 태극기도 있었는데, 이 빛바랜 태극기가 힘들었던 과거를, 지금은 흐려진 과거를 나타내는 것 같아 발걸음이 멈추어졌다. 전시관에는 태극기 말고도 옛 물건들이나, 장교들의 훈장, 개인 물품, 의복 등이 있었는데 전시관 벽면을 가득 메운 군복을 보며 든든한 체격의 소유자였을 그들을 상상해보기도 했다.

전시관 내부의 상영관을 들어가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 내레이션은

‘그는 자상한 아버지였으며, 든든한 남편이자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지금이 전쟁 중이었다면 ‘엄마의 말뚝’ 속 주인공처럼 오빠를 잃고 가족이 비극을 맞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니 평화로운 지금이 너무나 좋고, 이렇게 만들어 준 현충원 속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전시관 2층에는 유품 전시실이 있었는데 방의 중앙에는 얼핏 봐도 20여 개 이상의 총알 자국이 남아있는 철모가 있었다. 전시실의 사진과 그림 속에 저 모자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상상을 해보니 소름이 끼쳤다. 현재도 흑백이 되어 있는 느낌이었다. 그 철모를 자세히 보니 녹이 슬어 마치 곰팡이가 퍼진 듯이 세월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겨져 있었다. 그런데도 발견된 시간이 멈춰져 있는 듯이 생생해서 내가 직접 흙에서 방금 파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국립현충원, 국가나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이 안장된 묘지라는 뜻이라고 한다. ‘영령’이라는 말은 죽은 사람 영혼의 높임말이다. 대통령들이 매번 이곳에 방문하는 이유는 지금의 한국을 만드는 것에 큰 공을 세운 이들이 있기 때문인 걸까?

얼마 전, 총·효·예에 관련된 주제로 글짓기를 한 적이 있는데, 원고지의 뒷면 하단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있었다. ‘총은 국가안보이고, 효는 화합과 통일이고, 예는 상식에 기반을 둔 기초질서입니다.’라는 문구였는데 국가안보라는 말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에 불꽃을 지폈던 사건이 생각났다.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의 주제에도 나라 사랑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있었는데, 저번 글짓기와와 공통점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다시 한번 방향을 바꾸어 글을 적어본다.

과거의 투사들은 무기를 들고 적과 싸웠지만, 현대의 사람들은 민주주의적, 평화주의적으로 투쟁을 벌였다. 우리 조상들은 자신들이 만들고, 만들어 갈 평화로움이 계속 지속하기를 원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건은 벌어졌고, 과거 그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행했듯이 우리도 지금의 방식대로 다 같이 들고 일어섰다. 이런 것이 ‘나라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나라 사랑이 아니라 단순히 배신감이나 분노라고 칭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는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고 후세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려고 다 같이 모여 한마음을 만든 이런 일이, 현대의 평화에 어울리

최우수상 / 고등부

는 ‘나라 사랑’ 투쟁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후에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면 옛 과거의 그들처럼, 현재의 우리처럼, 미래의 투사들이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교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있다. ‘신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의지이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우리의 크고 작은 실패들이 높고 견고한 계단처럼 쌓여서 다음에는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현충원의 무궁화가 새겨진, 울곧고 높게 하늘로 뻗어있는 가로등처럼, 우리나라도 기세 좋게 높이, 곧게, 울곧게 올라가서 길을 밝게 비춰주는 현충원의 가로등 같은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최우수상

나에게 현충원이란?, ‘그리운 아버지’



일반부 | 김선희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을 군인으로 이순신 장군과 안중근 의사를 가장 존경하며 육군 중령으로 예편한 김군혁, 자랑스러운 나의 아버지다. 초등학교 2학년 추석에 아버지와 같이 봤던 영화 ‘성웅 이순신’은 아직도 내 머릿속을 흔들고 있다.

난중일기를 늘 가까이 두고 읽었던 아버지 덕분에 어린 나이에 뜻도 모른 채 나도 난중 일기를 읽게 되었고, 손가락 한 마디가 잘린 손바닥 도장이 찍혀있는 안중근 의사의 손도 장 액자를 보며 자란 나에게 애국은 안개처럼 스며들었다.

내가 가장 존경하고 좋아했던 푸른 군복을 입은 아버지의 모습에서 나는 늘 푸르른 소나무, 항상 그 자리에 변치 않는 모습으로 서 있는 거목 소나무를 보고 있었다.

그런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1980년에 예편하셨으니 예편 후 19년째 되는 1999년 10월에 쓰러지셨다. 거목이 쓰러지신 것이다. 결혼해서 강원도에 살고 있던 나는 앞뒤 썰 것 없이 큰 아이 손을 잡고, 둘째 아이는 포대기로 싸서 업고, 뱃속에 6개월 된 셋째 아이를 품은 채 서울로 올라왔다.

아버지는 일 년 여간 병원 생활을 마치고 몸 반쪽을 신경이 마비된 채로 집에 누워있는 몸이 되어 버렸다. 엄마와 나는 아버지를 위해 지극 정성으로 병시중을 들었다. 아버지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 애쓴 것보단 못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아버지는 소나무 같은 강인함으로, 평생을 살았던 군인정신으로, 누워만 있어야 하는 절망감을 곧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으로, 온 집안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었다.

우리 집 벽에는 그 예전 중대장이었을 때 연병장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탱크들을 진두 지휘하던 작은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다. 희뿌연 먼지 틈에서도 지휘관의 위엄으로 서 있는 아버지의 사진, 그 멋진 모습의 아버지가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절망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병마와 싸우는 14년 동안 보여 주었다.

나는 아버지의 몸을 닦아드리고 힘없는 팔, 다리를 주물러 드리곤 했는데 유난히 아버지의 다리가 종아리 중간 밑 부분까지 가느다란 것을 알게 되었다. 체격이 큰 아버지가 수척해지긴 했어도 특이하게 가는 것이 이상하여 아버지께 물었더니 군화를 오랫동안 신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 했다. 어렸을 때 반짝반짝 광내며 닦았던 그 군화가, 닦을 때마다 동전을 쥐여줬던 그 군화로 인해 다리가 가늘어졌다니..... 나는 그 후로 아버지를 닦아 드릴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짐짓 아버지가 눈치 못 채게 명랑한 척하였다.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가늘어진 아버지의 다리. 소나무의 푸르름 뒤에는 아버지의 가늘어진 다리가 있었다. 지금도 그 다리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2012년 아버지는 14년 동안 누워있던 방에서 훨훨 날아 현충원에 드넓은 사계절을 뚜렷이 볼 수 있는 곳에 묻히셨다. 나라를 위해 같이 고군분투하던 동료들, 선배들, 후배들과 함께, 고생했던 옛 시절들을 도란도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장엄한 예식. 경건함 그 자체. 거룩하기까지 했던 영결 예식을 통해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었는지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다. 그 숭고함으로 승화되어, 그토록 묻히기를 소원한 현충원에, 가문의 영광이 된 현충원에 영면하여 푸른 하늘을 온 몸으로 이고 계신다.

현충원...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 그리운 곳. 이제 나에게는 현충원이 곧 아버지가 되었다. 우리

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 가늘어진, 또 다른 다리로 영면해 계신 곳이라 생각하니 묘비명 하나하나 깊은 사랑이 느껴진다.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찾아오는 현충원은 그리움이고, 사랑이고, 내가 못했던 효도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살아서는 이 땅과 하늘과 바다를 위해 온몸을 불살랐던 애국의 힘은, 이제는 애국의 바람이 되어 대한민국을 지키며 감싸 안는 넋들이 편히 쉬어 계신 이곳 현충원에서 온통 초록으로 물든 눈부신 계절 5월에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아버지와 같은 영령들도 그리워해 본다.

이 땅의 평화로움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현충원. 아버지를 통해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현충원의 넋들에 ‘아버지 꽃’이라 마음속으로 이름을 붙여본다.

영원히 지지 않는 강인한 꽃.





우수상

종이 위 우리나라



초등부 | 이태린 서울가동초등학교 3학년

누가 우리나라 위에
낙서했나요?

싸우던 거 그만두고
우리 서로 통일해요!

누가 우리나라를
반으로 갈라지게 했나요?

가위로 잘랐던 종이를
테이프로 붙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우개로
선을 지워줘요.

우리나라도 붙일 수 있어요.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를 붙여요!

우리가 테이프로
우리나라를 붙여줘요.





우수상

작지만 큰 사람들

초등부 | 조예원 서울신상도초등학교 4학년



작년 6월 3일, 현충일을 얼마 앞둔 날이었다. 선생님께서 6·25전쟁 당시 영상과 현충원의 사진을 보여주셨다. 날아드는 총알과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들……, 그때 당시의 모습은 무척 참혹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잔인한 것이라 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웠다.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가족을 잃고 친구마저 잃고 말았다. 나라를 지키려다 참혹히 떠나가신 분들의 가족은 또 얼마나 억울하고 슬플까?

나라를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마저 아끼지 않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으셨던 걸까, 지금의 우리가 누군가의 감시와 위협을 받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그분들의 희생이 빚어낸 결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고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라고 하면 나라의 큰 역사적 사건만 떠올린다. 나 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당시 상황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다. 하지만 강릉에선 며칠째 큰 산불이 나고 있었다. 사람들이 흥에 빠진 동안 경찰과 소방관, 군인분들은 피와 땀을 흘리며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중 헬기 정비사 한 분은 끝까지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내고 계시다가 희생되셨다. 그분은 자신의 목숨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목숨 하나하나가 더 소중하다고 여기셨던 걸까?

우리 주변에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대단한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새벽부터 거리를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이나 좁은 골목에 건물이 무너지는 화재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 이웃의 작은 불편함도 해결해 주시는 경찰관들, 그렇게 남이 알게 모르게 자기 일을 꾸준히 하시면서도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빛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현충원의 저 많은 묘비는 모두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사람들의 뜻을 추모하는 곳이다. 비록 매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못다 이룬 꿈은 우리 후손들이 이루어 줄 것이다.

오늘 현충원을 처음 왔는데 울타리 밖에서는 잘 느끼지 못했던 감사와 존경이 더욱 크게 와닿았다. 여기 묻히신 분들께 꼭 해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못다 이루신 꿈은 제가 이루어 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게요! 이제 편히 쉬세요!”





우수상

우리 모두 하나되는 대한민국

중학부 | 오경주 안양 대안여자중학교 1학년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옛날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온 나는 어느새 문학 작가를 꿈꾸는 14살 사춘기 소녀가 되었다.

작년부터 일어났던 많은 사건, 이를테면 대통령의 탄핵,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등 매일 보도되는 사건들은 황사와 미세먼지로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뿌연 하늘처럼 우리의 미래도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스러운 날들을 보냈을 것이다.

올해 여든이 되신 1938년생 호랑이띠인 할머니께서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셔서 광복을 맞이하셨고 또다시 6·25 한국전쟁을 겪으시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룩한 주역이자 역사의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런 할머니의 입에서 요즈음 “내가 너무 오래 산 것 같다.”는 말씀이 자주 나온다. 할머니의 옛날이야기의 단골 메뉴이기도 한 6·25 한국전쟁 이야기는 그 당시 13살이셨던 할머니께서는 5명의 동생과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 꼭대기에 매달려 피난을 가셨다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그곳에서 펼쳐지는 할머니의 인생역정 이야기는 그렇게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시절에도 한국 사람들은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이야기처럼 서로 돕고 살았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된다.

그 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하였고 거기에 부의 양극화 그리고 좌파니 우파니 하는 정치적 색깔론까지 등장하면서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북으로 나뉜 나라라는 오명을 갖고 있으면서 또 다른 분열이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한민족 한 핏줄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단일민족임을 외쳤던 우리는 어디로 간 것일까?

이 해답을 찾기 위해 5월의 황금연휴를 맞아 우리 가족은 백두산으로 떠났다. 중국의 장춘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백두산까지 가는 길고도 길었던 여정은 우리나라의 역사만큼이나 길었다. 그렇게 이틀 만에 드디어 백두산에 도착할 수 있었다. TV에서 애국가가 흘러나올 때나 보았던 꿈에 그리던 백두산 천지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난생처음 보는 백두산 천지의 장관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사인을 받았을 때보다 백배 천배만큼이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다. 마치 독립운동가가 된 것처럼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14살 아직은 어린 나이지만 한국인임을 온몸으로 느껴본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백두산에서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던 ‘용정’에서 우리 가족을 안내했던 조선족 가이드에게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들으며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의 희생이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5월 13일 호국영령과 순국선열께 인사도 드리고 호국백일장에 참여하기 위해 가족 모두가 이 자리에 왔다. 6·25 참전용사이기도 하셨던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찾아오곤 했던 친숙한 장소이지만 오늘은 왠지 느낌이 달랐다. 그분들의 따뜻한 정기를 받아서인지 마음도 편안해진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을 대표하여 이곳 현충원에 잠들어계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들께 우리가 만들어나갈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상을 말씀드리고 다짐하려고 한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의 대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약속한 새로운 리더도 우리 손으로 뽑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모두 뚝뚝 뚝쳐 힘을 기르고 우리의 의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나 한국의 사드 배치에 보복하는 중국에 말 한마디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은 더 보이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우방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압박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당당해지겠습니다.

그리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떠드는 아직도 자신들의 과거를 변명만 하는 일본에도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서로를 비방하고 싸울 시간은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서로의 의견과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비가 온 뒤에 파란 하늘을 수놓는 일곱 빛깔 무지개의 아름다운 조화를 마음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의 있는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나의 다짐을 글로 표현을 하니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마음이 후련해진다.

이곳에 계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서도 내 마음에 화답해주시는 듯 바람으로 내 어깨를 두드려주시며 격려해 주신다

우리가 모두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화이팅!





우수상

우리 할아버지



중학부 | 소민지 정화여자중학교 2학년

육군 소위셨던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DMZ에서 군 복무 중 다치셨습니다. 한쪽 다리
의 1/3을 잃으셨고 양쪽 눈은 실명하셨습니다. 할머니와 잘 살고 계시지만 요즘 들어 계
속 아프셔서 걱정입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현충원은 오늘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주 오게 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현충원에 계실 테니까요. 가끔은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날
복무만 안 하셨다면, 북한군과 마주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쯤 저의 이쁜 모습을 보고 함
께 산책도 하며 즐거웠을 텐데요.

오늘 현충원에 와서는 화가 나기보다 감사함과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큰 부상으로 돌
아가실 수 있었기 때문에 살아서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글을 쓰면
서 주위를 둘러보면 호국선열 분들의 묘가 보입니다. 훗날 우리 할아버지께서 잠드실 곳
이 현충원이라니 슬프지만 자랑스럽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글을 다 쓰고 나면 꼭 할아버지와 현충원을 올 겁니다. 지금 이 기분을 잊지 않고 호국
선열 분들에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행복한 미래를 주셨습니다. 제
가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과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도 모두 그분
들의 희생 덕분입니다.

저에게는 꿈과 희망이 생겼고 오늘부터 그분들에게 감사함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며
할아버지와 행복하게 지낼 겁니다.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
니다.

그래서 이곳 현충원에 늦게 늦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수상

그날, 그날이 오면



고등부 | 이하영 고양 저동고등학교 3학년

학교를 몰래 빠지고 도착한 현충원
 길목마다 돌아난 들풀을 향해
 구름의 주름진 눈매가 돌아났다
 이끼 흐드러진 돌 옆에선
 아이 하나가 엄마 겨드랑이 속으로
 잠기운 가득한 손을 내밀었다

멀리 보이는 묘비마다
 아직 더 뿔 수 있노라
 메아리가 맺혀 있었던 현충원

내 생이 다 닳아 없어져도
 그날이 온다면 기꺼이
 머리를 깨뜨리겠노라
 가지 부러져도
 여전히 새파란 소나무는
 어느 젊은 시인의 들끓는 눈빛처럼
 무성한데

민들레 가까이 대었던
 입술 삐죽대면서도

영망이 된 바지춤을 털지도 않고
 아이들은 애국가를 불렀다

다시 순한 바람이 불고
 현충원 냇은 돌담길마다
 산새 소리가 쌓인다
 엄마 손 붙잡다가 칭얼거리다가
 더 깊은 잠이 든 아가들 볼에도
 노을이 내리고

그날은 왔는가,
 그날은 왔는가,
 그날은 왔는가

나는 만세를 하듯 자리에서 기지개를 켜고
 더운 피를 삼키며 외치던 사내들에게도
 부드러운 밤이 내려오고 있었다





우수상

현충원으로의 꿈을 향한 반성



고등부 | 노진영 인천포스스코고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아무것도 못 하고 고개를 뺏뺏이 들고 서 있던 내가 수년의 시간이 지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어릴 적 나는 눈에 보이는 모든 달력에 나의 생일을 적어놓는 것을 좋아했다. 그렇게 나의 생일을 표시했던 언젠가의 달력을 보았을 때, 큼지막한 숫자와는 대조적으로 조그맣게 ‘순국선열의 날’이라고 인쇄되어 있었던 기억이 난다. 음력 생일은 매년 바뀌는 탓에 그 작은 글자들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면 순국선열에 대해 무관심하고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이라 이런 우연에 감사한다.

처음 현충원에 방문했고 수많은 묘비를 보면서 그동안 내가 모르고 있었던, 또 다른 이승만과 박정희, 김대중과 김영삼으로부터 당신들의 헌신에 감명을 받았다. 사실 그렇게 많은 분이 어떻게 현충원에 안장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추측으로만 6·25 참전 용사의 숫자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할 뿐이다.

현충원에 안장되었다는 이유로 그들은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 이곳의 호국영령들에게 존경을 표한 후 가장 처음 든 생각은 ‘나도 이런 곳에서 사후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스스로 던지는 채찍질이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꿈이 있다. 그 꿈의 끝에는 현충원이 있기를 소망한다. 내 꿈은 끝없이 미련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았다. 대통령이라는 거창한 꿈도 아닌 것이 괜히 더 웅장해 보이는 탓일까, 우리 동네 환경미화원이라도 나로 인해 대한민국이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하는 꿈도 존중받지 못하기 일쑤였다. 이곳에서 나와 같은 꿈을 이루려 노력한 영웅들을 만나 위로를 얻는다. 그들과 같이. 그들과 닮아있을 미래를 꿈꾼다.

학교에서는 매주 운동장에 서서 애국가를 부르고 묵념을 한다. 학생들의 선호도 직업

1위는 공무원,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주로 차지하곤 하지만 학생들은 현충일과 공휴일에 대한 본래 의미는 잊고 놀러 갈 생각에 며칠 전부터 들떠있다. 나도 이와 다르다고 당당하게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다.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을 개중에 다행인 점이라고 생각한다.

지나친 교육열에 수능 필수가 되어버린 한국사 덕택에 강제적으로라도 호국영웅들에 대한 지식은 점차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다. 그렇지만 호국영웅에 대한 존경은 끝없음에 마땅하고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토대에는 그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집에는 태극기가 없다. 매년 공휴일 쉬면서 보는 TV에서 태극기 게양에 대한 안내방송을 수도 없이 본 것 같다. 집에 가는 길에, 태극기를 몇 개 사보려고 한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오는 2017년의 현충일에 창문 밖에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내걸어 보려고 한다.

우리는 진심을 담아보려 한다. 항상 호국보훈의 정신을 가지자는 건 억지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일 년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애국가를 부를 때, 묵념할 때 흐르는 선율에 맞추어 머릿속에서 그들의 얼굴을 그려보고자 한다. 내 꿈은 나라이고, 나라는 곧 나의 꿈이 되었다.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변화시킨다. 호국영웅들은 나의 꿈이고 그들은 누군가의 꿈이 되기에 충분하다. 지금도 누군가가 호국영웅이 되어가고 있지 모른다. 당신이 언제나 나라의 영웅, 나의 영웅, 그리고 모두의 영웅이 되어주었으면 한다. '존경'이라는 단어로 수많은 말을 각설한다.





우수상

아버지는 절름발이래요!



일반부 | 김은미 경기도 고양시

“뚝뚝! 비가 내린다.” “어기적, 어기적”

절름거리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어린다. 2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아버지를 뵈러 국립영천호국원에 왔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면서 어릴 적 아버지를 원망했던 마음을 사죄드린다.

감포 시골 동네에서 나는 머리도 좋고 공부를 잘 해서 학교나 마을에서 소문난 아이였다.

“은미야! 너는 우째 그렇게 공부를 잘하노? 우리 성호도 좀 배워야 하는데…….”

어깨가 으쓱거렸다. 하지만 난 또 다른 면으로 동네 아이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은미 아버지! 절름발이대이.”

쑥덕쑥덕 말하는 아이들의 말에 조금씩 상처가 더해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깊어갔다.

“우리 아버지는 왜 절름발이야?” 엄마에게 얼굴을 파묻고 목놓아 울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다리는 여전히 절름거리고 아이들의 놀림은 계속되었다. 국민학교 때 받았던 통일 교육도, TV 방송도 아이들의 놀림을 막기에는 부족했다. “국가유공자! 나는 싫어.” 절름거리는 아버지를 보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면했고, 마음의 문을 닫았다.

24살, 아버지는 이목구비 뚜렷한 얼굴에 작은 키, 농담 잘 하는 유쾌한 성격으로 3남 2녀의 장남으로 태어나셨다. 할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우며 엄마와 결혼하신 지는 5년째 었다. 편안한 하루하루가 반복되던 1950년 7월, 아버지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투에 참여했다. 아찔했고 공포스러웠던 8월 16일을 잊을 수 없으셨는지 순하신 아버지께서는 약주만 드시면 말씀하셨다.

“항상 꿈에 그 친구가 나타나! 내 손을 잡고 살려 달라던 우철이! 나는 천운이 도와준 사람이야! 평생을 감사하게 살아야 해.”

그 말씀의 의미는 고등학교 때 역사 공부를 하면서 국사 선생님께서 깨우쳐 주셨다.



“은미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셨잖아! 너희들도 다 알고 있지?”

그때부터 나는 아버지에 대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같은 스물넷의 나이가 되었을 때 꿈도 많고 희망이 가득한 그 시기에 나는 과연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까? 스스로 물었다. “아니! 무서워! 내 청춘이 아까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주름 가득한 아버지를 보며 아까운 청춘을 전쟁에 바치신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저절로 존경의 마음이 생겨났다.

“우리 아버지! 다리는 절름거리시지만, 아버지의 희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없었을 지도 몰라.” 나를 놀려대던 동네 친구들에게 이제는 어깨를 으쓱대며 이야기한다. 하지만 절름거리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선! 정말 안타깝다. 시간이 흐를수록 6월 6일 현충일이 뭐야? 관심도 지식도 없다. 순국선열? 말의 의미조차 모른다. 또다시 절름! 절름한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마음의 기도를 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민이 역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에 깊이 자리 잡기를.

셋!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넷! 나라가 잘 할 때는 “최고야!” 칭찬하고 잘못했을 때는 “정신 차려!” 촛불 민심으로 보여주기를.

다섯째!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행복한 대한민국에 살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하기를.

대한민국은 아직도 절름거리고 있다.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서 편안히 두 걸음으로 걷고 계실까? 아버지께서 흐뭇이 웃으시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고 계시는 것 같다.

“은미야! 나 때문에 힘들었지?”

똑똑! 비가 내린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만들어갈 내일! 이제는 나라가 뼈 깎는 절름발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당당한 두 걸음으로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한 번도 말씀드리지 못한 그 말을 오늘에서야 씩스럽게 고백한다.



우수상

석판에 새겨진 이름



일반부 | 김소연 서울특별시 도봉구

햇볕이 가득한 날, 엄마 손을 잡고 왔던 현충원은 나에게 많은 기억을 안겨줬다. 지하 철역 앞에서 국화꽃 한 다발을 손에 들고 6월이면 찾아 왔던 곳.

국화꽃 향기를 맡으며 걸어왔던 그 길. 엄마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을 매년 찾았다.

하지만 아빠는 한 번도 이곳을 오지 않았다.

어린 나는 왜 아빠는 현충원에 오지 않는 거냐며, 아빠는 아빠가 보고 싶지도 않냐며, 투덜거렸던 기억이 있다.

현충원은 나에게 봄 소풍 같은 곳이었다. 어려운 시절이라 소풍이라는 사치를 부릴 여유가 없을 때, 엄마는 도시락을 싸서 잔디밭에 돛자리를 폈다. 그곳에서 어린 나는 김밥을 먹으며 동생들과 봄 소풍을 맞이했다. 현충원 이곳저곳을 누비며 많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유품 전시관, 사진 전시관을 돌아보며 돌아가신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증거이기도 했다.

현충원에 온 우리는 제일 먼저 위패보안관으로 들어섰다. 할아버지는 유골을 찾지 못하여 무덤도 없고 돌판에 새겨진 이름 석 자가 전부였다. 검은 판 위에 하얀 글씨가 뽀뽀하게 새겨있었던 그곳. 그 앞에 국화꽃을 내려놓고 기도를 했었다.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 아빠에게는 아버지를 빼앗아 가고, 나에게서는 할아버지를 뺏어 갔던 전쟁.

한동안 원망스럽기도 했다.

현충원에 올 때마다 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무언가를 느꼈다. 돌아가신 지 한참이 지났건만, 아직도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 한 분을 봤다. 석판 앞에서 소리 내어 읊면서 새겨진 이름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만지셨다. 소주를 검지로 찍어서 이름에 바르면서 흐느껴 울었다. 그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져서 나도 조심스레 손가

락으로 새겨진 할아버지 이름을 만져봤다. 울컥하면서 먹먹해지는 그 마음. 전쟁에서 돌아가신 수많은 이름을 보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었을까? 생각해 봤다.

학교에서는 국가유공자 자녀라며 6월엔 교장 선생님께서 물감 등 학용품을 선물로 주셨다. 선물을 들고 교실로 들어왔을 때, 할아버지가 참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했다. 얼굴은 볼 수 없는 할아버지였지만 어린 시절 나는 그렇게 현충원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겼다.

어른이 된 나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현충원을 찾았다. 아이에게 증조할아버지가 계신 곳에 관해서 설명해줬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증조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아이는 길게 늘어진 묘지를 보며 놀란 눈치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냐며 9살 된 아이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현충원은 어린 나에게도 또 나의 자녀에게도 큰 의미로 깊어지고 있는 곳임이 분명했다.

딱 한 번 아빠와 현충원을 찾은 적이 있었다. 아빠는 현충원을 찾지 않았지만 매년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며 기억했다. 오래된 할아버지의 흑백 사진을 바라보면서 아빠는 어떤 마음이셨을까? 아빠가 어렸을 때, 전쟁에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는 재가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이 집, 저 집, 친척 집들을 돌아다니며 잘 먹지도 못하고 많은 구박을 받으며 살았다고 한다. 노동판에서 일하면서 고생하며 커 온 아빠의 어린 시절이 있었기에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하며 전쟁의 아픔을 몸소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어렸을 때 이해 못 했던 아빠의 마음을 이제는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30년을 넘게 찾아온 현충원. 아이는 현충원 풍경을 그리고, 나는 글을 쓰면서 다시 이곳을 느껴 본다. 돌아가신 많은 분을 생각해 본다. 내년 6월에도 또 나는 이곳을 찾을 것이다.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과 그 가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장려상

행복과 쓸쓸함의 공존



초등부 | 장서는 인천용현남초등학교 4학년

나에게 현충원이란, 생소하고 와 닿지 않는 곳이었다. 우리 나이에 전쟁은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아닌 평화전쟁이라 생각했다. 내가 이 땅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내가 살 수 있게 된 것이 지금 현충원에 묻혀 계신 분들 덕분이란 걸 알게 되었다.

묘 하나하나 지나가며 비석에 적힌 이름을 읽어 내려가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느낌의 눈물이 쑥 올라왔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다. 현충원에 가기 전 엄마의 이야기만 들었을 때의 느낌과 내가 직접 와서 보고 느낀 느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더 욱더 크게 만들었다.

나는 우리 가족들이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 수 있지만, 호국영령 가족들은 얼마나 이분들을 보고 싶을까 그리고 안고 싶고 부르고 싶고 만지고 싶을까? 묘 앞에 놓인 가족들의 편지봉투만으로도 충분히 느껴졌다.

그 가족들이 울고 있을 땐 나는 웃고 그 가족들이 비석을 어루만질 땐 나는 우리 가족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그 가족들은 얼마나 속상하고 부럽고, 지금이라도 같이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꽃을 올려드릴 뿐 더 해줄 수 있는 건 없을까? 난 현충원 행사에 가족들과 참여하여 하하 호호 즐거움을 느끼니 땅속에 묻혀 계신 분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추위를 나의 따뜻한 마음과 맞바꿔 위로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나는 이제 매년 한 번씩이라도 현충원에 와서 행복한 세상,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호국영령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져 드릴 것이다.



장려상

현중원



초등부 | 조은솔 남양주 오남초등학교 4학년



들려온다
나라를 위해
나를 희생한
그분들의 소리가 들린다

내 아내를
내 아이를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냐며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그분들이 잠들어 있다

유품전시실에 남아있는
멈춰있는 회중시계가
아직도
나라를 사랑하는

시간은 간다며
우리를
재촉하고 있다.

그분들의 낡은 군복 속에
꼭 이기고 지키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다.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는
그분들로
완성되고 이어지고
앞으로 용감하게 전진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장려상

할아버지가 지키는 우리나라



초등부 | 이수아 광명 철산초등학교 2학년

우리 아빠는 여행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겨울 방학 때 미국 동부를 다녀왔다. 미국 여행을 가기 전에 친구들에게 사랑을 많이 했다. 그런데 역사를 좋아하시는 우리 아빠는 나를 우리나라에 현충원과 같은 알링턴 국립묘지에 데리고 가셨다. 아빠가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에 남는다. “알링턴 국립묘지에 한국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안장한 묘도 있어!” 미국에서 우리 한국전쟁 역사를 다시 배우고 돌아왔다.

또 워싱턴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 공원도 갔다. 링컨 기념관 앞쪽에 있었는데, 한국전쟁에서 죽은 54,246명의 미국 군인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FREEDOM IS NOT FREE!”가 검은 화강암 벽면에 새겨 있었다. 아빠가 말씀하셨다. “자유는 아주 소중한 거야!”

한국에 와서도 미국에 가보았던 알링턴 국립묘지와 한국전 참전기념 공원 이야기를 반 친구들에게 했다. 친구들이 신기하다고 했다. 나는 앞으로도 아빠랑 역사 여행을 자주 하면 좋겠다. 우리 아빠가 역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할아버지 때문이다. 할아버지께서 6·25를 경험하시고 나라의 소중함을 자주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는 할아버지와 아빠의 마음을 아직 잘 모른다. 그런데 이곳 현충원에 와서 많은 묘를 보고 아주 깜짝 놀랐다.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국군 아저씨들이 우리나라를 지켜 주신 것을 알았다.

우리 아빠는 해군 장교로 배를 오래 탔다. 또 실제로 제2연평해전에 아빠와 같이 근무하신 윤영하 소령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가끔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튼튼하게 있는 건 많은 국군 아저씨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조금 있으면 6월 6일 현충일이다. 나는 우리나라를 사랑한다! 우리 할아버지, 아빠가 지키는 나라를 나도 지킬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오고 싶은 나라를 만들 것이다.



장려상

수감번호 371번

중학부 | 최다운 신도중학교 3학년

가슴 언저리 솟자는 각인이요
 나라 잃은 모든 이들의 눈물이라
 벗어나고자 손을 뻗어도
 화살이 깊숙하게 박힌 양
 붉은 흙탕물만 울컥울컥 뱉어내는데

잃은 부모에게서
 기어코 받은 편지에는
 구구절절한 말들이 아닌
 타닥타닥
 불꽃 튀는 원통이 담겨있다.

아직도 최전선의 동무들은
 여기까지 걸어온 길에서
 수천 번은 외쳤을 말을
 또다시 새겨 넣는다

어젯밤 손을 잡고 다짐하던 동무는
 오늘 밤 손을 잡고 등 뒤에서 쓰러질 것이다.
 눈이 가려져 눈물은 흐르지 못하고
 입이 막아져 소리 내지 못하나
 두 귀만은 똑똑히 살아있기에
 멀리서 들려오는 그들의 모습
 두고두고 기억하여
 세상에서 내가 지워지는 그 날
 바로 그날
 죄를 지은 자는 내가 아니라 너희이며
 나를 재판할 그 어떤 권리도 명분도 없다
 이리 소리치겠다.



장려상 / 중학부

비록 짓밟히고 또 짓밟힌 이 땅이지만
 수많은 사람이 헤치고 뛰쳐나와
 척박한 땅을 돌보고
 때로는 갈라지는 흙더미에
 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아도
 보라
 다시 잡초처럼 끈질기게 살아낸
 이 땅의 무수한 생명을

이제는 외로이 빛 한 줄기 보지 못한 채
 쓸쓸히 떠나는 일은 없도록
 모든 용감한 사람들의 희생을
 안고 짊어지고
 다시 거대한 뿌리도
 역사는 지속된다

누군가 손끝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끝없이 굴러가는 바퀴처럼
 돌부리에 걸리고 부딪히더라도
 역사는 지속된다





장려상

현충원

고등부 | 원유정 충추여자고등학교 2학년

나는 그냥 지금 당장 내 생활이 중요했고 하루 24시간을 보내기에 바빴다. 솔직히 말하자면 난 우리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에 관해 관심이 없었고 뉴스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몇 명 순직을 한 기사가 나오면 별 드는 생각이 없었다. 그냥 나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보다는 줄줄이 터지는 연예인들의 열애 기사가 훨씬 흥미로웠다. 나는 나라보다는 나에게 중심을 맞춘 채로 지내왔다. 내가 나라를 지키는 분들과 나라에 대해 좀 더 깊은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도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기적인 생각이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내 주변에는 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거나 나라를 지키는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분들 가족의 마음을 생각할 수도 생각해본 적도 한 번도 없었는데, 아빠가 군인이신 친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여태껏 내가 전쟁에 대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 대해 가져왔던 생각들이 부끄러워졌다. 전쟁 얘기로 한창 들썩였을 때 친구의 아빠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자주 현관문을 나섰고 한 번 나가시면 길면 일주일 이상은 아빠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친구는 아빠가 현관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다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빠의 모습을 보지 못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구의 아빠는 어릴 적까지 말라고 붙잡는 딸에게 본인이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솔직히 나는 여전히 전쟁이 무섭고 전쟁으로 인해 내가 죽을까 봐 무섭다. 하지만 나는 이제 지금의 내 생활을 지켜주신 분들을 안다. 그분들의 마음을 안다.

나는 지금 내 지난날과 우리의 미래가 살아있는 현충원에서 있다.



장려상

오월의 향기



고등부 | 임광숙 일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작은 산봉우리에
아카시아 꽃이
피었습니다.
녹음 짙어가는
그윽한 동산에
반만년 역사 품은
고귀한 생명들
역사의 부피만큼
꺼어진 무릎
마구 추락하는
나라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오롯이 이 땅 위에 뿌렸습니다.

오늘같이 바람 부는 날
임은 잠들지 않고
연이어 피어나는
우리 민족의 속성같이

오월의 향기
어깨 나란히 하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길 위의 고목 같은
나의 가슴을
또다시 푸른 피돌기로
제 살로 빛은
새순 내어 드립니다
비록 꽃 같은
향기 없어도
임을 향한 나라 사랑
뿔어냅니다.





장려상

현충원! 나의 초록심터



고등부 | 이승진 압구정고등학교 2학년



벚꽃이 흩날렸던 현충원은 어느덧 연둣빛 고운 푸르름으로 가득하다. 5월은 늘 가슴이 먹먹하다. 심근경색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더욱 그리운 계절이다. 할아버지는 국가를 위해 충성과 헌신으로 임하신 군인이셨다. 큰기침을 하시며 현충원을 걸으셨던 역사 사랑가! 할아버지의 열강이 귀에 쫄쫄 들어왔던 나에게 가장 빛나는 추억의 장소, 현충원.

故 이달수 대령 우리 할아버지는 8남매의 장남으로 동생들의 학비까지 챙겨주신 고운 마음을 지니셨다. 군인 시절, 전국 각 곳을 지키시며 국가 발전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겨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하셨다. 할아버지가 계신 대전 현충원을 더욱 사랑하게 된 것은 대전의 견고 싶은 길 ‘보훈 둘레길’을 산책하고, 무지갯빛 현충원의 풍경과 유익한 행사들의 광경을 볼 수 있었다. 할아버지의 기일에 참석했을 때, 옆에 있던 묘비의 쓸쓸함이 확 내게 몰려왔다. 그동안 가족, 친지들의 방문이 없었던 외로운 묘비인 것으로 보였다. 그 날은 준비해온 꽃을 할아버지가 아닌 옆에 있던 그분의 묘비에 가지런히 놓아드렸다. 수건으로 묘비의 앞뒤를 반짝이게 닦아놓았다. 그분도 따뜻함을 느껴줄 것 같아 내 마음도 웃음꽃이었다. 앞으로도 꼭 대전 현충원을 방문할 때마다 한 다발의 꽃이 아닌 사랑이 담긴 꽃다발을 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할 것이다.

초록 잎이 무성해질 즈음에 나와 친구들은 서울 현충원으로 봉사를 간다. 봉사하러 가는 친구들의 마음은 머리에 꽃을 달고 놀거나 강한 햇볕에 짜증을 내는 행위 등을 통해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찾기는 부족했다. “너는 어떤 마음으로 이곳을 왔어?”라고 꽃만 만지던 친구에게 물어보았다. “교실에 있는 것보다 야외 수업이 즐겁잖아!” 하며 피식 웃었다. 우리를 평화롭게 살게 해주신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이곳에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건네면 친구들은 와우! 하며 애국가라며 웃음꽃을 피워냈다.

장려상 / 고등부

친구들의 송고한 뜻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성숙한 학생으로 현충원에 계신 모든 귀한 분들께 다가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학교 공부 과정에서 만나는 스트레스와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힘들다고 외쳐대지만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분들을 생각하면 하루하루 겸손의 학업 생활을 충실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타오른다. 어제 체육대회를 하며 경기 도중에 코를 다쳐 CT 촬영을 하며 통증에 아픔을 호소했지만, 우리 호국영령들이 흘린 진한 피땀에 비하면 나의 코피는 너무나 흐린 것이다.

무겁게만 생각했던 현충원이 봄마다 수양벚꽃축제로 가족들과 삼삼오오 학생들의 산책을 즐길 수 있어 아름다운 풍경의 광장이다. 오늘도 팽과리 치며 흥겨웠던 국악 공연도 인상적이었다. 추모의 공간인 현충원이 때때로 시민들의 휴식과 나들이 공간으로 바뀐 것이 참 예뻐다.

나는 이루고 싶은 꿈이 떠올랐다. 그중 한 가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다 돌아가신 가족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소박한 밥과 반찬들을 준비하여 방문하는 것이다. 먼저 동사무소에 가서 봉사자 신청을 해야겠지요? 현충원의 다채로운 체험과 많은 교육, 문화, 행사 이 모든 것들에서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뜻깊고 아름다운 추모행사들을 사랑합니다. 고마운 무지개 현충원의 꿈을 꾸면서, 연둣빛 고운 푸르름으로 내일 또 하루를 기다릴 것이다. 이곳이 바로 나의 초록 쉼터이다.





장려상

당신께 보내는 연서(戀書)

일반부 | 윤다혜 서울특별시 동작구



당신은 젊고 아름다웠어요. 어떤 결의가 있었던 모양인지, 단정하게 이발을 해서 보이는 파르스름한 목덜미도 내 눈에는 펍 애정이 갔어요. 굳게 다문 입술도 그랬고요. 그 광경과 다르게 당신의 등 너머에서는 무언가 터지고 부서지고 소멸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당신은 곳곳했어요. 당신의 나이 기껏해야 이십 대 초반. 나와 동갑이었지만 말이에요. 당장 어리광을 피우며 어머니 치마폭에 파고들어도 이상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당신의 손에 쥐어진 총 한 자루가 유독 가냘프게 보였어요. 아마 누구를 향해 겨누어야 할지 몰라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당신과 나, 반백 년을 터울로 다시 만났어요. 섬광이 번뜩이는 동안 시간은 잠시 멈추었어요. 그때 같은 길 위에서 내가 태어났어요. 멈춰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야만 하는, 숙명을 가진 채로요. 어른들은 그랬어요. 내 세상은 또 다른 의미에서 모질고 힘겹다고. 맞서 싸우라고. 일어나라고. 하지만 나는 적당히 안주하고 타협하고 있었어요. 나약하다는 핑계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당신의 눈만큼은 똑바로 마주할 수

가 없었어요. 스스로 부끄럽다는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당신, 당신이 그토록 꿈꾸던 세상이 왔어요. 당신의 피땀으로 지켜낸 세상이에요. 여전히 분단국가에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시달리고 있지만, 그래도 대화와 상식은 통하게 되었어요. 총을 들이대기보다 손을 먼저 내밀기도 해요. 거기서 우리는 자유롭게 춤을 추고 노래하고 글을 써요. 수많은 당신들이 만들어낸,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당연한 줄만 알았던, 참 고마운 세상이에요. 나 또한 당신이 사랑했던 만큼 내 나라를 사랑해 볼게요. 이 마음을 오래 가지고 싶어요. 당신의 얼굴을 보면서 다진 작은 결의예요. 당신이 기뻐하면 좋겠어요. 웃는 얼굴이 보고 싶거든요. 아, 답장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연서란 답을 바라면서 쓰는 게 아니라서 듣는 적이 있거든요. 오로지 내 마음이 전해지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우리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그때는 어린 당신, 당신이 춤을 추고 노래하고 글을 써요. 진심이에요.

참으로 고된 나날이었어요. 이 연서를 다 읽으셨다면 고이 접은 채로, 잠시만 쉬고 보세요. 물론 주무시고 계셔도 좋아요.





장려상

근본을 기억하며, 다시 새롭게

일반부 | 허성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얼마 전, 김훈 작가님의 『남한산성』을 읽었다. 청나라에 대해 싸우던 선조들의 이야기는 현재 우리의 모습과 묘하게 겹쳐 보였다. 용감하게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을 주장하는 주전파 김상헌, 오랑캐가 강하니 항복하여 뒷날을 도모하자는 주화파 최명길, 그리고 그 사이에서 끝없는 저울질과 보신에 급급한 신하들까지. 읽다 보니 저절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이 들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면 나는 항상 현실과 타협하는 소시민, 좋게 봐주어도 최명길 같은 사람일 것이다. 책을 읽는 내내 그의 말과 생각에 깊이 공감했다. 하지만 책장을 덮고도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사람은 주전파 김상헌이었다. 왜일까? 가장 기억에 남는 그의 한 마디를 옮겨 보겠다.

“근본은 일월(日月)과 같은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근본을 기억하고, 성심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다. 비록 어려운 상황일지언정 자신의 근본을 망각하지 않고, 마음을 새로이 할 수 있는 신념의 자세가 인간적으로 다가온 것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게 갖는 경외와 존경의 마음도 이와 같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다는 점이다. 신념 중 가장 앞에 위치하는 것은 역시 애국, 애족의 마음이다. 영악하게, 때로는 비겁하게 행동하는 동물적인 본능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옳바르고 따라야 할 사람의 길인지를 보여준 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때로 부족함을 느낀다. 무지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땅히 기억하고 후세에 남겨져야 할 분들에 소홀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포털의 질문을 보고 기가 막히기보다 어이없음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다. 질문은 이랬다.

“안중근 의사를 영어로 쓸 때, 의사를 닥터(DOCTER)로 쓰는 게 맞는 건가요?” 우리의 무관심과 근본에 소홀함이 만들어 낸 아이러니라 생각한다. 너무 당연하게 주어진 것

들 것 우리는 감사함을 잊어버리고는 한다. 6·25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꽃다운 청춘을 국가에 헌납한 이들, 항복해도 누구 하나 비겁하다 손가락질할 사람 없는 절망적 열세에도 육탄으로 적을 저지한 용사들, 가까이서 서해에서 목숨 걸고 적을 물리친 장병들까지. 그 외에도 이름 석 자 남기지 못한 채 현충원에 합장되어 계신 분들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잊히고 있는 의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에게 자유와 풍요를 싣 틈워준 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잊지 않는 일'뿐이다. 무엇 하나 바라지 않고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이들은 대한민국에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채권자이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그들이 대신 지불해 주었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욕한 적이 없다. 다만, 국민 된 도리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듯, 우리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후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지만 그걸 굳이 드러내고 아려야 하나?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않은 분들인데.” 나는 이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싶다.

첫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뜻을 기림으로써, 그분들은 우리 한민족의 마음속에서 영원한 삶을 얻으리라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국가에 내우외환이 닥쳤을 때도 우리가 후손들에게 같은 것을 기대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할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둘째, 국가에 헌신한 이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문화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남굴복지라는 말이 있다. 회수 이남의 굴을 회복에 옮겨 심으면 탕자가 열리는 것처럼 사람도 어떤 환경에 처했느냐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는 의미이다.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문화 속에서 자란 이들은 국가에 헌신하는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국가의 공동체 의식은 더욱 끈끈해질 것이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사람들 마음속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나는 김상헌의 말을 다시 곱씹어 보기를 원한다. 국가는 근본이고, 근본은 일월과 같다. 위급할 때 일수록 근본을 생각하고,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해 주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정신을 떠올려보면 어떨까? 우리의 미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오늘의 우리가 되고 싶다.



장려상

아저씨! 또다시 봄이 왔어요

일반부 | 김수진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저씨, 전 아저씨 이름은 잘 몰라요.

그래도 아저씨를 기억해요. 제가 처음 현충원에 온 건 8살 때였어요. 오늘 와보니 그때 봤던 아저씨의 자리가 좀 더 환해졌네요. 예쁜 꽃이 아저씨 곁을 지켜주니까 마음이 조금 놓여요. 이제 조금 더 가까이 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소풍 온 듯 그저 신나고 즐거워했던 철부지 소녀가 24살의 아가씨가 되었어요. 지나간 세월과 오년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지 짐작이나 하실까요.

오랜만에 다시 본 저는 어때요? 나이는 24살이지만 제가 본 저는 아직 어려요. 대학을 졸업했지만, 아직도 신입생처럼 들뜨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무언가에 꾸준히 도전하면서 서로 한편으로는 두렵고, 낯선 곳에서 여행하며 새로운 문화와 풍경을 만나는 게 황홀할 만큼 좋으면서도 수없이 망설이는 두려움 많은 아이예요.

아저씨! 제가 8살 때 처음 본 아저씨도 지금의 제 나이 또래셨겠죠? 저는 제 고민하다 해결하기에도 오랜 시간과 생각이 필요한데 나라 앞에 놓인 당신은 얼마나 벅차고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크고 깊은 애국심이 있어야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저씨를 볼 때면 제 고향 광주가 많이 생각나요. 광주에서도 5.18민주화운동으로 정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아저씨와 그분들을 볼 때면 제가 정말 어리고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제가 당시의 그분들이었다면 정말 나라를 위해 나 자신을 바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도 많이 느껴요.

그저께는 면접을 봤던 곳에서 최종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너무 기쁘고 가장 먼

저 감사합니다. 제가 꿈꿀 수 있게, 꿈이 헛되지 않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를 구하다가 전사하시고 순직하신 당신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고, 감사할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사회인이 되도록 할게요. 자기 자신보다 나라를 더 사랑하는 그 숭고한 마음은 누구나 꿀 수 없기에 더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현충원에 와서 많은 순국선열 분들을 이렇게나마 만나 뵙게 되어서 오늘은 더욱 뜻깊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자주 오진 못해도 가끔 오래 찾아뵙도록 할게요. 대한민국이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게,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에서 마음껏 꿈꿀 수 있게 빛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당신들을 영원히 기억할게요.





장려상

아버지 계신 곳

일반부 | 김현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5월 산천은 있는 힘을 모아
자기 자신에 최선을 다해
자기를 드러내는데
6·25 참전용사 병장, 김. 순. 준.

아버지
현충원에 하얀 비석으로
서 계십니다

1·4 후퇴 때 산속, 언 주먹밥을 먹어
이가 상했다며 듬성듬성
이 빠진 잇몸 새는 웃음으로
내가 가거든 삼일만 더 고생해다오...
사는 게 힘들 때- 그때처럼-
징, 팡과리 치며 개미 떼
중공군이 밀려와
후퇴하면 죽음 올라
치열하게 살아왔다던
병장. 김순준!
어린 막냇동생 같하던 이 이병
고교 동창 김 상병님
모두 만나셨는지요.

하나뿐인 독자 아들 입영 전날
나도 따라가 군인들 밥이라도
지어주는 나라에 쓸모있는 노인네
되고 싶다 하시며
아들이 군대 가도록 통일이 안 될 줄
몰랐네 하시더니
손주가 제대하던 날,
새 대통령님
아버지, 전우들이 누워있는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
인사드리러 오셨습니다.
새날, 새 나라!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
평화통일을 이루게 되겠지요.
그때, 잠자는 전우들과 모두 일어나
함께 만세를 불러주세요.
만세! 만세!
태극기를 들고 환히 웃으시는
아버지!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어요.....





장려상

복돌이는 웃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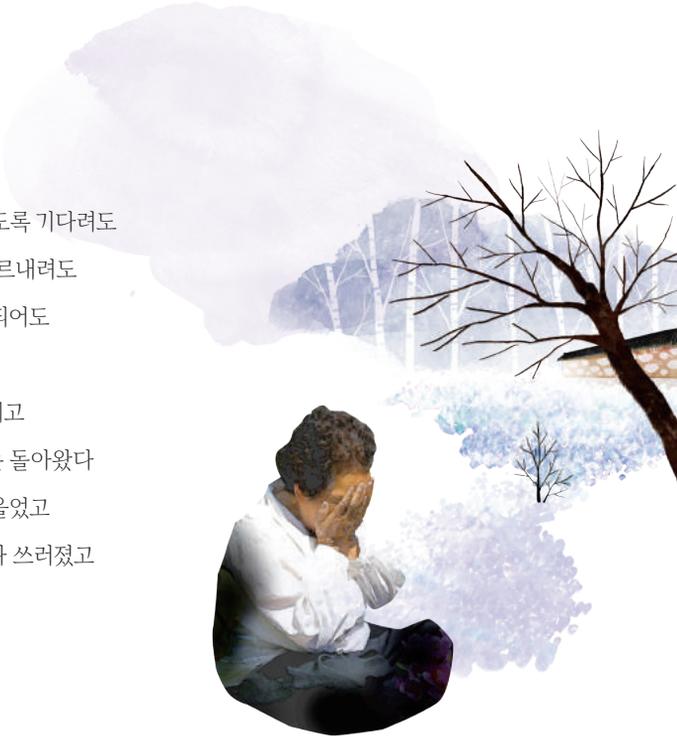
일반부 | 정분임 서울시 성북구

복돌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팔꽃 피멍 들어 기다려도
 굽은 허리 어머니 사립문 났도록 기다려도
 눈 발자국 찍으며 산새들 오르내려도
 아지랑이 기지개 켜는 봄이 되어도

어머니를 지키고 마을을 지키고
 나라를 구하겠하던 복돌이는 돌아왔다
 목이 끊어지도록 나팔꽃은 울었고
 어머니 굽은 허리는 통곡하다 쓰러졌고
 산새들은 꽃을 물어와
 장승 곡을 불렀다

모두가 울었지만
 복돌이는 웃는다
 어머니는 꽃잎 훑날리며
 산새는 푸른 노래를 부르며
 살아남았다

그의 피 흘림으로
 그의 헌신으로
 무궁화 삼천리 조국 강산은
 이제 더욱
 푸르게 튼튼하게
 우뚝 나아가리라.





가작

순국선열들을 생각하며



초등부 | 손채원 고양백석초등학교 6학년

현충원이란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기리는 장소이다. 그곳에 잠드신 분들은 총 약 17만 8천 위라고 한다.

이곳에 와서, 나는 몇 가지 의문점이 들었다.

첫 번째로, 내가 만약 전쟁이 났던 그 상황 속에 있었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전장에 용감하게 뛰어들어 싸울 수 있었을까?” 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곳에 잠드신 순국선열들이 정말 용맹스럽다고 생각한다. 조선 후기 신미양요 때 우국지사 매천 황현 선생의 저서 <매천야록>에 따르면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열악한 무기들을 가지고도 ‘칼을 들고 싸우다가 칼이 부러지자 낡으로 된 탄환을 적에게 던지며 싸웠으며, 적의 창에 난자되고 머리를 베어갔다.’라고 한다. 이것을 보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의 애국심이 크다고 느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졌다고 생각한다. 나도 정말 우리나라가 위급한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나라를 위해 용감하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 국민 중 하나가 되고 싶다.

두 번째, 만약 내 친한 친구가 북한 군인이어서 나와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머리가 새하얘질 것 같다. 마치 빛 한줄기 없는 어둠 속에 갇힌 것처럼 말이다. 이곳에 잠드신 순국선열들은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무척이나 가슴 아픈 상황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절대 한민족끼리 싸우는 6·25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마지막으로, 의문점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힘쓰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또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무명 독립 용사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가장 원했을 그분들에게 우리나라가 독립 국가가 되었다고 꼭 전해 드리고 싶다.

이곳에 잠드신 순국선열들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우리의 역사에 관해 관심을 두고 공부하는 것이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6·25 전쟁 같은 무서운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그 역사에 대해 공부하고 바로 고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외국에 빼앗긴 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귀중한 유물들을 역사에 대해 알게 되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일이야말로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보여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분들을 한 번씩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순국선열들에 대해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나라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순간이 생기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현충원에 순국선열들을 기리는 행사들이 자주 생겨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기면 좋겠고 이 행사를 통해 나도 순국선열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무척이나 좋았다.





가작

역사 책을 많이 읽을게요



초등부 | 김윤지 서울방배초등학교 3학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방배초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4반 김윤지예요.

저는 어제 처음으로 6·25전쟁에 대한 책을 읽고, 아빠, 엄마에게 6·25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6·25에 대해서 들었을 때, 어린 저는 10년 동안 그런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군인 아저씨들을 생각하고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네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현충원에 왔는데 나라를 지키신 분들의 묘지가 이렇게나 많은지 정말 몰랐어요. 저희를 6·25전쟁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감사해요. 전쟁이 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을 싸서 짊어지고, 아기를 업고 맨발로 걸어서 부산으로 피난을 갔대요.

폭탄이 전투기에서부터 한 번에 여러 개씩 떨어지고, 탱크에서는 대포가 멀리서부터 날아왔죠. 또 북한 군인들이 사람들을 총으로 죽이고, 쫓아냈어요. 그런데도 그때 군인 아저씨들은 우리 아빠보다 20살이나 어린데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아직 어린 저로서는 너무 존경스럽고, 저는 그런 행동을 할 용기가 없어요.

얼마 전, 철원 민통선 안에 간 적이 있어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초소를 지나 북한을 보고, 아직도 우리나라가 같은 민족끼리 총을 마주 대고 싸우고 있는 게 신기했어요.

저는 앞으로, 역사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우리나라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많이 가질게요. 그리고, 역사를 모르는 친구들에게 현충일과 같은 국경일의 뜻과 의미를 알려줄게요. 멋있는 군인 아저씨!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게요. 우리나라를 잘 지켜주세요.

2017년 5월 13일 토요일

김윤지 올림





가작

현충원! 나와 나의 나라를 있게 한 곳



초등부 | 이시문 신광초등학교 4학년



“나는 오늘도 살아있어요.”

얼마 전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시리아의 7살 여자아이가 트위터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글을 보았다. 나는 이 아이가 왜 이런 글을 쓰는지 궁금했다. 내가 7살 때는 재미있게 유치원도 다니고,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았는데 이 여자아이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것이 마음이 아팠다.

시리아는 오랜 기간 전쟁을 하는 곳이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힘없는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죽었다. 참 슬픈 일이다.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인해 죽고 피난한 역사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목숨을 다하여 나라를 지켜내신 국군 아저씨들 덕분에 시리아의 7살 소녀처럼 자기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그런 불행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모든 일은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 덕분이다. 그분들이 계신 곳이 현충원이다.

내가 처음 현충원에 왔을 때 나는 무덤만 가득한 현충원이 무서웠다. 그러나 이곳이 내가 시리아의 7살 소녀와 같이 살지 않고, 내 꿈을 이루려 자유롭게 노력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묻힌 곳임을 알고 난 후로는 오히려 뜻깊은 장소가 되었다.

내 나라와 나를 있게 한 분들이 모여 있는 곳! 현충원……, 그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나도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도록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가작

호국의 꽃



초등부 | 이재민 금성초등학교 5학년

똑똑똑

붉은 핏방울은

알알이 빛나는

호국의 씨앗이 되었구나!

따스한 봄별

촉촉한 봄비 내린 날

당신의 염원은

마침내

호국의 꽃으로 피어났구나!

자랑스럽도다!

호국의 꽃이여!

나는

그 꽃의 향기에

기필코

호국보훈의 꽃으로 화답하리라





가작

현충원의 자연과 묘역

초등부 | 박소희 서울가동초등학교 3학년

싱그러운 초록색
잔디밭에
모여있는 묘역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온다.

아름다운
자연과 위엄이
깃들어 있는

용광로의
타오르는
빛처럼

묘역에 피어있는
영원한
무궁화여!

나의
가슴속의
애국심도
영원히
빛나리라!





가작

기리고, 감사하고, 존경하고



초등부 | 김윤오 서울반포초등학교 6학년

기립니다…….

당신의 희생을, 당신의 영혼을,
언제였던가 총을 메고 꾸욱꾸욱
밟았을 흙에, 그 흙의 무게가
산화시킨 거룩한 당신의
시신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기에 우리가 있고,
당신이 있기에 조국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유행만 갈구하고 멋과
새것을 좋아하는 이 시대에
당신은 우리나라가
재고해야 할 영웅입니다.

존경합니다.

전쟁터에 나가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딛고 전우들과
용감히 참전한 그 전쟁들
그 전쟁이 있기에 21세기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 나간 용기가
정말 가상하고, 그 용기를
내신 임들은 더욱
존경합니다.
총알이 날아들고, 내 몸에
박혔을지도 모르는 정신없는
순간에서도 자신의 가족과
친척 자손들을 위해 적군을
한 명이라도 죽이려
달려들었을 당신의 정신력에
저절로 고개를 숙입니다.

가작 / 초등부

임!

오늘날에는 아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짓말하고, 돈을 먹여서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전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잘못과 모든 사람의
잘못을 용서받고자 합니다.

임!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의 이익을 찾는
사람들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과
보다 선한 사람들을 위해
한목숨 바치신 용기와
기상 한번 본받고자 합니다.

선은 악을 무조건 용서하지만
정의는 악을 악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 때문에 저도 선하기보다는
정의롭고자 합니다.
임들과 같이…….

사후에서도 기려야 할
호국영령님들!

당신들을
기리고,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가작

호국영령들에 대한 나의 마음



중학부 | 이채민 인천계수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현충원이라는 곳에 와서 글짓기에 참여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나의 눈에 비친 현충원은 깨끗하고 성스러운 곳이었다. 그때는 어려서 현충원이 무엇인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매 해년 현충원에서 열리는 글짓기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마냥 깨끗하고 순수한 곳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깨끗하고 순수함 뒤에 아픈 상처가 숨어 있을 줄은 몰랐다.

호국영령은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이다. 나는 아직도 현충원에만 오면 줄지어 선 비석에 적힌 분들이 안타깝고 감사하고 죄송하다. 우리에게 삶의 원동력인 가족이 있듯이 돌아가신 호국영령분들도 지켜야 할 가족, 잃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내 나라 조국을 위해 내 한 몸을 바쳐 싸운 것이 아닌가! 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아무리 내 나라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하는 가족과 잃지 말아야 할 것 있다면 망설이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스러운 호국영령들께서는 주저하지 않고 살 수는 있을지 돌아올 수는 있을지 기약도 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현충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무후선열 같이 후손이 없는 분들은 제사를 지내 줄 사람이 없는데 그 제사를 현충원에서 지내주니 정말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호국영령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많이 힘드셨을 거로 생각해요. 이제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과 아프고 슬픈 기억들 다 잊으시고 깨끗하고 쾌적한 현충원에서 편안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편안하고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작

지금의 나를 있게 해주신 분들께

중학부 | 임현빈 휘경중학교 2학년

호국 문예 백일장대회가 열린다는 것을 학교 포스터로 보았다. 선생님께서 이 포스터를 게시판에 붙이라는 심부름을 시키셔서 우연히 보게 되었다.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 나에게 좋은 기회였다. 이곳에 와서 주제를 보니 솔직히 막막했다. 내가 예상한 주제는 단어를 제시하고 쓰는 것이었는데 익숙하지 않은 현충원에 관해 쓰라니…….

인터넷에 검색해 본 현충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편안히 모시고 있는 국립묘지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6·25에서 전사하신 분들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국가를 지키신 모든 분이 계시는 것이었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현충원에 와서 애국가를 부르니 평소와는 다른 경건한 마음이 들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정확히 몰라서 찾아보았다. 순국선열은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싸우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일컫는 말이고, 호국영령은 국가를 위하여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사람들의 영혼을 높이 부르는 말이라고 한다. 나라를 지키다 전사하신 분들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고, 지금의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친구들은 우스갯소리로 “전쟁이 나면 그냥 숨어있어야지. 싸우다가 죽으면 목숨이 너무 아깝잖아.”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부끄러운 소리다. 자기의 목숨보다 나라가 중요해 돌아가신 분들이 현충원에 계시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희생 정신조차 없다.

6월 6일 현충일이 되면 친구들은 모두 쉬는 날이라며 놀 궁리만 한다. 아파트에 나가

보면 태극기를 다는 집은 몇 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전쟁을 직접 겪었더라면 이날을 사람들이 모두 기억해줄까? 책이나 영화로 보아도 전쟁, 그리고 전쟁하다 돌아가신 분들은 아주 괴롭고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현실은 얼마나 끔찍했을지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없다. 우리가 겪지 않았음을 다행으로 여기고 항상 추모하는 마음을 담고 살아야 한다. 적어도 현충일에는 태극기를 다는 사람들이 반에서 여러 명은 있어야 하고, 현충원을 방문하는 사람은 전교에서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교에서 한 명이 내가 되어보려고 한다. 먼저 나부터 국가를 지켜주신 모든 분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른 친구들도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나 전쟁을 쉽게 말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쉽게 말한다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덕분에 저와 저의 친구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게 국가를 지키신 모든 분 덕분인데 현충일을 쉬는 날이라고만 생각해서 죄송해요. 지금부터라도 꼭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살게요.”

오늘 이 글을 쓰는 동안 대화를 떠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가작 귀향

고등부 | 권예린 하남 신장고등학교 2학년

육신은 같은 곳에 누이고 머문 지 오래였음에도
 혼이 잠을 이루지 못했던 까닭은
 어제의 그리움, 그제의 슬픔, 엇그제의 원통함이었음이라

 그들 머리 위로 달이 안개를 끼고 오른 밤
 누수 같은 흐느낌이 어디선가 허공을 적시면
 기다렸다는 듯 다들 하나, 둘 터뜨리며 울었다

 날을 새어 가며 울다가도 모두 돌아가기 마련인 것을
 마음이 차질 못해 외등 아래를 홀로 떠도는 혼을 꺼안으며
 나는 어르고 다독이고 함께 사무치는 마음을 추슬렀다

 집엘 가야지
 몸이 허약해 전쟁통 낙오됐을지도 모르는 막냇누이 생각도
 그렇게 헤어졌으나 행방을 모르는 어머니, 아버지 생각도
 고스란히 안고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 있는 집엘 가야지

 같이 생각했다. 집에 가야겠다고…….





가작

강재구 소령처럼



고등부 | 김윤주 영등포여자고등학교 2학년



나의 꿈은 육군 장교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과 함께 참여했던 보훈청주관의 나라 사랑 보훈 캠프에서 DMZ 통일 전망대, 제3땅굴, 천안함, 육군학생군사학교, 현충원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시설들을 견학하며 생긴 꿈이다.

이 꿈을 가지기 전 그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서 그칠뿐했던 마음은 육군 장교의 꿈을 가진 후 안보나 역사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초등학교 때 생긴 이 꿈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지금까지도 흔들림 없이 키워 나가고 있다.

중학교 2학년 때 방송반이었던 나는 학교행사가 있으면 시작 전 국민의례 방송을 하였는데 방송사고가 나지 않도록 긴장을 하느라 국민의례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고 방송 기계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너희 방송반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냐며 왜 국민의례를 하지 않냐고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셨고, 평소 애국심이 깊다고 생각했던 나는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이 일을 계기로 길에서 국민의례 소리가 흘러나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태극기를 찾거나 태극기가 보이지 않으면 소리가 들리는 쪽이라도 바라보며 국민의례를 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나를 보고 같이한다.

가작 / 고등부

현충원에 올 때면 눈 앞에 펼쳐진 많은 묘비를 보며 우리나라를 위해 이 많은 분이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순국하셨다는 생각에 마음이 숙연해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 이분들의 용기와 희생으로 우리나라가 있고 내가 사는 거니까.

육군 장교의 꿈을 키우며 육군사관학교 진학을 희망하고 육군사관학교를 견학하며 살신성인의 정신과 군인으로서 부대원들에 대한 책임으로 수류탄 투척훈련을 하는 중 한 병사가 실수로 수류탄이 중대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떨어지자 그 순간 몸으로 수류탄을 덮쳐 많은 중대원을 구하고 자신은 사망하신 강재구 소령에 대해 알게 되었고, 현재 나의 가장 존경하는 군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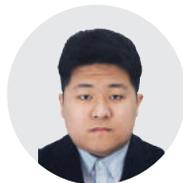
이제는 내 차례이다. 내가 위국헌신의 리더가 되어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





가작

소리없는 눈물



고등부 | 김도현 경문고등학교 3학년



물기 어린 촉촉한 행주로 난 낡은 묘비를 쓰다듬었다. 故 이천우 눈에 익은 이름이었다. 듣기로는 60년 만에 재회한 형제 중 한 명이라는 듯했다. 난 묘비 옆에 꽃힌 꽃들을 조심스레 정돈했다. 하지만 이 묘비는 솔직히 내가 치울 구석이 별로 없었다. 많은 관심을 받는 덕분일까, 결국 나는 두어 번의 손질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와 같이 봉사를 하러 온 여러 사람의 뒤통수가 눈에 띄었다. 그들이 담고 있는 묘비 역시 낡았지만, 새로이 정돈이 잘 되어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아무 곳에도 팽개치고는 난 주위를 서성거렸다.

우리가 봉사하던 구역을 벗어나자 한적함이 피부로 전해졌다. 조금 전과는 달리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묘비들은 무척이나 쓸쓸해 보였다. 난 무언가에 이끌리듯 천천히 그 묘비들로 다가갔다. 낡은 묘비들은 쓸쓸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몇몇 묘비들은 형식적으로라도 꽃혀 있어야 할 꽃조차 제대로 있지 않았다. 난 순간 이들의 이런 모습에 알 수 없는 책임감을 느꼈다. 결국, 난 그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 우리에게 맞힌 그 수많은 묘비 주인들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할 용기가 내게는 없었다. 부끄러운 실책을 숨기듯 난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지 오늘로써 벌써 며칠이 지났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그때의 풍경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묘비들. 난 그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컴퓨터를 켜, 인터넷을 뒤져보자, 역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글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 방관자와 같이 말로만 주절거릴 뿐이었다. 몇 분가량 더 찾아봐도 결과는 같았다.

아무도 조문해 오지 않는 묘비들은 대체로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뉘었다. 가족들이 일부러 찾아오지 않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이제 찾아올 인원이 남지 않았거나 어느 쪽이건 영꺼림칙했다. 침대에 뒹굴뒹굴하며 난 잠시 머릿속을 정리해 보았다. 그렇지만 몇 번을 생각해 답은 하나였다. 어느새 내 눈빛은 그때의 장소를 향하고 있었다.

평일이어서 그런지 묘비를 조문하러 온 사람의 수가 눈에 띄게 적었다. 물론 그럼에도 봉사활동 단체들의 모습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난 그들을 따라가다 그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몸을 틀었다.

그래, 그들의 눈물을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을 내가 닦으면 된다. 난 준비해온 행주를 조심스레 묘비 쪽에 가져댔다. 햇빛을 받은, 그 묘비들은 어쩐지 점점 밝아지고 있다는 착각을 듣게 했다. 화사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난 열심히 그들의 눈물을 훔쳐 주었다.





가작

모든 것이 시작이다



고등부 | 윤정연 파주 한민고등학교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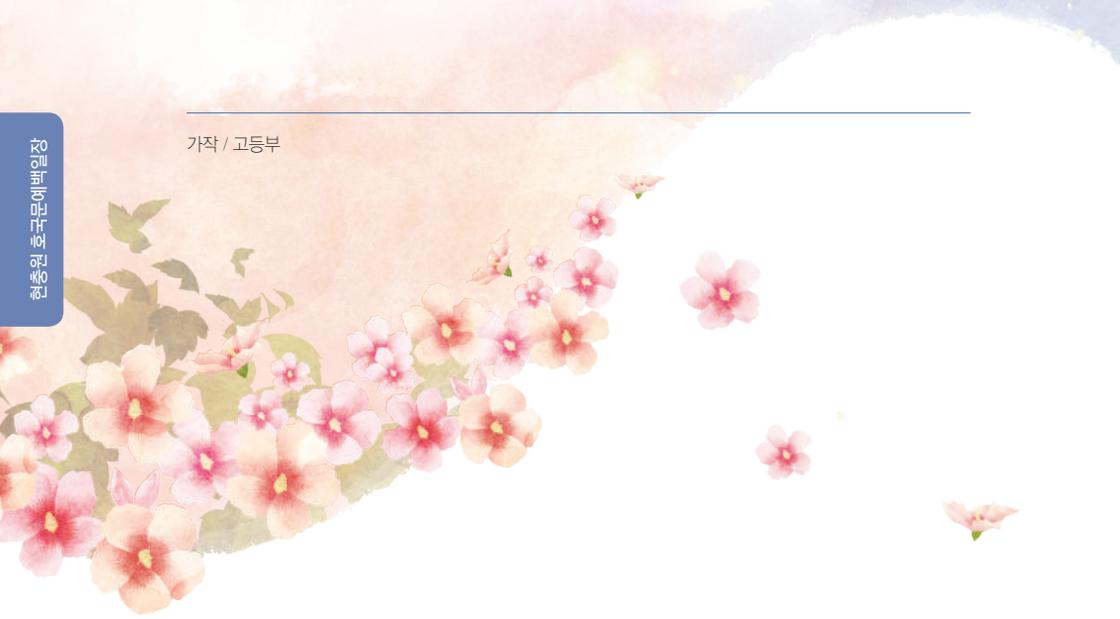


“만주에서 일본군과 싸울 때 지붕이 남아 비가 많이 새도 우리는 고치지 않았어. 이제 곧 독립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무엇하러 고치냐고” 영화 암살에 독립운동가 안옥운의 대사이다. 오직 독립된 나라를 꿈꾸며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하나만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았다. 종이에 손이 살짝 베어도 쓰라리고 아픈데, 몸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나라를 위해 희생한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의 오늘이 있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35년은 나라 잃은 우리에게 치욕의 시간이었다. 6·25전쟁은 우리에게 참혹한 시간이었다. 치욕과 참혹의 시간을 겪으며 수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나라’를 지켰다.

그러나 지금 일본은 틈만 나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우리의 사드 배치를 빌미로 문화적 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어떻게 지킨 나라인데 우리는 혼란의 가운데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자신의 목숨을 바쳐 지켜온 나라, 그분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하나 되는 나라를 위해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의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힘을 합친 그분들처럼 우리도 상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도닥여주고 받아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기적 행동이 만연한 요즘 우리 자신을 깊이 반성하고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나라를 위하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어려운 사람에게 손 한 번 내밀어 주는 것, 이 모두가 그분들의 희생정신을 본받아 실천하는 삶이라 생각한다.

나라의 중대한 일을 계획하거나 결정할 때 국가의 중책을 맡은 수장들은 가장 먼저 현충원에 찾아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참배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들이 주는 힘과 지혜가 참배하는 이의 마음을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일 것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은 잠들어 있지 않다. 오히려 현실에 취해 잠들어 있는 우리들의 의식을 깨워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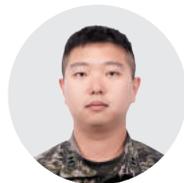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모든 시작의 힘과 지혜는 그분들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분들은 지금의 우리를 존재할 수 있게 해준 삶의 모태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가르쳐준 스승이다. 우리가 있게, 우리의 삶이 지속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희생으로 지켜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 일 년에 한 번이라도 기억이란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행복하다.





가작

군복은 수의다



일반부 | 서영석 인천광역시 응진군

우리 할머니
평소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하얀 한복이 곱디고운 것이란 것
이제는 안다.

선배들이 으레
장난삼아 말하던 내 옷의 무게가
사실 호국영령의 수만큼
무거운 것을 이제는 안다.

나라를 위해
한 줌의 재가 된 선배들에게
어린 내가 올릴 수 있던 것은
오직, 꽃 한 송이와 목념뿐이었다.

거창한 호국영령이란 말.
고결한 순국선열이란 말.
그들이 원했던 것은 감투가 아닌,
조국의 미래였다.

나는 조국의 얼이 되어 산화하신
그들의 마음을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군복의 무게로
조금이나마 이해하려 한다.

만일, 내가 싸우다 죽는다면
군복이 수의임을 알고
난 고이 그대로 불타오를 것이니

어머니
아들 위해 하얀 옷 준비 마시고
그냥 까만 재 될 군복 한 번만
더 곱게 다려주시랴오

그때는 몰랐던
내 수의의 무게가

어찌나 육중한지
이제는 안다.

이제는 알고 있어야 한다.





가작

이팝나무

일반부 | 이시현 광주광역시 북구

오월에 피어
유월에 지는 하얀 꽃
그때도 이렇게 눈부셨을까

그 얼굴이 너무 어려
비석마다 작고 새하얗다

말할 수 없는 새들은 노래한다

소금이 물에 녹듯
눈물이 하얗게 굳듯
상처 위를 걷게 된다
상처 위를 밟게 된다

현충원
밥풀 꽃이 피고
붉은 철쭉이 지는
이곳에 오면
계절도 얼굴도 언제나 눈부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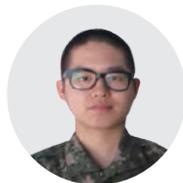
순결한 영혼 사이를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된다
말할 수 없는 새들처럼
나도 모르게 노래를 하게 된다





가작

나라 지켜줘서 고마워!

**일반부** | 유선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매번 출타할 때마다 나의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오늘만큼은 그 두근거림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왔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을 지도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알에서 태어나기 위한 신호일지도 모른다.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어쩔 수 없이 나라의 부름에 반강제로 끌려왔고 군 생활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저 시간만 낭비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내가 입대하기 전과 심지어는 입대를 하고서도 생각해왔던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군복을 입은 내가 다른 민간인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뚝뚝하게 가슴을 펴지 못했던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때의 내가 생각해 왔던 것은 지울 수도 없고 용서 받을 수도 없는 부끄러운 과거였다. 하지만 나는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로 다시 대한민국의 군인이 될 수 있었다. 내 곁에는 소중한 사람이 많았다. 가족들과 친구들,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이미 돌아가셨지만 내 가슴 속에 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까지. 그분들은 내가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학생이었고 나를,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누군가를 지키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불완전하게 입대를 하였고 진정한 군인의 자세를 하지 못한 채 군 생활을 하고 만 것이었다. 북한이 핵 도발을 매번 할수록 우리 군은 긴장을 풀 수가 없었다. 각종 훈련과 북의 도발에 대비해 전투 준비 태세를 하면서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와 페이스북 북에도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행여나 전방에 근무하는 지인이 다칠까 하나같이 걱정 의 목소리로 응원하고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고 여러 응원을 들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내 소중한 사람들을 내 손으로 지키고 싶다.’ 이 상하게도 두렵지가 않았다. 심지어 그 상황에서 용기까지 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편지를 받으면서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나라 지켜줘서 고마워 선우야.’ 그 후 나는 국립 현충원 백일장에 참가하기 위해 출타를 하였다. 아무래도 집이 아닌, 현충원에 가는 것이라서 마음이집이 단단해졌다. 국립 현충원에는 백일장 말고도 그림그리기 대회가 있어서 많은 어린이도 참가했다. 군복을 입은 내가 신기했었는지 말을 걸기도 했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경례도 해주기도 했다. 나는 나를 보고 해맑게 웃는 그 어린아이들이 좋았다. 내 덕에 있을 수 있는 웃음이라고 생각했다. 그 웃음을 꼭 지켜주고 싶었다. 나는 현충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경례를 했다. 그것은 인위적이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보라고 한 경례가 아니었다. 바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배 전우들께 하는 경례였다. 나는 태극기를 달고 이곳에 온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다. 나를 보면서, 우리 군인을 보면서 발 벗고 편히 자는 국민을 생각해본다. 그리고 현충관 앞에 있는 태극기를 바라보았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이제 부끄러운 군인이 아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군인도 더더욱 아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을 희생해서 수많은 웃음을 찾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목숨 걸고 싸운 선배 전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오늘은 나 혼자 왔지만, 이곳! 바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있는 현충원은 모든 군인이 와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번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군인이 될 수는 없다. 살아가면서 딱 21개월의 군 생활이 있다. 그것은 결코 짧거나 길지도 않다. 우리는 그 시간 동안 후회 없이 군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군 생활이 끝나다고 나라를 안 지켜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제야 우리는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시간에도 군 복무를 하는 모든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뿐더러 나라를 위해 희생당한 분들의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쓰러지면 안 될 것이다. 끝까지 나는 군인이고 멋진 국가의 대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군인의 마음을 담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무리를 하겠다. “나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피로 지켜낸 나라,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켜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가작

나의 반성문



일반부 | 김효주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화로운 2017년, 현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국을 위하여 선택이라는 것을 할 틈도 없이 죽음을 향하여 전진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분들 덕분에. 자신들의 목숨보다 후손들의 삶을, 나라의 미래를 우선 여기면서 모진 고통의 시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살다가 깊은 잠에 드신 분들에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진 적이 얼마나 될까? 한국사를 학생으로서 학교 시험을 위해 의무적으로 공부했었지 스스로 공부한 적이 없을뿐더러 지금은 살기도 바쁘는데 과거가 중요한가?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지 하며 관심을 가진 적도 없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현충원 백일장대회를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글만 대충 쓰다가 점심이나 먹고 와야지 하고 신청했었지만, 막상 현충원에 도착해서는 그럴 수 없었다. 수많은 하얀 묘비들이, 묘비 앞에서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를 반성하게 해 주었다. 묘비 밑에 잠들어 계신 분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도 감사드리고 죄송했지만 나는 그분들의 가족들께 정말 죄송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나라의 국민을 위해 자신의 가족을 죽음의 곁으로 보내줘야 했을 테니, 다시는 못 보지만 잡지 못했을 테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지, 나는 상상도 못 할 아픔이었을 것 같아서 죄송했다.

하지만 나를 더 죄송하게 했던 건 가족들의 표정이었다. 가슴 아픔이 얼마나 오래되었

가작 / 일반부

는지, 이제는 눈물도 나지 않는지, 담담하게 안부를 묻는 그 모습이 꼭 깨진 유리를 역지로 붙여 놓고 괜찮다고 하는 것 같았다. 슬프지만 괜찮다고 역지로 버티고 있어 보였다. 그렇게 그분들이 묘비 앞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역사에 대한 무지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과거가 없으면, 과거의 희생과 노력이 없었다면 현재도 미래도 없으리라는 것도 느꼈다.

그리고 心不在焉視而不見(심부재연시이불견)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다. 이 말의 뜻은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일을 행하여도 참된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기에 성과를 거두었고 그 성과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과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다짐했다.

하나, 국경일에 국기를 달자.

둘, 스스로 역사를 공부하자.

셋, 미래의 나의 자식들에게 올바른 역사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치자. 라고……,





가작

현충원으로 가는 길

**일반부** | 서가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장에서 돌아오며 지하철 4호선에 몸을 실습니다. 지하철은 한강 다리를 건너며 유리창을 통해 석양에 반짝이는 한강을 보여 줍니다. 하루 업무를 무사히 끝낸 안도감에 빠져 평화로이 저물어가는 저녁에 젖어 들려는 찰나입니다.

귀갓길을 함께 하는 직장 동료가 느닷없이 적막을 깨는 눈길을 보내며 묻습니다.

“현충원에 가 봤어요?”

그때 지하철은 한강을 막 건너 현충원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들어 온몸이 빨개지는 듯합니다. 미처 대답하지 못한 채 머뭇거립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목숨을 바쳐 우리나라를 지켜준 덕분인데…….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다니. 잘못했구나.’ 다음에 꼭 현충원에 가서 인사를 올려야겠다 다짐합니다.

하계휴가를 이용하여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갑니다. 부모님을 따라 도시에 살면서 기억에서 멀어졌지만, 다시 만나면 어떤 얼굴로 반겨줄까요. 어린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 집 또한 옛 모습 그대로일지 궁금합니다.

할머니 집으로 향하는 설레는 마음이 골목을 따라 흙길을 굽이져 달려갑니다. 대문 옆 돌담에 밧그레 붉은 뱀딸기가 달려있고 아이는 딸까 말까 망설입니다. 열린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면, 마당 한쪽 우물 옆에서 있는 배나무가 두레박으로 물을 떠 올리는 할머니의 머리 위로 그늘을 드리우고, 배나무 곁에는 무화과나무가 가지들 세웁니다. 마당 안쪽의 텃밭에서 알을 낳은 암탉이 산고의 고통과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소리를 울면, 집안 식구들은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름에는 집 뒤 대나무밭에서 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샤샤샤샤” 소리와 함께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더위를 식히고, 가을이 되어 지붕을 넘보며 키가 자란 감나무에 가지마다 장두감이 여물어 갑니다. 사촌 오

라버니가 감을 따기 시작하면 주위에 모여든 이들의 얼굴이 하늘을 향하고, 땅에 떨어지는 감을 바구니에 어서어서 담아 친척들과 나누는 기쁨을 누립니다.

어릴 때의 기억을 몰고 오니 어느덧 할머니 집에 도착합니다. 차를 길가에 세우고, ‘할머니, 저 왔습니다.’ 예전에 그랬듯이 큰 소리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인을 잃은 집은 부족한 손길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 줍니다. 골목의 흙길은 질퍽거리고 빗물이 고인 빈 통들이 쌓여 있습니다. 마당에는 사람 키만큼 무성히 자란 갈대와 잡초로 가득하여 안으로 들어서기조차 어렵습니다.

한참을 대문 밖에서 서성이다 보니, 뒷마루에 앉아 반상을 앞에 두고 홀로 진지를 들고 계시는 할머니의 환영이 보입니다. 아이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니 뒷마루에서 내려오시며 “아이고, 어떻게 혼자 내려왔냐.”며 반기십니다. “식사 못 했지. 찬은 별로 없지만, 함께 식사하자.” 밥상에는 국도 없이 젓갈, 김치 등 두서너 가지만 올라와 있습니다. 생선 젓갈을 하나 집으니 단단한 생선 살이 씹히며 비릿한 육즙과 함께 매콤하고 짭짤한 남도 특유의 맛이 번집니다. 할머니의 손맛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할머니, 저와 함께 서울 올라가요.” 말없이 고개만 내저으시는 할머니와 헤어지는 슬픔에 흐느끼며 절을 올립니다. 홀로 식사하시던 할머니의 밥상처럼, 쓸쓸히 변한 집을 뒤로하고 골목을 돌아 나옵니다.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차례입니다. 마을 읍내 꽃가게와 편의점을 찾아 카네이션, 막걸리, 오징어, 컵과 접시를 주섬주섬 챙깁니다. 할아버지가 계시는 묘소까지 가는 산길이 험합니다. 어렸을 때는 산 아래 코스모스가 핀 곳에서 놀며, 성묘를 간 어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함께 성묘를 갑니다.



산 입구에서부터 걸음걸음마다 앞을 가리는 나뭇가지와 풀들을 짓하며 조심히 올라갑니다. 고개를 올려 바라보니 할아버지 묘소가 보입니다. 봉분 위에 잡초와 고사리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어 우선 손으로 뽑아 정리합니다. 두더지가 구멍을 파 놓은 흔적도 보입니다. 주변 정리를 마치고, 카네이션 꽃, 술과 오징어를 올리고 절을 드린 후 할아버지를 마주합니다.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 마냥 서먹하고 낯섭니다. 6·25전쟁 때 돌아가셨기에 직접 뵈는 없지만, 빛바랜 사진 한 장에 남은 할아버지의 모습은 기억합니다. 할아버지를 뵈고 나니 안타까워집니다. 휴전 후 7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왜 이렇게 멀고 험한 곳에 홀로 누워 계셔야 하는지요? 그리고 비석에 새긴 이름도 없이 초야에 묻혀 계셔야 하는지요? 마음이 착잡해지면서 그동안 부모님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묘소 합장을 위해 고민하시던 마음이 십분 이해가 됩니다.

가슴에 돌을 얹어 놓은 듯 무거워진 마음을 안고 서울로 귀경합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누워 그동안 가족을 돌보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무심했음을 깨닫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어디에 정신이 팔렸었던 것일까요? 매일 처리해야 하는 업무와 지인들과 나누는 대화와 같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은 모두 앞으로만 가라 재촉하듯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바쁜 일상을 핑계 삼으며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함께 하지 못하고, 눈앞에 계시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잊고 지낸 것입니다. 저를 있게 한 근원이자 뿌리인데도 말입니다. 후회가 밀려듭니다. 사라져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에서 멀어진 할아버님과 할머니를 이제부터라도 가까이에서 보살펴 드려야겠습니다. 할아버님과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두 분을 합장해 드리고 싶어, 그 답을 찾기 위해 할머니와 지낸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과거의 시간으로 조금씩 조금씩 돌아가 봅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평상시와 다른 모습으로 머리를 정성 들여 빗으십니다. 일하실 때 입는 옷을 벗고, 빛깔이 고운 하얀 저고리와 긴 주름치마로 갈아입으시더니 같이 가자 하십니다. 도착한 곳에는 하얀 의자가 질서 정연히 놓여 있고, 엄숙하고 슬픈 음악이 흐릅니다. 자리에 앉아 문득 바라본 할머니의 얼굴이 너무 슬퍼 보여 감히 물어보지 못하지만,

6·25전쟁 중에 사망한 할아버지와 같은 호국 영령들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자리임을 어렵듯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국가 유공자라는 사실을 떠올린 후,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지 못해 미루어 왔던 일, 어머니를 국가 유공자 가족으로 등록해 드리려 합니다. 관련 부서 연락처를 찾아보는 중에, 현충원 홈페이지에서 안장 신청란을 보게 되어 떨 듯이 기쁩니다. ‘혹시 우리 할아버지도 현충원에 모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에 들뜨기도 하고, “아마도 현충원에 들어가실 자격이 되지 않을 거야.”라는 주위의 말에 의기소침하기도 합니다.

국립현충원과 국가보훈처 연락처를 찾았지만, 바로 전화를 걸지 못하고 통화하기를 주저합니다. 조부가 국가 유공자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어머니를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하고, 자격은 충분하지 않으면서 고인을 현충원으로 모시려는, 뻔뻔한 후손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못한 생각이 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조부께서 돌아가신 뒤 가세가 기운 집에서 어렵게 살았지만, 주위의 도움을 받으며 살 생각은 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이 벅속 깊이 박혀서일까요. 할아버님께서는 국가를 위해 온전히 몸과 마음을 다 바쳤음에도, 살아있는 저는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하고 간단한 문의조차 하지 못 합니다. 그만큼 국립현충원과 국가보훈처는 멀고도 높은 곳에 있는 듯합니다. 쭈뼛거리는 마음을 추스르며 어렵사리 전화를 거는데, 전화기 너머 들려오는 직원의 목소리가 따뜻하고 상냥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있지 않은데도 친절하게 안장 신청과 국가 유공자 가족 등록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줍니다. 우려는 어느덧 씻은 듯이 날아가고 더 이상 현충원과 보훈처는 멀고 어려운 곳이 아닙니다.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국립현충원 직원이 알려준 대로 할아버님 안장 절차를 밟기 위해, 전사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합니다. 몇 주 후 전사 확인서를 담은 봉투가 집에 도착하고, 봉투를 열어 살펴보니 할아버님 사망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며 ‘적과 교전 중 전사함’이라는 글귀에는 손이 바르르 떨립니다.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저는 ‘이제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느꼈을 고통과 이 과정을 지켜보며 할머니가 흘렸을 눈물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45살의 젊은 나이

에 생을 마감한 할아버지와 믿고 의지하는 남편을 잃고 8남매를 홀로 키우신 할머니의 고된 삶도 돌아봅니다.

여러 직원의 도움을 받으며 할아버님 안장 신청을 무사히 마치고, 한 달여간의 심사 기간이 남았는데, 막연한 기다림이 끝나고 마침내 할아버님에 대한 심사가 통과되어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의 얼굴이 한 분, 한 분 떠오릅니다. 할아버님과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가서 고마운 분들의 도움을 받아 현충원으로 모시게 되었음을 고하고 와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충원을 찾는 날은 조부모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죽음을 마주한 순간 흘렸을 피만큼, 이를 지켜보며 흘렸을 할머니의 눈물만큼 뜨거워진 분말을 유골함에 담아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분들의 뜨거워진 심장의 열기를 식히고 편안히 영면하실 수 있도록 살펴 주시겠지요.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할아버님과 할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현충원으로 가는 길은 보이지 않는 영령을 찾아가는 길인 동시에, 시대의 아픔을 비껴가지 못하고 피를 흘린 조부모님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의 뿌리에 대해 알아가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6·25전쟁을 겪지 않은 전후 세대로서 평소에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였지만, 결코 우리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과 평범한 일상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같은 분들이 젊은 시절에 바친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바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조부모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하여 낳은 아이, 그 아이의 아이, 또 그다음 아이의 아들과 딸들이 성장한 후에도 계속 현충원을 찾아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고, 이곳 현충원에서 할아버지와 같은 또 다른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가작

나에게 현충원이란?



일반부 | 양태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나에게 현충원이란 무엇이 가장 떠오르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나라를 위해 삶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라고 말할 하겠지만, 사실 현충원 하면 떠오르는 나의 첫인상은 김밥과 11살 시절 짝사랑했던 우리 반 여학생이었다.

그 친구는 유난히 김밥을 좋아했지만, 멀미가 심해 초등학교 시절 버스를 타고 오면서 멀미를 무척 심하게 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정문 옆 담벼락 밑에서 멀미를 했던 그 여학생이 생각나곤 한다. 벌써 37년이 지난 시절이지만.....

현충원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은 충성분수대로서 은은한 하늘색 동상이 웬지 가슴 뭉클하게 사람을 경건하게 하는 마력을 지닌 듯 고개를 숙이게 한다. 각양각색의 차림과 얼굴의 모습에서 이 나라를 지키다 몸과 마음을 다 바치신 호국영령의 혼이 깃들어 있어서가 아닐까?

꽃시계를 중심으로 현충문 뒤에는 가장 높은 현충탑이 자리해 있다. 위패보안관이 현충탑에 안장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분이 많을까 묻고 싶다. 나도 얼마 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선을 꿈꾸는 분들과 높은 분들이 꼭 들러서 인사하는 곳이기에 방송에도 자주 비추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 뒤로 묘역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애국지사묘역, 대통령묘역, 충훈당, 유공자묘역 등이 잘 정리 정돈된 잔디 조성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현충원에 예전에는 자주 오지 못하다가 최근에는 1달에 2번 정도는 꼭 오는 듯하다. 도심에 있고 교통도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해지고 깨끗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과 함께하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몇 배가 되니 나도 애국자인가 하는 내 만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일반 산에 가기보다도 공원보다도 현충원이 마음 편하다.

이곳을 찾는 분들이 모두 애국자로 보이기도 하고 학생들을 보노라면 나라의 장래도 밝아 보인다.

이곳에는 유품전시관도 있는데 그곳에 가면 그 시절 나라를 위해 열심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신 분들의 유품들을 볼 수 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편안히 생활하고 있다. 자유롭게 공부하고 생활하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웠던 때가 외국에 나갔을 때라 생각된다. 집 나가 봐야 집 중요한 것을 안다고 외국 나가 보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맙고 좋은 나라였는지 새삼 알게 되었다.

우리의 음식, 화폐,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애국가가 그리 듣기 좋고 가슴 뭉클하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게 되는지 외국에서 알게 되었을 때 그간 너무 고마웠던 이 나라를 몰라서 죄송스러웠다. 그때 그 심정을 잊지 않기 위해서인지 이곳을 자주 찾게 되는가 보다. 현충원 구석구석 사랑스럽지 아니한 곳이 없다.

나는 한국인이다. 자랑스러운 내 나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님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살 것이다. 내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가장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사랑할 것이다.

오늘따라 날씨가 더 좋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현충원에 와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가작

나는 군인을 사랑한다

일반부 | 이경선 경기도 양평군



내 집은 물 맑고 공기 좋은 양수리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위해 조그만 마을버스를 타고 대성리까지 가는데 대성리까지 가는 길에는 두 개의 부대가 있다. 나는 대성리로 가는 그 시골길을 참으로 좋아한다. 날이 좋아지면 행군하는 군인들을, 월요일 오전이면 신병 운전 교육 차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행군하는 군인들을 보았을 때 끝도 없이 펼쳐진 행렬이 너무나도 멋있고 신기하여 눈을 땔 수 없었다. 비가 주룩주룩 오던 어느 날에 보았던 행군 행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장관이었다. 그건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았다. 지금도 여전히 행군하는 군인들을 보면 행렬의 맨 끝이 사라질 때까지 모두 눈에 담아낸다. 군 차량은 너무도 멋있어 매번 꼭 타고 말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한다. 내 학교는 춘천에 있는데 춘천 주변에는 군부대가 참 많아 민간인 만큼이나 군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가끔 하룻길에는 아직 명찰을 달지 않은 많은 훈련병을 보기도 하며 하나의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가슴에 새긴 무거운 군장을 멘 장교들을 보기도 한다. 그 어떤 비싼 옷보다 멋있는 군복을 입고 저마다 무거운 군장을 멘 군인들을 볼 때면 나는 나의 두

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빼앗기고 만다. 그 무엇이 이토록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걸까.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같이 나를 끌어당긴다.

군인을 좋아하기 시작한 건 2년 전 막 대학생이 되었던 스무 살 때였다. 일요일 주말 저녁 가족들과 둘러앉아 보던 MBC의 예능 프로그램인 ‘진짜 사나이’가 그 계기였다. 군복을 입고 훈련생들을 지휘하는 교관들의 카리스마에 가슴이 뛰었다. 군복을 입은 군인이 멋있었고 훈련생들을 압도하는 그 카리스마가 좋았다. 그로부터 일 년이란 시간이 흐르니 군인을 좋아하는 마음은 군대에서 어떠한 훈련을 받는지, 군대에서의 생활은 어떠한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변했고 또 한 번의 일 년이 지나니 군대에 대한 궁금증은 군인이 되고 싶은 꿈으로 발전하였다. 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실 나는 주저했다. 체력도 좋지 않고 운동하고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서 검은 머리카락이 온통 새하얗졌을 때 군인이 되고 싶던 젊은 시절의 꿈이 떠오른다면 한 번뿐인 인생, 도전해보지 않은 것에 후회가 남을 것 같다는 생각 말이다! 후회라는 단어가 머리에 스치자 주저했던 모든 것이 나에게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바뀌었다. 순수하게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등하곳 길에 늘 군인을 볼 수 있는 일상은 군인을 좋아하는 나에게도 또 하나의 축복인 것이다.

요즘 나의 사진첩을 보면 관심사가 무엇인지 단번에 알 수 있다. 전쟁기념관부터 현충원, 강릉 통일공원까지. 얼마 전 16년 만에 현충원을 다시 찾았다. 다시 찾은 현충원은 참으로 잔잔하니 고요했다. 고귀한 희생의 이름 하나하나를 눈에 담으며 묘지를 올랐다. 사병부터 장교까지 이토록 묘지가 많았던가. 묘지 제일 높은 곳에서 서서 따스한 햇볕과 살랑이는 바람에 눈을 감아보았다. 눈을 감자 이토록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붉은 피로 물 들고 국군의 함성과 귀를 찌르는 총탄과 포탄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뜨거운 피를 뿜으며 눈을 감았을 호국영령들을 생각하니 어느새 두 눈에는 슬픔의 눈물이 고였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남아있는 가족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이다. 현충원을 방문했을 당시 한 할아버지를 만났었다. 어디서 왔냐고 먼저 물어봐 주셨던 할아버지는 나에게 사병묘지와 장군묘지가 다르게 생김을 설명해주시며 채명신 장군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셨다. 채명신 장군에 대해 제일 처음 들었던 이야기는 인



간애가 넘치시는 분이라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부하들과 함께 묻히고 싶었던 채명신 장군은 장군 최초로 사병묘역에 안장되었다. 참된 리더란 무엇일까? 내 밑의 사람들을 내 목숨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이가 아닐까. 채명신 장군의 이야기는 내게 리더로써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물음표를 던져주었다.

현충원 2 묘역 앞의 벤치에 앉아 아버지와 짧은 담소를 나누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6·25전쟁의 전사자로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셨다고 한다. 자신은 전쟁고아라고 아버지의 얼굴을 알지 못한다고 담담히 말씀하시던 그 모습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우리에게 그저 역사책의 한 페이지가 그분들에게는 여전히 아픔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던 순간이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야만 했을까. 그들의 충성과 숭고한 희생은 오늘날 누가 알아줄 것인가. 적군과 맞서 싸운 그 찬란했던 용기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존경을 표한다.

군인의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부사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이 있었다. 취업이 어려운 요즘 시대에 군인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장을 위해서 군인이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한 나라와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군인이 취업 해결의 목적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던가! 현충원을 방문한 후 내 꿈이 지닌 무게를 알게 되었다. 군인이 된다는 건 나의 청춘과 목숨을 기꺼이 내려놓고 내 조국과 사랑하는 가족의 목숨을 지니는 것.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내가 가진 꿈의 무게였다.

누군가 내게 군인을 좋아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내 대답은 하나이다. 좋아하는데 이유가 없는 것. 그것이 내가 군인을 좋아하는 이유이다. 일자리를 위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아닌 그저 마음이 움직이기에 눈이 먼저, 가슴이 먼저 반응하기에 나는 군인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내 꿈은 대한민국 군인이다. 67년 전 뜨거운 피로 붉게 물들었던 내 조국의 군복을 입고 자랑스러운 그대들이 걸었던 이 길을 나 또한 영광스럽게 걸어가겠다고 오른팔에는 태극기를 가슴에는 파란 명찰을 달고 경례를 올리는 그 날까지 나는 군인을 사랑한다.



특별상 | 서울교육감상

호국영령에 대한 예우



초등부 | 김세현 서울영본초등학교 4학년

나는 우리 반 학급 문고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라는 6·25전쟁을 다룬 책을 보았다. 그 책에 내용은 형과 동생이 나오는데, 6·25전쟁 때문에 같이 싸우게 된다. 마지막에 형이 동생을 구하고, 결국 형은 북한 총알에 연속으로 맞아서 죽는다. 그리고 동생은 60년 후, 형에 유골을 찾고, 슬퍼하면서, 울었다.

이 책에 나오는 동생은 그나마 형의 유골이라도 찾았지만, 아직도 유골을 찾지 못한 유가족이 많다. 그분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인데 유골을 찾아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다. 가족을 잃은 것도 슬픈데, 유골까지 못 찾으면 너무나 슬플 것 같다.

지금 세월호도 3년이 지났지만, 모두의 시신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나라를 위해 몸 바치신 분들의 유골을 찾는 일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미국은 100년이 지나도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꼭 유골을 찾아 준다고 한다. 북한에 남아있는 미군들 유골도 미국 정부는 찾아 주었다. 우리나라도 북한과 협상해서, 남아있는 유골을 찾아와야 한다.

우리 증조할아버지도 6·25전쟁 때 상처를 입으셔서 한평생 불편한 몸으로 사셨다. 아무리 우리나라를 위해서라지만 정말 고통스러웠던 거 같다. 이런 분들을 제대로 예우해 주지 않으면 또다시 한반도 전쟁이 날 때 아무도 희생하려 하지 않을 거 같다. 살아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잘 돌봐드리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유골을 모두 찾아서 현충원에 안치시켜야 한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이 봄날을 내가 만끽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그분들에 희생 덕분이다. 오늘 그분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본다.



특별상 | 서울교육감상

현충원



초등부 | 고대원 서울봉천초등학교 3학년

현충원에 오니
 무궁화가 생각난다
 기분 좋은 바람이 분다
 현충원 곳곳에 풀 향이
 은은하게 퍼진다
 이 냄새를 깊게 들이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나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개미들이 나를 반긴다
 모두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운다

정말 오늘만은
 현충원의 자연과 하나 되는 것 같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진다
 하늘은 어찌나 높은지
 수련 잎을 타고 새와 함께 날아가고 싶다
 시원한 바람에 흔들거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듣기 좋다





특별상 | 경기교육감상

문고 싶은 말



정호연
홍주민
에베린
전

초등부 | 김예림 김포 걸포초등학교 5학년

외롭지 않으세요?
 무섭진 않았나요?
 상처가 아프진 않았나요?
 피를 많이 흘려도 싸울 수 있었나요?
 바닷물이 차갑지는 않았나요?
 불이 뜨겁진 않았나요?
 목숨이 다할 때 엄마의 따뜻한 품이
 그립진 않았나요?
 부모님께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이 있나요?
 그 순간 누가 제일 생각났나요?
 잠들어 있는 이곳이 마음에 드시나요?
 다음 생에 태어나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이 당신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감사해요,
 이 땅 위에 살 수 있게 해주셔서요
 당신의 고귀한 희생이 결코
 헛됨이 아님을 아실 거라 믿어요

 나라면 어땠을까? 하는
 물음표를 가져보아요
 전 겁이 많은 아이거든요
 그 순간이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용기가 생긴다고요?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잠들어 있는 이곳은
 모든 사람의 안식처이기도 해요





특별상 | 인천교육감상

대한민국 만세, 어린이 만세!



초등부 | 조지훈 서울대모초등학교 1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처음 학교에 입학하게 된 대모초등학교 1학년 조지훈입니다. 저는 아직 어리지만, 어린이집에서나 집에서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교실 입구에 있는 도서관이 저에게는 아주 좋은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 앞에 붙어있는 호국 문예 백일장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에게 보여 드리고 호국 문예가 뭐냐고 여쭙봤습니다. 호국 문예가 뭘까? 현충원은 어디일까? 엄마와 함께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집에 있는 위인전 중에서 김구,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을 골라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 네 권을 읽는 동안 '우와'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왔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모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을까? 왜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혔을까? 그분들이 감옥으로 잡혀갈 때 왜 다른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았을까? 내가 그분들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분들이 그 일을 안 하셨다면 아직 살아계셨을까? 아직 살아계셨다면 그분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이 지금 있을 수 있었을까? 끝도 없는 생각들이 줄줄이 비엔나소시지처럼 머릿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다음은 현충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순국선열들이 누워 계신 곳,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 계신 곳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충원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묘지와 작은 무덤들로 둘러싸인 기념관일 것 같습니다. 오늘 직접 현충원을 방문해보니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어마어마한 느낌과 웬지 모르게 이곳에서는 장난을 치거나 떠들면 혼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 있는 '충혼승천상'은 난생처음 보는 멋있는 동상이었고 어딘지 모르게 슬픈 느낌

도 들었습니다. 내 상상 속에 있던 작은 현충원은 다리가 아플 만큼 걸어도 걸어도 넓은 멋진 곳이었습니다.

현충원에 묻혀 계신 모든 분은 아마도 내가 읽은 책 속의 위인들처럼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지낼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놀이동산도 갈 수 있다고 엄마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감사한 분들이구나’, ‘친구들에게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태극기를 가진 대한민국의 어린이인 내가 너무나 자랑스롭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나 위인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궁금증이 생겨서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서 책을 읽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고마우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현충원의 멋진 모습을 이야기해주어야겠습니다.

언제나 나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든든히 지켜주는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스러운 하루였습니다.





특별상 | 한국문인협회이사장상

비밀의 낙원

초등부 | 문정원 서울흑석초등학교 2학년

내게 현충원이란 비밀의 낙원 같다. 왜냐하면, 돛자리를 펴고 누워있으면, 산들바람이 불어와 내 코끝을 간질인다. 그러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의 낙원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그래서 현충원이 비밀의 낙원 같다.

할아버지와 아빠, 동생과 현충원에 왔을 때 아빠보다도 훨씬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의 묘비를 보니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무척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도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고 현충원에 묻히면 좋겠다.

아빠와 함께 박물관에 가보니, 이름 없는 묘비가 있다고 한다. 나는 그 묘비가 가족을 못 찾을까 봐, 걱정되었는데, 다행히 신분이 밝혀지고 가족을 찾아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나는 목숨보다 나라를 더 소중히 여기신 분들이 하늘에서 밝게 미소 지으실 거라고 믿는다. 나에게 현충원이 비밀의 낙원이듯이, 우리나라를 지키려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천국이 비밀의 낙원이면 좋겠다.





특별상 | 육군참모총장상

얼마나 아팠을까



초등부 | 정하윤 서울정릉초등학교 2학년

내 이빨 빠진 날
하늘에 별들도 빠졌다
반짝반짝

내 이빨 빠진 날
그냥그냥 아팠다
국군 할아버지들은
얼마나 아팠을까
총을 맞았을 때
피를 흘렸을 때

국군 할아버지들은
별이 되어
지금도 반짝반짝





특별상 | 해군참모총장상

나에게 현충원이란? 할아버지, 어디 계신가요...



초등부 | 박소연 서울내발산초등학교 6학년

나에게 현충원이란, 증조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소중한 곳이자 역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곳이다.

외증조할아버지께서는 6·25전쟁에 참전하셨다. 그때는 외할아버지께서 3살이셨다고 한다. 그 이후로 증조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고, 우리 가족 중 증조할아버지의 얼굴을 아시는 분은 증조할머니밖에 없었다고 한다.

2013년, 내가 2학년 때 증조할머니께서 88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그 이후 증조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부부 위패 4번에 모셔져 계신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서울에 오실 때나 가족이 다 같이 모였을 때 현충원에 증조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러 온다.

아직 증조할아버지 시신을 찾지 못해서 외할아버지와 엄마께서 DNA 검사를 해놓으셨다고 한다. 빨리 증조할아버지의 시신을 찾아 위패가 아닌 전자자 묘역에서 찾아 뵙고 싶다.

또한, 현충원은 역사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곳이자 6·25 참전 용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곳, 그리고 나라에 대한 사랑을 더욱 크게 가질 수 있는 곳이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통일을 위해 싸우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현충원에 오면 후손, 즉 우리를 위해 싸우신 분들이 계셔서 앞으로 내가 더욱더 노력해서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항상 든다. 그래서 현충원에 다녀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감사한 마음이 마음을 채운다. 오늘도 그 느낌을 느끼고 있다.

통일, 우리나라 병사분들이 열심히 싸우셨던 이유 중 하나일 것 같다. 지금 사회 시간에 강화도 조약을 배우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해 일제 강점기, 6·25전

쟁까지 이 상황들이 일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괜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일은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 중이다. 언제쯤 우리는 전쟁의 불안함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우리는 현충원에 와서 감사한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 평소에도 나라를 사랑해야 하겠지만, 현충원에 와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크게 키우고, 감사한 마음과 나의 존재에 대한 소중함도 함께 느끼고, 가져갔으면 좋겠다.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 그리고 나의 후손들이 현충원을 방문하여 내가 느낀 것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6·25전쟁을 생각하고, 느끼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생각하며 앞으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일이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하였으면 좋겠다. 또, 아직 우리 증조할아버지처럼 시신을 찾지 못한 분들도 빨리 시신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특별상 | 공군참모총장상

감사한 마음을 담아



초등부 | 김시윤 서울송덕초등학교 4학년



나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처음 접한 건 유치원 때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책을 하나 둘 읽다 보니 일본을 싫어하게 되었다. 어느 날 9시 뉴스를 보는데 위안부 소녀상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일본은 위안부는 '우리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원해서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욕이 나올 것만 같은 화가 치솟았다. 그 후로 나는 인터넷에 '위안부'라고 검색창에 쳐서 알아보고 유튜브에서 위안부 관련 애니메이션도 보았다. 역사박물관, 미술관도 관람도 해 보고 말이다.

이 일제강점기 말고도 6·25전쟁, 2002년 때 일어난 제2연평해전 등등이 있다. 이때 돌아가시거나 다친 분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생을 열심히 살아 돌아가신 분들 남은 인생 아깝지 않게 할 거라고 다짐을 하기도 한다. 또 가끔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말이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시험문제를 틀려 눈물이 나올 때 나라 잃은 슬픔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슬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다. 나는 그 슬픔은 어떤 슬픔인지 궁금해 이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의자에 앉아 생각만 했다.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각이 났다. 어떤 슬픔인지 말이다. 나는 부모님을 잃었을 때의 슬픔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내가 어른이 되었는데 언니한테 전화가 왔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전화

였다.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너무 슬펐다. 꿈에서 깨니 나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자고 있었다. 그 꿈을 꾸 이후로 나는 부모님께 효도도 많이 하게 되었다.

나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은 수도 없이 많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북한보다 잘 살 수 있었고, 우리나라를 일본에서 되찾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순국선열 즉 호국영령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교실에 있는 의자, 책상은 지금보다 더 작았고, 그 많은 학생에게 급식을 먹일 수도 없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나라에 돈이 없어서였다.

나는 순국선열 중 유관순과 안중근 열사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유관순 열사는 어린 나이에 19살에 삼일운동에 참여했다고 한다. 지금 같으며 한창 수능 준비하고 그럴 때 인데 말이다.

안중근 열사는 용기를 내서 손가락을 잘라 나오는 피로 글씨를 쓰고 손도장도 찍었다고 한다. 나도 어느 정도의 용기는 있지만, 손가락을 자를 정도의 용기는 있지 않다. 나는 안중근이 한국의 원수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쏘 죽이는 장면이 제일 통쾌했다. 하지만 일본 경찰들은 자기 나라가 무슨 나쁜 일을 한 지도 모르고 안중근을 뒤통수 감옥으로 끌고 가 이토 히로부미를 왜 죽였는지 물었다. 안중근은 죄를 조목조목 짚는 모습도 멋있었다. 멍청한 일본놈은 안중근 열사를 사형시켰다. 멍청한 일본놈들!

이외에도 또 다른 위인들이 있다. 순국선열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내가 박물관을 많이 돌아다니며 많은 것을 듣고, 보면서 느낀 생각과 느낌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닌 여러 명이라는 것과 이분들처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앞으로 부모님께 효도도 많이 하고 나라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어느 날, 내가 헬크 괴력이 생겨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놈들을 혼내줄 꿈을 자주 꾀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일본사람들을 부려 먹을 정도의 힘과 지혜를 얻을 것이다.

오늘은 날씨도 안 좋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 글을 쓴 나에게 칭찬을 한다. 오늘의 이 생각과 다짐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노력하는 사람,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특별상 | 해병대사령관상

나에게 현충원이란



초등부 | 이서은 서울신은초등학교 5학년

사실 나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처음 왔다. 들어오자마자 장난을 치거나 요란한 사람이 없었다. 복장도 화려하게 입고 오는 사람도 전혀 없었다. 나도 저절로 조용해졌다. 나는 나라를 위해 싸우신 분들을 보면 대단하시다는 생각부터 든다.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라고 해도 힘든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다른 사람, 후손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은 힘든 것이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한다. 간혹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들은 말만 해도 적지 않았다. 내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한 번 물어본 적이 있다. 왜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를 더 좋아하느냐고.

이유는 나라의 면적, 돈이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나라의 재산, 면적보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그 이유는 나라를 위해 삶을 바치신 분들 덕분이다. 그분들이 자신의 목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책임감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일본어를 쓰고 있을지 모른다. 아니, 지금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 나라의 면적이 모두 같고, 생산하는 물건도, 재산도 똑같다면. 역사도 똑같았으면 세상이 아름다울 수 없다. 모두 다 다른 나라이기에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없어선 안 될 곳이다. 순국선열 하신 분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아무 곳이나 묻혀 계시다면, 다른 사람들은 감사한 것을 모르고, 잊힐 것이다. 그렇게 되면 또, 사람들이 나라의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역사책을 잘 읽지 않는데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열심히 읽어야겠다. 나에게 현충원은 나를 반성하고, 돌아보게 하고, 선생님같이 조언해 주는 곳인 것 같기도 하다.

내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목숨과 신뢰 중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고를지 궁금하기도 하다. 그 죽음이 조용히 안 아프게 죽는 것도 아니고, 고문을 겪어야 하는데

나라면 못할 것도 같다. 사극에서 보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비밀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그때마다 나쁘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막상 그 상황에 부딪치면 나도 그 사람만큼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다.

4학년 때 나는 서대문형무소에 갔을 때 보기만 해도 끔찍했다. 뽕죽하고, 좁고 갑갑해 보였다. 손톱 밑을 찌르고, 가시가 있는 상자에 넣고 흔들고, 심지어 밥은 쥐 같은 것을 잡아먹는 고문을 당하고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고문을 겪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용기와 인내의 힘이 필요하다. 나는 항상 그런 분들을 존경할 것이다. 바로 '가치 있게 사신 분'이다.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이 말은 쉬워도 실천하려면 매우 힘들다. 포기하려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나쁘게 오래 산 사람보다 조금 살고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은 큰 차이가 난다. 나쁘게 오래 산 사람은 사람들에게 욕을 들으며 살아갈 것이고, 조금 살고 가치 있게 산 사람은 존경받고, 행복하고,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남을 돕는 아이와 남을 해치는 어른이다.

나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와서 많은 것을 느꼈다. “나는 커서 여기에 묻히신 분들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순국선열 한 분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가져야겠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라고 말하고 싶다.





특별상 | 서울교육감상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 현충원

중학부 | 송서연 송의여자중학교 3학년

대부분 청소년에게 현충원 하면 무엇이 떠오르냐고 물어본다면 사생 대회를 하는 곳 또는 봉사활동 하는 곳이라고 말할 것이다. 나도 이 대회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이 강했다. 그러나 신청을 하고 나서부터 ‘글을 쓰려면 뭘가는 알아야 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현충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였다. 현충원을 자세히 둘러보기도 하였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비석이 있었다. 너무 많아서 다 보기 힘들 정도였다. 이 비석은 6·25 때 우리나라를 위해 힘쓰신 분들을 기념하고 있다고 하는데, 6·25 때는 자기 생계유지도 어려웠다고 들었다. 그런 상황에서 나라를 위해 한목숨 바치겠다는 생각을 결심하기는 무척 고된 일이었을 게 분명하다. 어쩌면 그것은 나라를 위해 가족을 배신하는 일일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을 깊게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 죄송할 따름이었다. 그분들은 오직 나라와 후대의 평화와 후손들의 안정만 보고 달려오신 것인데 말이다. 그렇다고 내가 이분들을 본받아서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겠다고 장담은 못 하겠다.

하지만 이분들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봉사 정신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분들을 마음 깊이 새기고 나면 혹시 모른다. 나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라를 위한 일을 할지 말이다. 아니, 하고 싶어졌다. 이렇게 많은 분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헌신하셨는데 나라고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현충원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에 대해 찾아보고 싶어졌다.

또 오늘 이 대회를 신청해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전통의 풍물놀이를 볼 수 있었다. 예전에 사생대회 때문에 왔을 때도 본 적이 있었다. 평소에 자주 접해보지 않아서 집중해서 봤는데 웬만한 가요를 듣는 것보다 흥이 나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이 있다는 것이 뿌듯했고 해외에 널리 알리고 싶기도 했다. 나한테서 이러한 생각이 나오다니 놀라울 따름이었다.

마지막으로, 항상 현충원에 오면 드는 생각이 있다. 바로 경치와 풍경이 아름답다는 것이다. 가운데 호수 중심으로 주위에 있는 나무들과 벤치의 조합은 잘 어우러진다. 계속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서가 풍부해지는 듯하고, 옛 생각에 잠기는 듯하다. 이 속에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면 더욱 돈독해지는 느낌이다. 이렇듯 현충원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나라의 역사와 그 역사를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 위인에 대해 알려준다.

그리고 여러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을 사람들에게 전달시켜주기도 한다. 아름다운 경치도 준다.

따라서 현충원은 우리나라의 과거를 현재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이다. 이런 현충원을 일 년에 한, 두 번 일이 있을 때만 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가족들과 함께 자주 찾아올 것이다.





특별상 | 경기교육감상

나에게 현충원이란?



중학부 | 김영진 부산 다선중학교 1학년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을 생각하며 현충원에 들어서니 입구부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학교에서 아무 생각 없이 글짓기나 그림 등을 하었을 땐 대충 하곤 했는데 우연히 사촌 형이 직업군인이라 가끔 군대 이야기도 해주곤 하는데 현충원에서 뜻깊은 행사가 있다고 하여 접수를 하고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현충원에 와보니 갑자기 애국심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옛날 장병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였는지 짐작되었습니다.

많은 장병의 희생이 있기에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현충일을 그냥 공휴일이라 철없이 놀기만 하였던 내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젠 아침에 태극기를 달고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쓴 애국자들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애국자들을 생각하며 묵념을 하여야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위해 하루빨리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더 열심히 공부하여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 우리나라를 통일하는데 주인공이 되어야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친구들과 한 번 더 현충원에 와보고 싶습니다.



특별상 | 인천교육감상

현충원의 하늘을 기억한다



중학부 | 김예은 용마중학교 3학년

요즘 부쩍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이나 정치, 경제, 역사에 관해서 관심이 커졌다. 사실 평소에 중학생의 신분으로 살면서 나라와 역사에는 관심도 흥미도 없었다. 그저 어른들의 몫이며 일이라고만 생각한 것이다. 학교에서 틈틈이 배우는 한국사도 시험공부 일부일 뿐이고 한꺼번에 외운 후 까먹어버리기 일쑤였다. 가슴이 아려오는 6·25전쟁이나 독립운동가들의 고통을 들어도 별 감흥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 일어난 광화문에서의 촛불 집회를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역사를 알아야만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학생들의 역사 인식이 매우 약하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다. 3·1절이 언제이고 무슨 의미이며, 광주민주화운동이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다. 또, 국가기념일을 쉬는 날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죽기 살기로 독립운동을 하고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치르며 만들어낸 역사를 이렇게나 몰라서 되겠는가. 우리같이 정치인도 아닌 작은 국민이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알고 권리를 찾는 것. 그런 일을 하는 게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 아닐까.

3월 초, 나는 학교 친구들과 현충원으로 봉사활동을 갔다. 비석을 닦는 활동이었는데 그때 내가 본 현충원은 무겁고 슬펐다. 비석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고 서늘한 바람이 맴돌았다. 비석을 닦으면서 적혀 있는 이름들을 볼 때마다 전쟁을 어렵게 느낄 수 있었다. 외로운 비석들이 서 있는 곳, 그것이 내가 현충원에 처음 왔을 때 들었던 생각이다.

5월 13일에 다시 찾은 현충원은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햇빛이 살포시 얼굴에 내려왔고 무언가 따뜻했다. 차갑고 어두운 분위기라고만 생각했던 현충원에는 푹쭈그러는 청솔모도 있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았다. 연둣빛의 나무 위에서 새가 지저귀

었다. 거리에는 노란 병아리 같은 유치원생들부터 멋진 모자를 쓴 할아버지까지, 많은 사람이 지나다녔다.

현충원에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데 어디서인가 노랫소리가 들렸다.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지 녘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이름 모를 비목이여……. 대중가요와는 조금 다르고 가사가 애절하고 슬퍼서 검색해보니, ‘비목’이라는 가곡이었다. 비목이란 죽은 이의 신원 따위를 새겨 무덤 앞에 세우는, 나무로 만든 비를 뜻한다. 6·25전쟁 당시에는 전쟁 도중에 시체를 완벽하게 매장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돌로 간단하게 무덤을 만든 후에 비목을 세웠다고 한다. 비목과 돌무덤은 못 찾은 것들이 훨씬 많다. 청춘을 내던진 전쟁에서 시체를 찾지도 못한 것이다. 그 가족들이 겪을 슬픔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가족을 바친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수고는 감히 우리가 측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이번 현충일에는 현충원에 한 번 들려보자. 현충원에 내리쬐는 햇살과 때로는 아픔이 깃든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차분하게 그들을 묵념해야 한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나라를 위해 모든 걸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사람들이 자꾸만 잊는 것 같다. 국가 기념일을 설 수 있는 날, 빨간 날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 편안한 생활과 희생하는 삶을 바친 그들을 기억하자.

현충원의 하늘은 한없이 푸르다. 구름이 포근하게 현충원을 덮는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얼굴들이, 떠오른다.





특별상 | 한국문인협회이사장상

영원한 호국정신



중학부 | 김서준 원촌중학교 1학년



현대사회의 호국정신

6·25전쟁의 아픔

나라를 빼긴 아픔

진정한 민주주의가 찾아오다

우리나라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탄핵으로 국민의 나라 신뢰도가 떨어졌다. 대선도 마무리되었고 새 대통령도 취임했으니, 국민은 다시 뿔뿔 뿔뿔 멩쳐 옛 영광을 재현해야 한다. 나라가 분열되는 일이 다시는 생기면 안 된다. 새 정부와 국민은 우리 조상들의 호국정신을 계승하여 나라 성장의 밑거름을 깔아놓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큰 아픔이 있다.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갈라진 일은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로 남게 되었다. 나라의 내부와 외부 모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지만, 우리는 그 일을 이겨내지 않았는가? 결국, 거짓말 같은 도약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희생되고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매우 많다. 우리나라를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해준 장본인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몸까지 희생한 분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텃밭에 너무 안주하고 있어 새로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과거의 기적을 자랑스럽게 기억하는 것처럼 미래의 우리도 현재

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주인공이고, 누군가 나서서 이 나라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헛된 희망은 품지 말자. 내가 먼저 나라를 소중하게 여겨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면 이것이 바로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새로운 시대가 탄생하게 된다.

현대 사회는 공동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에 치중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모두가 잘 살아야지 나도 잘살게 된다는 인식이 덜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흐름은 나라보다는 내가 중심이 되어 호국정신이 무너지고 있다. 대북문제와 중국의 사드 보복, 미국의 간섭 그리고 일본의 위안부 합의 등의 문제는 우리가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안들이다. 그에 반해, 국민을 너무 안이한 반응을 취하고 있다. 국가의 안보와 주권을 위협하는 일인데도 말이다. 우리는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순신 장군이 왜적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다 돌아가신 일을,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외친 소리를.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 최대한 잘 살아야 한다. 그분들이 만들어온 이 세상을 우리가 망치면 안 된다. 바쁜 일상에 찌들어 있다고 애국자들에 대한 감사함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

6월 25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다. 67년 전 그날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 국민은 얼마나 고통받았는가? 전쟁이 끝나고는 항상 참혹한 결과가 나타난다. 참전용사들은 처절하게 싸웠고, 처절하게 죽었다. 가장 큰 아픔은 가족을 잃은 슬픔이다. 가족 말고 무엇이 더 중요했겠는가? 전쟁에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들의 영혼만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

비참했던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 우리는 일본의 통치하에 있는 식민지였다. 온갖 고문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차별을 당하던 우리 국민이었다. 그들은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고 독립을 위해 많은 애국 투사들이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독립을 위해 달려온 독립투사들이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우리는 일본에 지배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드디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인권이 심하게 훼손되었던 시대에 국민은 당당히 투표할 권리도 가지게 되었다. 바로 민주주의의 시작이었다.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쳐 대한민국은 많이 성장했다. 그러나 아직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전두환 정권은 언론을 장악하고 자신이 독재하다시피

부패한 정권을 만들었다. 국민은 분노했고, 거리로 나와 항의했다. 전두환 정권은 군인들을 내세워 시민들에게 폭력으로 응수했고 시민들은 더욱더 분노했다. 국민의 기세는 점점 높아졌고 시위대의 수는 늘어났다. 5·18민주화운동은 그런 민심을 잘 드러냈다. 마침내, 전두환 정권은 몰러났고,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탄생한 것이다. 국민은 이겼고 어둠은 졌다. 어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둠을 밀어냈다. 위대한 국민의 날이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국민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최고의 단합력을 가진 민족이다. 이 사실은 앞선 승리에서 일어났다. 앞선 승리에서는 모두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호국정신으로 나라를 지켜내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되짚음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간이 왔다. 역사는 흐르고, 위대한 국민은 영원하다.





특별상 | 육군참모총장상

현충원을 찾아서

중학부 | 박종혁 송례중학교 2학년



아침부터 아빠가 잠을 깨웠습니다. 주말이어서 늦잠을 자고 싶은데! 동생도 깨우셨습니다. 현충원에 가자고 하시면서. 동생과 아빠랑 처음 찾은 현충원에는 사람들이 북적였고 저는 백일장, 동생을 그리기를 접수하고 아빠 손을 잡고 현충탑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현충문 앞에서 이곳에 가족을 찾지 못하신 호국영령이 있다고 아빠가 설명해주셨습니다.

참! 저희 아빠도 군인이십니다. 하지만 현충원이 처음이라고 하십니다. 철원과 포천, 원주에서 근무하셔서 찾을 기회가 없어서라고 합니다. 현충문 앞에서 옷을 단정히 하고 방문록을 작성하고 현충탑으로 향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그 장면을 아빠랑 동생이랑 손을 잡고 걸어가니 마침 대통령이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현충탑에서 참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슬픔 역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충탑에 헌화한 대통령부터 많은 분이 찾으셨습니다. 현충탑에서 나와 수많은 군인의 묘역 앞에서는 6·25 전쟁의 슬픔을 다시 한번 눈으로 마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소중함을 잊고 지내는 우리의 모습과 나만 아니면 된다는 삶을 사는 우리!

수업시간을 통해서만 듣고 생각하는 6·25 전쟁, 순국선열이 아닌 눈으로 보고 직접 청소하며 묘 앞에 국화 한 송이 헌화하는 수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아빠랑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는 “우리 아들 다 컸네!”라며 웃으시며 현충문 앞 잔디에 돛자리를 펼

치시고 동생의 도화지에 뭘 그릴 것인지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동생이 아빠에게 왜 여기에서 그림을 그려야 하는지 묻자 나중에 아빠도 죽으면 이곳에 묻힐 거니 아이들 데리고 와서 너희도 아빠처럼 6·25 전쟁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호국영령에게 헌화하고 아빠 한번 보라고 하셨습니다. 동생은 아직 어려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랑 꿈이 공군의 파일럿입니다. 당연히 공부도 잘해야겠지요!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을 처음 왔지만 짧은 시간 많은 생각과 소중한 교훈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갑니다. 아빠의 말씀대로 매년 내 집처럼 찾아와서 나의 자녀에게도 같은 교훈을 주고 싶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특별상 | 해군참모총장상

순국선열에 대한 보답은 국가안보에 대한 투철한 생각을 가지는 것으로 시작된다



중학부 | 서지현 인천 신흥여자중학교 3학년

지난봄 학교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다. 길가에 손바닥 크기의 종이들이 사방으로 바람에 나뒹굴고 있었다. 우리 학교 주변의 대로변은 평소에 선전용지 같은 종이들이 뿌려지는 곳이 아니었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에 무심코 종이를 주워들어 읽어 보았다. 미처 입을 수 없는 음담패설과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욕보이는 문구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게 뭘까? 아! 알았다! 바로 이것이 북한에서 보낸다는 불온선전물 뼈라라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미치자, 나도 모르게 미친 사람처럼 종이를 줍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스쳐 지나가듯 어제 보았던 TV 뉴스가 떠올랐다. 인천 주변에 북한의 불온 선전물이 살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내가 종이를 줍는 동안 주변의 사람들은 신기한 듯 나를 구경하고 있었다.

평소에 스스로 나를 평가할 때, 안보의식이 강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투철한 마음가짐을 가진 학생은 결코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 국가를 모독하고 욕보이는 것과 같은 선전물을 보고, 결코 그냥 지나쳐 갈 수 없는 일이었다. 주변의 대학병원을 끼고 있는 대도시의 한복판의 도로에 북한의 선전물이 어떻게 날아올 수 있었을까? 만약 북한이 자주 보낸다는 무인 비행기로 전염병이 담긴 세균이나 폭발물을 날려 보낸다면 수도권에 사는 우리들의 생명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소름이 끼치는 일이었다. 왜? 지나가는 시민들과 학생들은 전

혀 반응과 관심이 없었을까? 불온선전물을 혹시, 보지 못해서 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낮아지는 우리의 안보 의식과 안보상태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일이 과연 나, 혼자만의 공연한 생각일까?

지난해 현충일 아침 운동을 하며 아파트 주변을 산책했다.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공휴일이라고, 생각하기엔 무색하게 아무도 태극기를 창문에 걸지 않은 못 보니 어색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우리 동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마 이날에 태극기를 걸고, 우리를 위해 몸 바친 애국자들을 추모한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보답 없이 살아도 되는 걸까?

한민족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던 남과 북이 남남이 되어 전쟁을 치른 지 어느덧 60년을 훌쩍 넘겼다. 그 당시 죽음의 공포에 맞서 싸우며 목숨을 기꺼이 바치셨던 용사들의 나이도 평균 80세가 넘는다고 한다. 그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민주주의 아래에서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지만, 정작 그들에 대한 대우는 형편이 없다는 신문 기사를 자주 접한다.

현재까지 살아계신 6·25 참전용사는 약 17만 명으로, 이들 중 87%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였다. 국가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카드가 있어 용사들은 이 카드를 사용하려 하지만, 정작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이 카드를 이용해서 버스를 타려고 하면 기사는 안된다며 빨리 내리라고 재촉을 한다. 또한, 국가 유공자로 등록되면서 최저 생계비까지 박탈당해 결국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다름없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과연 이분들에게 이러한 대우를 해 드려도 되는 것일까?

우리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3대가 모여 사는 확대가족이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을 나오신 어른들은 안보의식이 유별나게 강하시다. “어떻게 만들어 온 대한민국인데...! 우리의 순국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인데, 꺾여보지도 못한 것들이 뭘? 안다고?” 북한은 아직도 남한을 무력으로 침략하여, 남한을 적화하려는 야욕을 조금도 버리지 않고 있는데, 우리 남쪽 사람들이 무슨 통일이라도 된 듯 안보 의식을 까맣게 잊어가고 있다고 늘 말씀하신다. 북한에 대한 안보의식을 말하는 어른들을 수구 보수주의

자로 몰아붙이며 통일을 방해하는 적으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무척 안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순국선열에 대한 우리의 보답은 과연 무엇일까?

요즘 내가, 국사 시간에 배우고 있는 조선말의 위기상황은 현재 우리의 위기상황과 너무나 비슷해 보인다. 우리나라의 안보가 강대국의 손아귀에서 흔들리는 모습의 아픈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 주었다. 그 교훈은 우리 스스로가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안보 의식에서 출발한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에 대한 보답은 안보 의식을 새롭게 가다듬고 나라를 지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안보의식을 반듯이 굳건하게 세워야 한다.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했던 우리들의 지혜와 경험과 안보의식은, 이 위기상황을 극복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탄생을 만들 것이다.

나라를 위해 삶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보답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의 국가로 거듭나게 만드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은 아닐까?

순국선열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을 새롭게 가져본다.





특별상 | 공군참모총장상

고목이 남긴 터

중학부 | 김지훈 반포중학교 3학년

숲에 비가 내린 어느 날

거센 바람은 구름을 몰고
숲이 숲인지 알아볼 수 없는,
자연이 자연에 해를 입히는
그런 어느 날

비를 한껏 대신 맞아주는
바람을 제 몸으로 막아주는
새싹이 기댈 수 있는
크고 굳센 고목(古木)은
바로 그날 쓰러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광음이 지나고
고목(古木)은 그 자리에

생명이 또 다른 생명에게
태어날 생명에게
남기고 간 것처럼

숲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
새싹에게
개미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희망으로
누워있을 것입니다



특별상 | 해병대사령관상

현충원 비석



중학부 | 나형주 서일중학교 1학년

공부하다 뛰어든 학도병
 농사짓다 자원한 군인
 조국 수호 일념으로
 하나뿐인 목숨을 기꺼이 내던진
 숭고한 희생정신이
 눈시울을 따갑게 한다

내전 때문에 목숨 걸고 탈출하는
 아프리카 난민들
 테러집단의 위협으로
 조국을 떠나는 중동 난민들
 어렵게 목숨만 부지하며
 타국에서 수용 생활하는
 난민들을 생각하니
 현충원 비석 한 분 한 분마다
 심장을 뜨겁게 한다

풍부한 자원도 없는 국가지만
 지리적 경제 대국 사이에서도
 세계 경제 규모 11위, 대한민국
 순국선열, 호국영령
 당신들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현재의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금씩 지워지는
 비석의 이름을 보며
 다짐합니다
 당신들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비석 이름이
 다시금 선명해지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현충원 비석을 읽어가며
 한분 한분을 기립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이 행복합니다!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특별상 | 경기교육감상

아름다운 용기가 잠든 곳, 국립서울현충원



고등부 | 김채연 명덕여자고등학교 1학년

나에게 처음 닿게 된 국립서울현충원은 그저 나의 학생생활기록부 봉사 활동란의 빈 곳을 메꾸어줄 장소일 뿐이었다.

나라를 위해 그리고 어쩌면 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신 분들의 그 피와 땀과 눈물 섞인 노력을 알기에 나는 그때 아직 너무 철없고 어린 나이였다. 부끄럽게도 나는 그저 봉사시설일 뿐인데 너무 멀리 간다며 투덜대었고, 음식물 반입금지라는 선생님 말씀에 짜증 섞인 한숨을 지었으며 목념시간에는 친구들과 웃고 떠들기에만 바빴다.

그러나 중학생,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질풍노도의 3년을 이곳에서 보내면서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그 3년은 나에게 많은 것을 남기고 지나갔다. 해마다,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애쓰셨던 분들의 묘비를 닦으면서, 덩달고 투덜대던 내 모습에 어느샌가 그 생각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었다는 한 줄기 생각이 내 등을 스치던 순간, 나는 어느새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되돌아보게 되었고, 웃음이 헤프던 내가, 웃음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일 년이 지나, 고등학생이 되어 학교 벽에 게시된 국립서울현충원 백일장 포스터를 보게 되었을 때, 철없었던 그 시절에 대한 기억과 함께 문득 이곳을 다시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회로서의 목적을 떠나 철없던 시절의 나에게서 지금 나의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이 되어준 이곳을 다시 찾고 싶었다. 다시 찾은 현충원 바닥에 앉아 그 시절을 되돌아보는 지금, 나는 아직 씩씩한 미소만을 짓는다. 시간에 쫓겨 어느새 이곳을 잠

시 있고 있지는 않았는지,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또한, 그분들이 용기 내 국가를 구하기 위해 소리쳤던 상황과 같은, 나라가 위기에 빠진 순간이 나에게도 왔었음에도, 나에게도 나라를 위해 소리 낼 기회가 있었음에도, 나는 이번에도 귀찮다는 핑계로 등을 돌렸었다는 생각이 문득 뇌리를 스치자 그 씩씩한 미소조차도 지을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그동안 여기에 잠드신 분들의 위대함을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분들이 위대하신 이유는 무엇보다도 당연히 그분들이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친구들에게도 큰소리치던 나였는데……. 물론 그분들이 위대하신 이유는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새롭게 느끼게 된 점은, 이분들에게는 내가 가지지 못한 ‘용기’가 있었다. 내가 정말 단지 귀찮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일까? 나는 용기가 없었다.

얼마 전, 나라가 위기에 처해 국민의 우려와 원성으로 가득 찼을 때, 한 여고생의 연설 장면을 본 적이 있다. 나는 이곳에 있는 지금, 흡사 나보다 한두 살밖에 많지 않던 그 언니의 당찬 목소리를 떠올리면서 여기 계신 용사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여기 잠드신 용사들이 더욱더 위대해 보였고, 나라를 위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그 언니와 여기 잠드신 용사들에게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만 같았다. 나는 오늘도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너무나도 값진 선물을 받았다.

여기 잠들어 계신 위대한 용사들과 나의 차이점은 ‘용기’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번에, 더 성숙한 내가 되어 이곳에 재방문했을 때, 그때는 비로소 씩씩한 조소가 아닌, 얼굴 가득 함박웃음을 짓고 이곳에 잠들어 계신 위대한 용사들을 한 점 부끄럼 없이 만나 뵈 수 있도록 더욱더 용기 있는 내가 될 거라고, 그때까지 당신들을 잊지 않으리라 하고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

아름다운 용기가 잠든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오늘도 나는 커간다. 나의 마음을 성숙하게 하는 곳, 국립서울현충원. 자주 올게! 그때까지 너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더 어른이 된 마음을 가진 나로 돌아올게!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용기 있는 삶을 살게.

아름다운 용기가 잠든 곳. 국립서울현충원, 안녕!



특별상 | 인천교육감상

현충원에 바치는 밤편지

고등부 | 이지희 선일여자고등학교 3학년

소나무 위 지빠귀들도 잠든 새벽녘
게양대 옆 스피커에선
경종을 알리는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원고지 위 가만히 내 이름을 적어봅니다
편지 한 장만 두고 떠나버린 아버지들과
누군가의 아들들을 떠올립니다

-나라를 위해선 육식동물처럼 살아라
세상 어머니들의 외마디 외침들
현충원에 육신으로 잠든 선열들의 이름
함께 있어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가져다만 대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게양대 옆 스피커는 아직도 울려 퍼지는데
할 말이 있으면 어떠한고
없으면 또 어떠한라

순국선열들의 그 날의 가르침은
우리 가슴 속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지우개처럼 다닥다닥 꽃힌 비석들도
그날의 기억을 지울 순 없는 걸까요?
높게 뜬 별들마저 즐고 있던 새벽녘
모두가 잠든 곳곳에서는
교전을 알리는 총성이 울려 퍼지고





셋 하면 숨는 거야

떨리는 어깨를 감싸오던 그들의 손을

두려움을 차마 감출 수는 없어

파르르 떨리던 두 눈을 가슴에 담아봅니다 벤치마다 둘러앉아

꽃소리가 잦아든 거리엔 정적만이 남고 커다란 입꼬리로 함박웃음 짓는 아이들

연신 아이들의 눈에 일었던 파문이 멈추면 온몸에 힘을 쥐 싸우던 그들의 희생이 있어

사방에 널브러진 그들 사이로 후대의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그믐달이 아스라이 피어올랐습니다

가는 손목에 손수건을 묶어두고 나는 품에 안은 한 아름 국화꽃다발

돌아서는 길 가장 가난한 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끝나지 않은 것만 같은 총성이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바람이 되어 불어옵니다

아쉽지만, 이 편지의 종장을 뺏습니다

꿈속 나리던 꽃잎을 추억합니다

묘지 속 이름들을 읊어주는 순간

저 멀리 당당한 선열들의 뒷모습이

달빛이 밝혀오는 이곳 현충원의 등허리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총성에 나라를 위해 한평생을 바쳤던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대한의 낙원

오월의 푸른 밤, 현충원 안 담아볼까

수양버들 흐드러지게 피고





특별상 | 한국문인협회이사장상

부치지 못한 편지



고등부 | 정유나 고양예술고등학교 2학년



석철아, 내 동생아.

내 이렇게 양심도 없이 너에게 못할 편지를 쓴다.

하늘에서 총알이 떨어질 거라고, 불바다가 될 거라는 인천 내동을 등에 지고

손에 잡히던 대로 짐을 챙기던 날

너는 맑은 눈을 하고 형아, 우리 어디가

조그만 입을 달싹거릴 뿐.

울지도 않았었다.

지금이야 배꼽아 죽는 사람이 없지만 그때는 전부 갈비뼈를 흰히 드러내놓고 있었잖니.

점점 야위어져 가는 너를 보채며 석원 형하고 나는 밤을 주우러 마니산에 자주 올랐었다.

한여름이었지만 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굶은지라 꽃은 피기도 전에 먹어버리고 열매는

시퍼런 것들마저 찾기가 힘들었다.

일주일 췌 허탕을 쳐서, 너를 집에 두고 형과 나만 산에 오른 날이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밤나무에 밤이 주렁주렁 달렸었지.

찌든지 굽든지, 하여간 다 같이 먹을 생각을 하니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더라.

그런데 석철아, 꼭 그날 그렇게 눈을 감았어야만 했냐? 네 이름을 몇 번 불러보지도 못한 것 같은데.

관도 없어서 지푸라기 대충 엮은 거적으로 너를 감싸던 날. 나는 삼으로 끝도 없는 구덩이를 팠었더랬다. 구덩이 속에 네 뉘의 밤을 같이 묻으며 나는 코가 벌개지도록 울었다. 그때 그 흐느낌은 오로지 너를 위한 것이었다.

아아- 그런 여름의 기억들은 이제 전부 심연 속에 묻혀 있고 원통하게도 내 머리만 희어지는구나.

석철아, 내 동생아. 잘 지내느냐? 네가 많이 보고 싶은 날이다.





특별상 | 육군참모총장상

지워지지 않는 흔적



고등부 | 류주연 고양 저동고등학교 3학년

작년 여름방학은 나에게 조금 특별했다. 유난히 더웠던 그 날, 부산에 홀로 살고 계시던 할아버지가 우리 집으로 올라오셨다. 할머니를 일찍 떠나보내고 30년 동안 한 번도 집을 떠나지 않으시던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당뇨가 심해져서 치료차 일산으로 오신 거라고 했다. 워낙 할아버지가 무뚝뚝한 성격이라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와 의 기억이 거의 없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당뇨를 앓고 계셨던 것도 우리 집에 올라오신 그 날에야 알았다.

갑작스러운 할아버지의 방문에 나는 방학 내내 동생 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다. 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티브이도 마음대로 보지 못했다. 방학인데 즐기지도 못하고 속상해서 엄마에게 짜증을 내버렸다. 엄마는 할아버지가 편찮으신데 그것도 이해해줄 수 없냐며 나를 꾸짖었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엄마에 잔뜩 토라져 티브이를 더 크게 틀었다. 그러자 갑자기 내 방의 문이 벌컥 하고 열렸다. 그 뒤로 나오는 할아버지의 굳은 얼굴에 겁이 나 바로 티브이 소리를 줄였다. 반바지 차림의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어와 내 옆에 앉았다.

“죄송해요. 소리가 너무 컸죠.”

편찮으신 할아버지께 투정을 부린 것이 죄송했다. 할아버지는 그런 나를 바라보던 할아버지는 “그런 거 아이다.”라고 말하면서 티브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할아버지가 반바지를 입은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낯설었다. 할아버지의 다리는 생각보다 많이 앙상했다. 왼쪽 허벅지는 유난히 더 앙상했다. 비늘 같은 피부에 내 팔정도 두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할아버지... 이 왼쪽 허벅지 두께랑 오른쪽 허벅지 두께랑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용기 내서 물었다. 할아버지는 티브이를 보고 계시다 내 질문에 앙상한 허벅지를 어

루만졌다. 할아버지의 깊은 한숨에 공기가 무거워졌다. 약간의 정적이 흐르고 할아버지는 입을 열었다.

“6·25 때 내가 거기 싸우러 갔다가 요 허벅지 여기에 총알이 하나 박혔다. 그때부터 근육이 뜨그들끼리 들러붙드만 이래 됐네.”

전혀 몰랐다. 명절 때 부산에 내려갔을 때 할아버지의 절뚝임은 그저 노화 현상 중 하나일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었다. 할아버지는 당시 19살이었다고 했다. 19살이면 지금의 내 나이와 같다. 19살부터 절뚝이는 다리를 안고 살아온 것이다.

나뭇가지처럼 앙상한 다리를 쓸어내면서 허공을 보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할아버지의 고난했을 과거가 보였다. 그날의 할아버지와 같은 나이인 나는 과연 나라를 위해 당연하게 전쟁통에 뛰어들 수 있을까? 당시 16살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이 나라의 군인으로 나라를 위해 맞서 싸웠는데 지금의 우리는 겁먹지 않고 그들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평소 우리 주변에는 할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분들이 많이 숨어계신다.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게만 느껴졌다.

티브이를 보던 할아버지는 그 날이 떠오르신 것인지 씩씩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고장 난 나무인형처럼 절뚝절뚝 한 발씩 내딛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기개가 있어 보였다.





특별상 | 해군참모총장상

영원한 만남



고등부 | 김동현 우신고등학교 3학년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다. 푹푹했던 봄날도 차츰 사그라지고 있었다. 부엌에선 정갈한 칼질 소리가 들려온다. 오늘은 흥겨운 엄마의 콧노래가 들리지 않는다. 나는 말 없이 과일 일을 자르는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매년 현충일의 아침은 약간의 침묵과 함께한다. 언제나 조화를 이루던 칼질 소리와 엄마의 콧노래, 콧노래 없이 홀로 장단을 맞추는 칼질 소리가 문득 외로워 보였다. 그건 마치 속이 텅 빈 허울 껍데기를 보는 듯했다.

“가자 동현아”

엄마의 말에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인다. 반듯하게 올라가 있어야 할 엄마의 입꼬리가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서글픈 날인데도 막 달궈진 여름의 햇살은 잔인할 정도로 뜨거웠다.

국립현충원 53번 묘역. 그곳에 김창년 할아버지가 계셨다. 아침인 탓인지 국립묘지는 한적했다. 적요한 고요가 국립묘지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텅 비어 있는 국립묘지는 쓸쓸한 새벽 거리를 보듯 공허하다. 나는 말 없이 엄마를 바라본다. 엄마의 얼굴에는 음울한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그건 아빠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수건을 받아 묘비를 닦기 시작한 다. 엄마는 과일을 꺼내고, 아빠는 술을 술잔에다 따르고 있었다. 엄마, 아빠의 행동에는 말로 표현 못 할 숙연함이 서려 있었다. 잠시 후 아빠가 할아버지께 절을 올렸다. 엄마는 허망한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나도 엄마를 따라 하늘에다 시선을 툭 던진다. 푸른 하늘에는 새털구름 몇 점이 떠 있었다. 엄마, 아빠의 마음이 하늘에 있을 할아버지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길 바랐다. 나는 묘비 곳곳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닦아낸다. 특히 나 잘 닦이지 않는 새똥들은 그간 흘러가 버린 고된 세월을 나타냈다. 할아버지는 고마움을 받을 분이셨지. 퀴퀴한 세월에 묻히실 분이 아니었다. 절을 마친 엄마가 후 한숨을 내뿔자 더운 입김이 허공으로 사르르 퍼져나갔다. 허연 입김은 이내 하늘로 솟구치더니



곧장 자취를 감췄다. 나는 결눈질로 흘끗 엄마, 아빠를 살핀다. 엄마, 아빠의 표정은 울적하고, 침울하기만 하다.

나는 말 없이 할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려본다.

‘아마 웃고 계실 거야.’

나는 설날 때 만난 외할아버지의 미소를 떠올린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외할아버지의 얼굴, 할아버지 특유의 인자한 미소를 볼 때면 나도 모르게 웃게 된다. 아마 김창년 할아버지도 웃으실 거라 생각했다. 외할아버지의 인자한 미소처럼 김창년 할아버지도 한껏 밝은 미소를 지으실 거라 믿었다. 아마 김창년 할아버지의 미소는 연한 파도의 물결처럼 잔잔할 것이다.

“내년에 또 뵙게요.”

나는 열은 미소를 띤 채 고개를 꾸벅인다.

“잘 가거라.”

문득 처음 들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목소리는 따뜻했고 인자했다. 그래서 나도 할아버지를 향해 씩 웃었다. 그런 날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입가에도 잔잔한 미소 한 자락이 피어올랐다.



특별상 | 공군참모총장상

고귀한 순국

고등부 | 양희선 일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연녹색 푸르름이 짙어지는 평화로운 계절에 여기 현충원의 울창한 숲 사이로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와 함께 태극기가 펄럭인다.

나는 오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지신 호국영령들의 헌신에 깊이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울리며 그분들의 명패 앞에 “고귀한 순국”이라고 덧붙여 불러본다.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호국영웅들을 딛고 일어난 나는 묵묵히 숨죽인 채 오늘도 염치가 없다. 수많은 순국 전사들을 아깝게 보내고도 나의 희생정신과 안보의식은 턱없이 부족하고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독도가 자국의 땅이라는 일본의 억측을 보면서 너무 화가 치밀어 일본 영사관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 정치하는 사람 중에는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궤멸 운운하며 복핵으로 안보가 불안한데 민심을 호도하고 선동하며 탄전을 피우는 사람도 있다. 그런 정치인에게 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호국영령들 앞에 면목이 없다.

김일성의 남침으로 민족의 비극을 남긴 6·25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고 휴전 중인 상황을 언제나 깨어 기억해야 한다. 그의 손자 김정은도 반성은커녕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일에 익숙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유전자를 상속받은 비인권 주의 사상가이다. 혈육을 죽이고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폭력 범죄 집단인 북 김정은 정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려고 쏟아지는 총알을 맞으며 끝까지 대항하셨던 순국 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자 중에 이준 열사의 희생을 나는 잊을 수 없다. 열사님은 이상설, 이위종과 함께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여 일본의 잔악함과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려 하였으나 일본의 노골적인 방해로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하였고 고종황제에 의해 파

견된 우리 특사들은 일제의 방해에 굴하지 않고 회의장 바깥에서 각국 대표들에게 항의
 문을 배포하였으며 그 희생으로 당시 신문의 주 뉴스로 대서특필되어 世界人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름도 모르는 아시아의 작고 가난한 나라 大韓民國이 세계에 알려지는 순
 간이었다. 열사님은 연일 애통해하다가 순국하셨지만, 을사늑약은 세상에 알려졌다. 나
 는 얼마 전 “이준 열사, 그 멀고도 외로운 여정”을 읽고 열사께서 묵으셨던 헤이그의 어느
 낡은 3층 건물에 쓸쓸하게 걸려 있었던 태극기를 생각하며 눈물을 왈칵 쏟아야 했다. 외
 국인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을 대한민국의 태극기! 그렇게라도 대한민국을 알리려고 하
 셧으니 열사님의 나라 사랑은 아니 계신 곳이 없었다. 또 열사님의 강연 중에 외치셨던
 “땅덩어리가 크고 사람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 많은 나라가 위
 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라고 우렁차게 외치셨다. 그렇다. 이제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아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이 되었다. 열사님처럼 투철한 애국정신
 이 있었기에 아픈 역사를 잘 극복해 왔고 뛰어난 지도자 몇 사람을 잘 만나 부강해졌다.

세계는 지금 글로벌 시대를 넘어 4차 산업에 진입하였고 하루하루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끊임없이 배워야 경쟁할 수 있고 우리 것을 지킬 수 있다. 또한, 세계는 저성장과 실
 업의 늪에 빠져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희망의 끈을 꼭 붙잡고 창의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찾아 나서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내부 갈등을 줄이고 세계로 뻗
 어 나가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며 세계인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신뢰를 바탕으
 로 한 일자리 창출이며 땅덩어리가 작은 우리가 살길이다. 아울러 나라를 위해 몸 바치신
 순국선열들이 이 땅에 뿌리신 고귀한 씨앗이 헛되지 않도록 열매 맺어 평화가 실현되기
 를 간절히 바라며 추모의 마음을 바친다.





특별상 | 해병대사령관상

잊지 않겠습니다

고등부 | 김주는 진명여자고등학교 2학년



언니는 18살에 군인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뜬금없는 이야기였다. 언니의 꿈은 교사였다. 그런데 갑자기 군인이라니, 늘 운동을 잘하고 좋아하기를 했다. 체육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아오고, 스포츠 클럽도 나갔다.

작은 얼굴에 흰 피부, 푹푹푹망한 검은 눈동자. 아빠는 언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여자가 무슨 군대야. 공부나 해서 교사해, 그게 제일 편한 거야.”

“교사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아빠가 정해준 꿈 말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언니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때 알았다. 언니가 군인이 되기로 다짐한 건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음을. 어쩌면 언니에게는 영웅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게 아닐까.

언니는 가족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꿈을 향해 나아갔다. 언니는 벌써 군인이 된 것처럼 행동했다. 정해진 시간에 취침하고 기상했다. 일어난 후에는 침구류를 정리정돈하고 엄마가 해주신 아침밥은 절대로 남기는 일이 없었다.

결국, 언니는 필기시험인 1차 시험과 신체검사를 포함한 2차 시험도 통과했다. 가족들은 노력한 언니를 봐왔기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좀체 웃지 않던 아빠도 미소를 지으셨다.

후에 언니에게 왜 군인이 되기로 한 건지 물어봤다. 언니는 돌아온 사자, 조창호 소위에 대해 말했다. 조창호 소위는 육이오 전쟁이 터지자 국군 장교로 자원입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석산 전투에 참가한 지 한 달 만에 중공군에 포로로 잡히고 말았다. 탈출을 시도했지만, 북으로 끌려가서 13년형을 선고받았다.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가고, 1994년 중국으로 탈출한 후에 남쪽으로 와 가족들 품에 안겼다.

언니는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조창호 소위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알고 나서 머리가 멍해졌어. 내가 이렇게 잘살고 있다는 건 다 노력해준 호국영령 덕분이라는 걸 깨달았어. 참 당연한 얘기지만,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니까?”

와, 절로 탄성이 나왔다. 언니가 그런 이유에서 군인이 되기도 결심했다니, 언니가 자랑스러웠다.

요즘은 애국심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진다. 다들 자신의 삶에 바빠 우리나라를 있게 해준 사람들을 잊은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언니처럼,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 사랑을 이어나가야 한다. 역사는 현재와 연결된다. 나라를 위해 삶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잊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조창호 소위를 생각하면 물 큰 감동이 밀려오나 보다. 언니는 충성 자세를 하고 소리친다.

“잊지 않겠습니다!”

반짝, 하고 언니의 군복 명찰이 빛났다.





특별상 | 한국문인협회이사장상

아들



정호연
주문예배인전

일반부 | 홍성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따 어무이요, 내가 누굽니꺼

어무이 아들 아닙니꺼

반드시 돌아옵니더

아들의 약속을 믿은

반토막 같은 노모가 눈을 감던 날

흰머리 성성한 딸이

작대기 같은 팔을 허우적거리며

어머니 대신 오빠를 부르며 목 놓아 운다

아버지는 일제에 끌려 가고

오라비는 전쟁에 끌려 가고

어머니는 운명에 끌려 다녔다

기다리는 것이 인이 배기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배기고

어머니의 귀에는 아들의 목소리만 배긴다

포탄 소리 찾아들고

누군가의 아들은 웃음으로 돌아오고

누군가의 아들은 울음으로 돌아올 제

니는 잘 있제?

어디서든 살아 있제?

주문처럼 외던 말이 별이 되어 쏟아졌다

아따 어무이요, 싸게 싸게 오시소

와 이리 더디 걸립니꺼

아들의 목소리 귓가에 가랑거리고

노모의 입꼬리 힘겹게 올라가던

찰나의 순간,

노모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는

아들을 볼 수 없게 되어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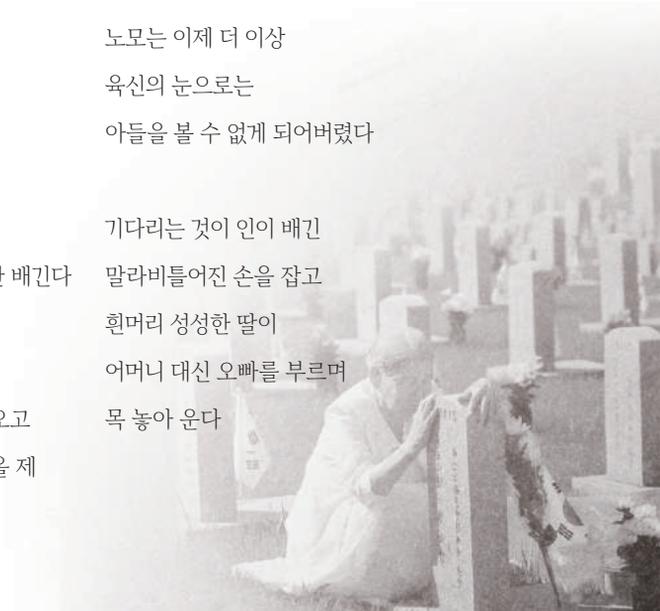
기다리는 것이 인이 배긴

말라비틀어진 손을 잡고

흰머리 성성한 딸이

어머니 대신 오빠를 부르며

목 놓아 운다





충무정

현충원 소개

현충원 방문안내

주요 프로그램 안내

현충원사계분 · 여름 · 가을 · 겨울

나라사랑정신

현충원시설및조형물

현충원묘역

현충원행사



현충원 소개



수양벚꽃제(4월)



제62회 현충일 추념식(6월)



호국문예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5월)



호국문예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5월)

현충원 소개



현충원 29초 영화제



가을호국행사(10월)



정기음악회(매월)



국방부 특별 군악의장 행사(4~6월, 10~11월)



이승만 대통령 묘소



박정희 대통령 묘소



김대중 대통령 묘소



김영삼 대통령 묘소



애국지사묘역



국가유공자묘역



장군묘역



장병묘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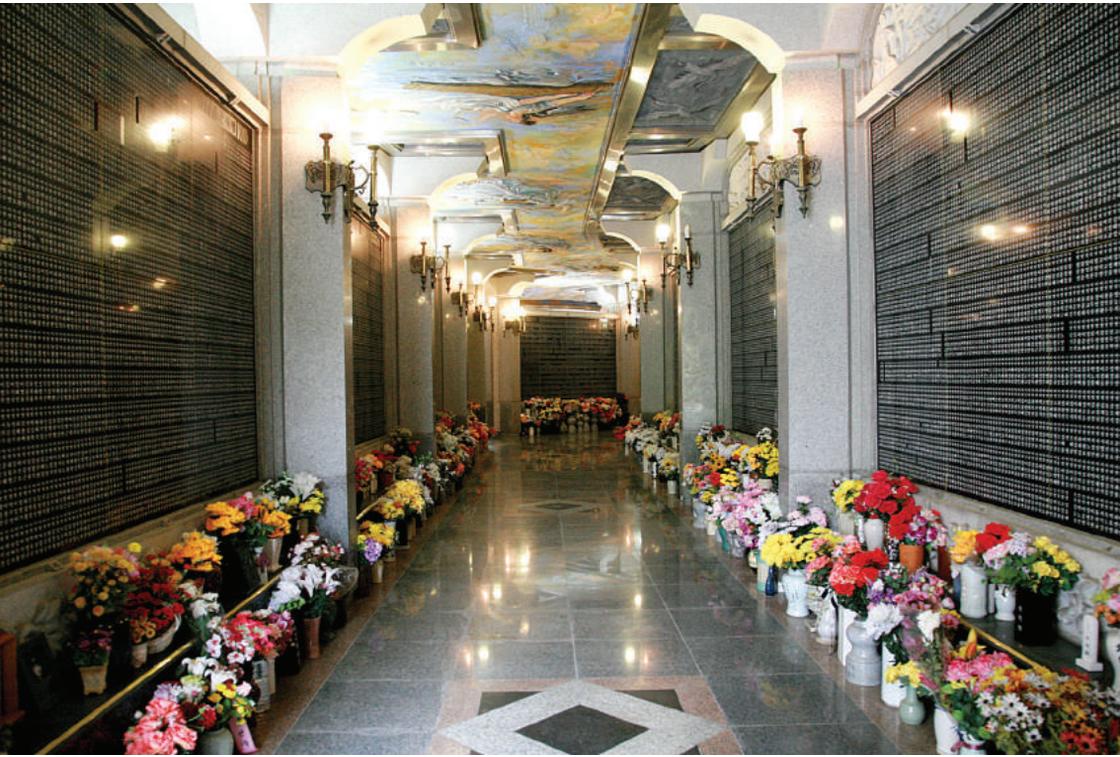
경찰묘역



현충문



충무당



위패봉안관



재일학도의용군 전몰용사위령비



육탄10용사현충비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위령탑



학도의용군무명용사탑



경찰총훈탑



유격부대전적비



충성분수대

현충원 소개



호국영웅상



애국투사상



충훈승천상





국민 참배



국민 참배



학생 참배



어린이 참배



나라사랑 체험학습



나라사랑 호국강연회



나라사랑 체험활동



일반 단체견학

현충원의 봄





Seoul National Cemetery

Spring





현충원의 여름





Seoul National Cemetery

Summer





현충원의 가을





Seoul National Cemetery

Fall





현충원 소개

현충원의 겨울





Seoul National Cemetery

Winter





나라사랑 행사

봄 호국추모행사 | 4월

호국정신이 깃들어 있는 수양벚꽃나무 군락지인 현충원에서
다양한 체험행사 운영

호국문예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 | 5월

내용 : 초·중·고·일반인 대상, 나라사랑을 주제로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시상 : 국방부장관상, 국립서울현충원장상 등 다수

신청 : 현충원 홈페이지 신청 www.snmb.mil.kr

정기음악회 | 3월~11월

내용 : 국방부 국군교향악단(80인조 오케스트라) 등 초청 연주회

일시 및 장소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변경 가능), 현충관

신청 : 현충원 홈페이지 신청 www.snmb.mil.kr

국방부 특별 군악의장행사 | 4월~6월, 10월~11월

내용 : 국방부 3군 의장시범, 전통무술시범, 여군 의장시범 등

일시 및 장소 : 격주 토요일 오후 2시, 겨레얼마당

(단, 부대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현충원 홈페이지에 확정 일정 공지)

가을 호국추모행사 | 10월 말 경

가을이 무르익는 때, 현충원의 아름다운 단풍나무 아래에서 순국선열
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 운영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인·단체 봉사활동 | 4월~11월

내용 : 현충원 묘역 정화활동을 통해 나라의 소중함을 느끼는
나라사랑 실천활동

대상 : 개인, 단체

활동 : 묘비닦기, 잡초제거 등

교육·체험 프로그램

일반 단체견학 | 1월~12월

연중 실시하는 현충원의 대표 견학 프로그램으로

학생 및 일반단체 대상

내용 : 현충탑 참배, 묘역(해설)순례, 전시관 관람, 호국영화 관람

국가상징 체험학습 | 3월~11월

초등학생 대상 “현충원과 함께하는 국가상징물 체험학습”

교육프로그램

내용 : 유품전시관 해설, 교육, 태극기 퍼즐 맞추기 체험, 현충탑 참배,
묘역순례, 퀴즈 등(우수자 현충원장상 수여, 참가자 전원 교재 및
기념품 증정)

나라사랑 체험학습 | 3월~11월

초·중학생 대상, 현충원 안장자와 연계된 “체험, 선열들의 발자취”

교육 프로그램

내용 : 유품전시관 해설, 교육(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자), 근·현대사
멀티 역사 연표 제작, 현충탑 참배, 애국지사 묘역 순례, 역사 퀴즈 등
(우수자 현충원장상 수여, 참가자 전원 교재 및 기념품 증정)

나라사랑 호국강연회 | 3월~12월

중·고등학생 대상 외부 유명강사 초청 특별강연 프로그램

내용 : 현충탑 참배, 묘역순례, 특별강연, 호국영화 관람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나라사랑 체험활동 | 3월~11월

초·중·고등학교 대상, 견학과 봉사를 결합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내용 : 현충탑 참배, 묘역(해설)순례, 봉사활동, 전시관 관람,
호국영화 관람(봉사활동확인서 발급)







참배 · 개방시간

동절기(11~2월)의 토요일 및 휴일은 전시관 휴관입니다.

참배 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개방 시간 | 오전 6시~오후 6시

전시관 관람 시간 |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단체견학 · 전시관 관람 등 무료

묘역해설순례, 영화관람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주차 | 동문 '현충선양광장', 현충문 옆 이용가능(주차비 무료)

문의 | 교육담당(군)905-6342, (02)811-6342

오시는 길

지하철

4호선 동작 / 현충원역 하차 4번 출구(동문 150m)

9호선 동작 / 현충원역 하차 8번 출구(정문 10m)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조국과 겨레는 나의 사랑
나의 영광, 나의 힘, 나의 생명
그를 위해 짧은 인생을 바쳐
그와 함께 영원하리라



국립서울현충원
Seoul National Cemetery



비매품



9 772586 260000
ISSN 2586-260X

간첩, 테러범, 방산스파이 신고는 국군기무사령부 ☎1337